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00.txt

제목: 행복감 주는 식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눈길'...몸 속 노폐물 몸 밖으로 배출  
날짜: 201505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2100000863  
ID: 01100701.2015051210000086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행복감 주는 식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눈길'...몸 속 노폐물 몸 밖으로 배출행복감 주는 식품 모닝커피가 에너지 생성과 친절함, 즐거움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에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가 누리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최근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가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에 대해 알렸다.필립스 세코에 따르면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심장 질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다.또한 커피를 하루 2~3잔 마시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집중력과 민첩성, 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공격 성향을 약화시킨다.이외에도 이뇨작용을 도와주고 몸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등 심장 박동 횟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하 지만,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와 신경과민, 두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인 400mg 하루 2~3잔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한다.한편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해야하며,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01.txt

제목: 행복감 주는 식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눈길'...몸 속 노폐물 몸 밖으로 배출  
날짜: 201505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2100000558  
ID: 01100701.2015051210000055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행복감 주는 식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눈길'...몸 속 노폐물 몸 밖으로 배출행복감 주는 식품 모닝커피가 에너지 생성과 친절함, 즐거움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에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가 누리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최근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가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에 대해 알렸다.필립스 세코에 따르면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심장 질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다.또한 커피를 하루 2~3잔 마시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집중력과 민첩성, 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공격 성향을 약화시킨다.이외에도 이뇨작용을 도와주고 몸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등 심장 박동 횟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하 지만,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와 신경과민, 두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인 400mg 하루 2~3잔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한다.한편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해야하며,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02.txt

제목: PTSD 노화 촉진, 노화방지에 건강까지 좋은 식품은? "젊어지는 보약 여기 있었네"  
날짜: 201505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2100000204  
ID: 01100701.2015051210000020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진= 박주미/ 미샤 광고 캡처충격적인 일을 당한 후 나타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 정신과전문의 제임스 로어 박사가 PTSD의 영향을 다룬 64편의 연구논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론났다고 전했다. 로어 박사는 "PTSD는 염색체의 말단부인 텔로미어가 세포가 노화되면서 점점 짧아지는 속도를 가속화시킨다"고 덧붙였다.이러한 가운데 노화방지에 좋은 식품이 화제다.최근 미국의 한 여성 잡지에서는 외모를 어려보이게 만드는 식품 4가지를 공개했다.첫 번째 식품은 메이플시럽으로 캐나다 퀘벡주에 주로 분포하는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농축한 것으로 항산화물질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하는 아연이 들어 있고 소염 기능도 있어 노화를 효과적으로 늦춰준다.하지만 설탕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하루 한 숟가락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두 번째 식품은 오이로 딱딱한 껍질에 주로 함유된 실리카 성분은 신체를 연결하는 조직 형성에 기여하고 근육과 관절은 물론 연골 등에도 좋으며 비타민C와 카페인산이 풍부해 피부를 재생하고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또한 오이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인 피세틴은 기억손실과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기억 장애의 촉진을 방지하는 것을 발견했다.세 번째 음식은 코코넛 오일로 SCI저널인 국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유(코코넛오일)을 7주간 매일 사용하면 피부 보습 효과가 3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네 번째 음식은 식용 꽃잎 또는 잎채소로 식용 꽃은 페놀산은 물론 갈릭산, 클로로겐산, 루틴과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며 또한 장미 꽃잎과 같은 식용 꽃은 항염 작용과 관련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과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03.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우유, 발암 vs 항암…진실은?  
날짜: 20150510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010017229933  
ID: 01100701.201505101001722993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해 10월 말 스웨덴발 연구가 언론을 휩쓸었습니다. 우유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된 것인데요. 그동안 이와 유사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우유가 ▲심장병 ▲유방암 ▲골절의 위험을 낮춘다고 말하면, 다른 한쪽에선 오히려 우유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식의 반박이 이어지곤 했는데요. 우유 등 ‘유제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br/> <br/>영국인 과학자 제인 플랜트 박사가 최근 국내에 출간된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통해 우유가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해당 도서는 동물성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해 유방암을 앓게 된 제인 플랜트 박사가 유방암 연구에 몰입하면서 유방암 발병원인을 추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br/> <br/>제인 플랜트 박사는 이 책을 통해 우유가 유방암의 발병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유 대신 ‘두유’를 마시고 치즈 대신 ‘두부’를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 <br/> <br/>정말 우유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것일까. 국내 전문가들은 외국인과 한국인의 동물성 지방 섭취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크고, 이 책은 일부 외국 사례만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 여건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입을 모은다. <br/> <br/>'우유 내 존재하는 CLA와 tans vaccenic acid(TVA)의 유방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는 이홍구 건국대학교 교수는 "우유가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의 핵심은 우유 속에 들어 있는 IGF-1이나 성장 인자 등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인데, 논문에도 나와 있듯 우유 속에 들어 있는 IGF-1의 농도 자체는 유방암을 일으킬 만한 농도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br/> <br/>이어 “IGF-1는 혈액 내에도 약 100㎍이상이 존재하는 물질로, 우유 속에 들어있는 IGF-1의 농도는 무척 낮기 때문에 우유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하루에 30㎍정도 밖에 안 된다”면서 “우유에 들어 있는 성분은 극히 미량으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이 아니며, 오히려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지방산이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br/> <br/>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span class='quot1'>우유 속에 들어 있는 IGF-1이나 성장호르몬은 종양의 세포증식을 촉진하기는 하지만 그 성분이 단백질</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단백질은 인간의 소화기관에서 가수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흡수되므로, 우리 몸 속의 IGF-1을 증가시켜 암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처럼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유 논쟁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과거에는 우유가 주 성분인 분유가, 엄마 젖보다 좋다는 광고도 있었다. 분유로 키운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우량아 선발대회를 하던 시절도 있었다. <br/> <br/>하지만 현재 의학계의 대체적인 결론은 엄마 젖보다 좋은 우유나 분유는 없다는 것이다. 엄마와 아이의 친밀감은 물론이고, 엄마 젖을 먹이면 당장 엄마의 비만이나 ‘산후 우울증’도 줄여주고 유방암 발생 위험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br/> <br/>아울러 엄마 젖을 먹고 자라면 아토피·천식 등 각종 알레르기 질환은 물론, 장 질환·감염 등 여러 질환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어도 신생아나 영아 때는 우유보다 엄마 젖이 좋다는 것은 이제 거의 ‘확인된 사실’이다. <br/> <br/>결론적으로 우유를 먹어야 할까, 아니면 마시지 말아야 할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정답’은 없다. 다만 우유의 효과를 과신해서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거나 아이들한테 꼭 먹여야 한다거나 반대로 우유를 아예 피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br/> <br/>업계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요거트 등 발효 유제품을 먹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에는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일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 내용이 우유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지가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04.txt

제목: “심근경색 여부 집에서 5분 만에 진단”  
날짜: 20150508  
기자: 장영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810017225741  
ID: 01100701.201505081001722574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심근경색을 가정에서 손쉽게 검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br/> <br/>포스텍(포항공대)은 화학공학과 전상민(사진) 교수 연구팀이 백금 나노입자와 모세관을 이용해 심근경색 여부를 5분 만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심장 근육이 썩으면 근육 속에 들어 있는 효소나 단백질이 혈액 속으로 흘러 나온다. 그중에서도 트로포닌은 다른 장기에는 없는 단백질로, 혈액 속에서 이를 발견하면 심근경색 진단을 내린다. 지금까지는 이 단백질을 측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가 분석장비가 필요했다. <br/> <br/>연구팀은 이번에 과산화수소가 백금 나노입자와 만나면 산소를 만들면서 부피가 증가해 유리병 속 압력이 높아지는 원리를 이용했다. 심근경색을 확인하는 단백질 트로포닌을 검출할 수 있는 특수 나노입자를 혈액과 섞어 유리병에 넣고 잉크가 담긴 모세관 뚜껑을 닫으면 과산화수소를 분해해 온도계 온도가 올라가듯이 잉크 방울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 잉크 방울 높이는 온도계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농도에 따라 달라져 트로포닌 농도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전 교수는 “<span class='quot0'>나노입자에 붙이는 항체만 바꾸면 암은 물론 바이러스, 식중독균 등의 진단이나 검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넓은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가 발간하는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Analytical Chemistry)에 실렸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05.txt

제목: ‘줄기세포 치료 암 유발’ 해결책 찾았다  
날짜: 20150507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710017203323  
ID: 01100701.201505071001720332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배아줄기세포나 역분화 유도 만능줄기세포로 만든 세포치료제를 임상에 적용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암 유발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았다. <br/> <br/>김동욱 연세대 의대 교수팀은 6일 인간 줄기세포로 만든 신경계 전구세포가 종양을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물질을 제거해 암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실험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br/> <br/>이 연구 결과는 국제줄기세포학회의 공식 저널인 ‘스템 셀 리포트’의 온라인판에 지난달 30일 게재됐다. <br/> <br/>연구진은 암 유발과 관련해 줄기세포를 신경계 전구세포로 분화시킬 때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 이외에 신경능선세포(NCC)가 소량 만들어진다는 데 주목했다. 신경능선세포는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신경세포를 세포치료제로 쓸 때 함께 섞여 원하지 않는 조직이나 암을 유발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줄기세포로 만든 신경계 전구세포에 섞여 있는 신경능선세포, 즉 ‘폴리시아릴산 신경세포 부착 분자’(PSA-NCAM)라는 물질이 발현되지 않은 세포가 종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동물실험 결과 이 물질이 있는 신경세포는 이식해도 암이나 이상조직이 생성되지 않는 사실도 확인했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성과는 특허도 출원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0'>PSA-NCAM을 가진 순수 신경세포를 이용해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척수손상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실제 연구진은 PAM-NCAM이 있는 신경세포만 순도 높게 분리한 다음 뇌졸중과 척수손상에 걸린 동물에 이식한 결과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06.txt

제목: 7월부터 재가(在家)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50507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710017208802  
ID: 01100701.2015050710017208802  
카테고리: 사회  
본문: 오는 7월부터 가정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r/> <br/>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하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br/> <br/>7일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br/> <br/>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br/> <br/>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 <br/> <br/>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6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1급), 전담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둬야 한다. <br/> <br/>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가정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도 필수 인력으로 인정된다. <br/> <br/>복지부는 7월 중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해, 하반기 중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br/> <br/>지금은 호스피스 전담 병상을 운영하는 '입원형 호스피스' 만 운영 중이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가정형 혹은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07.txt

제목: 차움, '부모사랑 검진 프로그램' 실시  
날짜: 2015050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710017208799  
ID: 01100701.2015050710017208799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br/> <br/>차병원그룹 청담동 차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차움 효도 검진 패키지'인 차움 부모사랑 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br/>  <br/>차움 부모사랑 검진 프로그램은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뇌·심장질환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암과 각종 성인병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특화돼 있다. <br/> <br/>검사 항목은 위내시경·복부초음파·저선량폐CT(저선량으로 전신을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최신CT장비, 기존 방사선 피폭선량 대비 최대 80% 이상 감소)·척추촬영·골밀도검사 등 10여 개로 이뤄져 있다. <br/>  <br/>또한 한국인의 발병률이 높은 10대 암을 검진하는 '프리미엄 10대 암 검진' 프로그램과 기억력 및 뇌 건강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치매검진'이 마련돼 있다. <br/> <br/>이밖에 중장년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갱년기 증세를 비롯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화검진 프로그램 등이 부모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br/>  <br/>차움 가정의학과 서은경 교수는 "특히 10대암 검진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에 부모의 연령과 가족력, 유전적 체질에 따라 검진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특정 질환 및 10대 암을 정밀 검사하는 특화검진 프로그램"이라고 조언했다. <br/>  <br/>차움 푸드테라피센터 이기호 교수는 "차움의 검진은 검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의료진이 처방하는 맞춤 운동, 식이요법과 함께 센터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메디컬 스파와 수중 치료, 에스테틱은 물론 푸드테라피와 티테라피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br/> <br/>차움 검진은 개인룸에서 필요한 모든 검진이 진행되는 '원스톱 맞춤검진'으로 이뤄지고 방사선량 관리 시스템 등 안심 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br/> <br/>이와 더불어 검진 결과가 나오면 주치의·영양사·운동처방사가 한 팀을 이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과를 상담하며 향후 건강관리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br/> <br/>질병이 발견되면 주치의 설명 외에 해당 진료과 전문의의 상세한 상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br/> <br/>한편 지난 6일 KBS2 의학예능 프로그램 '비타민'이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가족건강 프로젝트'에서는 가수 조관우의 아버지, 명창 조통달씨가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의 건강상담을 받는 내용이 방영됐다. <br/> <br/>비타민 주치의인 차움 푸드테라피센터 이기호 교수를 비롯해 정형외과 박명률 교수, 비뇨기과 양승철 교수, 가정의학과 서은경 교수가 각각 전문의로 출연해 조통달씨의 건강 상태에 따른 건강 관리 비법을 소개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08.txt

제목: '다빼 1호' 등 발암물질 들어간 다이어트제품 유통시킨 중국밀매조직  
날짜: 2015050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1949365  
ID: 01100701.20160515001949365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다빼 1호' 등 발암물질이 들어간 다이어트 제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중국인 조직이 적발됐다. <br/> <br/>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페놀프탈레인, 디피론 등이 함유된 다이어트 제품 '다빼1호', '다빼파낙스'를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한 중국 동포 서모(25·여), 전모(21·여)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br/> <br/>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중국 판매 총책과 제조원까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해 사범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br/> <br/>식약처가 회수에 나선 회수 대상은 '다빼 1호'와 '다빼파닉스' 등 두가지로 모두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br/> <br/>해당 제품에 들어간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됐으나 암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도 쓸 수 없다. <br/> <br/>디피론은 백혈구 손상, 급성신부전증의 부작용 때문에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br/> <br/>식약처는 이들이 마약 밀매조직처럼 중국 판매총책, 국내 중간 유통, 국내 판매원 등의 점조직 분업 체계를 갖추고 활동했으며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br/> <br/>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은 일명 '인니다이어트'로 불리며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행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제조국을 알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09.txt

제목: "염색체 텔로미어 급속히 짧아지면 암 예고 신호"  
날짜: 201505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6100000563  
ID: 01100701.2015050610000056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세포의 염색체 말단부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급속히 짧아지면 장차 암이 발생한다는 예고신호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수 허우리팡 박사가 암이 없는 남녀 약800명을 대상으로 13년에 걸쳐 텔로미어의 길이를 추적하면서 암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5일 보도했다.조사 기간에 모두 135명이 각종 암 진단을 받았다.허우 박사는 암 진단에 훨씬 앞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급속하게 짧아지기 시작해 암 진단 3~4년 전에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게 멈춰 버린다고 밝혔다.암 진단 3~4년 전부터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도 진단되기 전의 암 세포가 자신의 증식을 위해 염색체를 '납치'해 텔로미어가 더 이상 짧아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허우 박사는 설명했다. 그 이전까지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급격히 짧아졌으며 그 속도는 15년 더 나이를 먹은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와 같을 정도였다고 그는 밝혔다. 텔로미어의 이러한 특이한 패턴이 왜 일어나는지 규명할 수 있다면 이를 암을 예고하는 생물표지로 이용해 암을 발생 오래전에 포착하는 것은 물론 이를 차단하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텔로미어란 구두끈 끝을 풀어지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싸매는 것처럼 세포의 염색체 말단부가 풀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부분이다.이 말단부는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점점 풀리면서 그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며 그에 따라 세포는 점차 노화돼 죽게 된다.이 연구결과는 이바이오 메디신(EBioMedicine) 최신호에 실렸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10.txt

제목: '다빼 1호' 등 발암물질 들어간 다이어트제품 유통시킨 중국밀매조직  
날짜: 20150506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6100000674  
ID: 01100701.20150506100000674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다빼 1호' 등 발암물질이 들어간 다이어트 제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중국인 조직이 적발됐다.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페놀프탈레인, 디피론 등이 함유된 다이어트 제품 '다빼1호', '다빼파낙스'를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한 중국 동포 서모(25·여), 전모(21·여)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중국 판매 총책과 제조원까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해 사범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식약처가 회수에 나선 회수 대상은 '다빼 1호'와 '다빼파닉스' 등 두가지로 모두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해당 제품에 들어간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됐으나 암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도 쓸 수 없다.디피론은 백혈구 손상, 급성신부전증의 부작용 때문에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사용되고 있다.식약처는 이들이 마약 밀매조직처럼 중국 판매총책, 국내 중간 유통, 국내 판매원 등의 점조직 분업 체계를 갖추고 활동했으며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은 일명 '인니다이어트'로 불리며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행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제조국을 알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11.txt

제목: 5월 제철음식 관심, 봄기운 가득 담은 최고의 맛과 영양  
날짜: 20150502  
기자: ent1@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2100000022  
ID: 01100701.2015050210000002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5월을 맞아 5월 제철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봄기운이 절정에 이르는 5월의 제철음식은 맛과 영양이 풍부하다. 먼저 장어는 필수아미노산을 고루 갖춘 고단백 식품으로 다량의 비타민A가 활성산소 제거, 시각 보호 작용, 암 예방 및 성장을 돕는다.특히 오메가3계열 지방산(EPA, DHA)의 함량이 높아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뇌세포와 신경조직을 구성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다. 장어의 콜레스테롤은 필수지방산을 포함한 다량의 불포화지방산과 토코페롤 등에 의해 체내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배설하는 작용을 한다.주꾸미는 '타우린'이 풍부하다.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는다. 주꾸미는 낙지 꼴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다.봄꽃게는 영양 덩어리다. 꽃게는 지방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 위장 기능을 강화해 주고 타우린 미네랄 칼슘 키토산 등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이나 노화방지, 피부미용에 좋다. 미더덕은 불포화지방산 EPA, DHA 조성비가 등푸른생선보다 높고 영양면에서 우수하여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좋다. 전복도 피부미용, 자양강장, 산후조리, 허약체질 개선에 효능이 좋은 5월 제철음식이다.매실은 대표적인 5월 과일이다. 매실의' 피크린산'은 간과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식이섬유가 많고 저열량 저지방으로 다이어트에도 좋다. 하지만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여창용 기자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12.txt

제목: 도타2, 대규모 영웅 개편 및 신규 아이템 8종 추가  
날짜: 2015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1100000363  
ID: 01100701.20150501100000363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넥슨(대표 박지원)은 1일 밸브 코퍼레이션(이하 밸브, 대표 Gabe Newell)이 개발하고 자사가 국내 서비스하는 정통 AOS게임 도타2에 대규모 영웅 개편을 실시하고 신규 아이템 8종을 추가했다.이번 개편은 총 110개 영웅들 간의 밸런싱을 위해 정식 서비스 이후 진행한 여섯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이며, 89개 영웅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감행했다.상향된 영웅 중 닉스 암살자는 아가님의 홀을 구매하면 땅속에 숨어 체력, 마나를 회복하는 신규 기술 파고들기를 사용할 수 있고 군단사령관은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반격하는 기술인 용기의 순간 발동 확률, 체력 흡수율이 증가했다.하향된 영웅 중 트롤 전쟁군주는 광전사의 분노를 사용할 때 더 이상 추가 공격력을 받지 못하고 전투 결의의 지속 시간이 7초에서 5초로 감소했다. 가면 무사는 분노의 칼날 재사용 대기시간이 증가했고, 궁극기인 ‘연속 베기’를 사용할 때 첫 상대를 순간 기절시키는 기능이 없어졌다.이와 함께 마나를 즉시 150 회복 시켜주는 마력 깃든 망고(소모품)부터 사용시 주변 아군의 체력, 마나를 회복시켜주는 수호자의 경갑, 모든 기술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25% 줄여 주고 주문으로 받는 피해 일부를 체력으로 흡수해 주는 팔색구 등 전투에 도움을 주는 신규 아이템 8종을 추가했다.도타2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넥슨 도타 2 공식 홈페이지(http://dota2.nex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남윤성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13.txt

제목: 비타민D 결핍증상은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  
날짜: 20150429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9100000347  
ID: 01100701.2015042910000034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비타민D는 지난 40여 년 동안 뼈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그 연구는 미비했다. 하지만 최근 비타민D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비타민D가 혈중칼슘 농도를 조절, 면역조절 세포, 상피세포, 악성 종양세포 등 여러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조절, 근력발달, 혈압조절 관여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다. 특히 각종 암을 비롯해 심혈관계에 도움을 주고 자가면역질환, 염증성질환에도 유익한 역할을 한다. 중풍이나 심장병이 발병하는 경우 회복과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최근 미국의 내분비 및 대사질환학회지(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에서 1980년대 당시 3~18세에 이르렀던 어린이 약 2150명을 추적해 45세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의 수치, 흡연 습관, 활동량, 식습관, 혈압 등을 비교분석했고 그 결과,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았던 어린이들은 성년이 됐을 때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아이에 비해 동맥경화 발병률과 경동맥이 두꺼워지는 확률이 두 배에 이르렀다. 경동맥이 두꺼워지면 일반적으로 중풍의 발병률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인체의 비타민D는 장기적으로 혈관의 건강유지에 일정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체의 모든 세포는 비타민D 수용체를 지니고 있어 비타민D가 부족한 경우 모든 세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로인해 대장암, 위암 등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대장암은 빈혈,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초기 증상이 없어 발견되면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40대 이상 성인의 경우 배변습관의 변화, 혈변, 빈혈 등에 변화가 있을 시 바로 병원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부산한방병원 방선휘 병원장은 “<span class='quot0'>대장암이 무서운 암이라 불리는 이유는 전이가 잘되기 때문이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span>”고 조언했다. 수년간 암투병을 해온 이해인 수녀나 얼마 전 유명을 달리 한 배우 故 김자옥씨의 경우에도 대장암 완치 판정이후 폐나 위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사례다.야구선수 원종현 선수의 경우에는 대장암 수술 이후 전이에 대한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부산한방병원 방선휘 병원장은 “<span class='quot0'>개인별맞춤처방에 의한 면역암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식이섬유가 많이 든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해 장기능을 활성화시켜 발암물질이 대장을 신속히 통과하도록 해야한다</span>”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대장암은 예방이 우선이므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운동으로 비만을 줄이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검사를 꼭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14.txt

제목: 중국, 딸기에서 제초제 성분 과다검출 파문  
날짜: 2015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9100000557  
ID: 01100701.20150429100000557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중국 베이징(北京) 근교에서 재배된 딸기에서 제초제 성분이 과다검출됐다는 보도로 딸기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2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중앙(CC)TV는 지난 26일 슈퍼마켓과 농원, 도매시장 등에서 딸기 샘플 8개를 구해 조사한 결과 맹독성 제초제성분인 아세토클로르 성분이 과다 검출됐다고 밝혔다. 베이징농학원 연구진들이 샘플을 조사한 결과 아세토클로르 성분이 ㎏당 0.09㎎에서 0.367㎎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의 0.05㎎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딸기에 대한 아세토클로르 잔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아세토클로르는 대량으로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제초제 성분이다.보도가 나가자 베이징 뿐 아니라 주변 산둥(山東), 랴오닝(遼寧)성에서까지 딸기 소비가 급감하면서 딸기 재배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딸기 가격이 슈퍼마켓에서 ㎏당 40위안(7천원)까지 했지만 지금은 4위안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시장 관계자는 전했다.베이징시 당국도 파문이 커지자 보도 경위 조사와 함께 딸기에 대한 질량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CCTV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연구원들도 있다. 베이징시 농림(濃林)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딸기 재배과정에서 제초제는 필요치 않다면서 제초제를 쓴다면 딸기라는 식물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은 세계에서 딸기 재배가 가장 많은 국가로 매년 경작면적은 13만3천300헥타르(㏊)에 이른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15.txt

제목: “유전정보 해독 노화·질병 극복”  
날짜: 20150427  
기자: 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7100000191  
ID: 01100701.2015042710000019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첫 노화정보 회사가 탄생했다.울산과학기술대(UNIST)는 박종화(사진) 생명과학부 교수가 벤처기업 ‘제로믹스(除老믹스)’를 설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본금 2000만원의 제로믹스는 노화와 질병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대형 고래의 유전정보를 해독하고 고양이과 게놈 표준을 마련한 박 교수와 바이오케미컬 합성미생물 게놈설계 시스템을 개발한 이규상 박사 등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제로믹스를 통해 게놈정보를 분석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암과 유전적인 희귀병 진단·치료 기술과 제품, 노화진단기기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첫 사업으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1억7000만원 규모의 과제를 수주했다. 연말까지 멸종위기 고양이과 생물 게놈 프로젝트 분석을 지원하는 것이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16.txt

제목: 美 중년·노년층 50% 이상 "심근경색·뇌졸중·암 예방 위해 아스피린 복용"  
날짜: 20150427  
기자: yjchoo@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7100000899  
ID: 01100701.2015042710000089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의 중년·노년층의 50% 이상이 심근경색, 뇌졸중, 암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의과대학 약물요법전문의 크레이그 윌리엄스 박사가 45~75세 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전체적으로 약 52%가 현재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21%는 과거 한 때  아스피린을 복용한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윌리엄스 박사는 밝혔다.과거 심혈관질환 병력이 없다고 응답한 2039명 가운데 47%가 현재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아스피린 복용자 5명 중 4명이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라고 답했다.복용 이유(복수 응답)를 구체적으로 보면 심근경색 예방 목적이 84%로 가장  많았고 뇌졸중 예방 목적이 66%, 암 예방 목적이 18%,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목적이 11%로 집계됐다.전체 조사대상자 중 49%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 49%는 고혈압이 있었다.61%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전에 피우다 끊은 사람들이었다. 흡연도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중 하나다.대부분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됐지만 의사와 협의 없이 스스로 복용을 결정한 사람도 25%나 됐다.아스피린은 진통제이지만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동맥의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그러나 아스피린은 혈액응고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위장출혈을 일으키거나 위궤양을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그래서 관련 전문학회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한 번 겪은 환자들만 재발을 막기 위해 저단위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노스웨스턴 대학 의과대학 심장전문의 로버트 보노 박사는 심혈관질환 병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혈압, 흡연, 가족력 등 개개인이 지닌 심혈관질환 위험요인들과 아스피린의 부작용 사이의 득과 실을 평가해 아스피린 처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 예방의학 저널’5월호에 발표됐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17.txt

제목: “유전정보 해독 노화·질병 극복”  
날짜: 20150426  
기자: 울산=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610017092305  
ID: 01100701.201504261001709230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첫 노화정보 회사가 탄생했다. <br/> <br/>울산과학기술대(UNIST)는 박종화(사진) 생명과학부 교수가 벤처기업 ‘제로믹스(除老믹스)’를 설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본금 2000만원의 제로믹스는 노화와 질병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대형 고래의 유전정보를 해독하고 고양이과 게놈 표준을 마련한 박 교수와 바이오케미컬 합성미생물 게놈설계 시스템을 개발한 이규상 박사 등으로 구성됐다. <br/> <br/>이들은 제로믹스를 통해 게놈정보를 분석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암과 유전적인 희귀병 진단·치료 기술과 제품, 노화진단기기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첫 사업으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1억7000만원 규모의 과제를 수주했다. 연말까지 멸종위기 고양이과 생물 게놈 프로젝트 분석을 지원하는 것이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18.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전자담배, 호흡기질환 위험 높인다고?  
날짜: 20150425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510017086063  
ID: 01100701.201504251001708606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올해 초 담배값이 2000원 가량 인상되면서 다수의 흡연자들이 대체제로 전자담배를 선택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봐도 흡연자들만큼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띌 정도였는데요. 이로 인해 전자담배를 만드는 회사는 매출이 늘어났으며, 이와 관련된 주식도 소폭 상승하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처럼 전자담배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사용의 장·단점이나 과연 인체에 해로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봤습니다. <br/> <br/>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전자담배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금연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론은 앞서 복지부가 연구 용역으로 발표한 전자담배의 위험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br/> <br/>NECA는 지난 2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인 'NECA 공명'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궐련(연초담배)에 비해 적은 양이지만 포름알데하이드·아크로라인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궐련에 없는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니코틴 양을 전자담배 사용자가 조절하는 경우 인체 유입량 예측이 어려워 직간접적 니코틴 노출에 의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br/> <br/>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자담배가 궐련과 같이 규제되고 있으나 전자담배 기기 자체의 안전성과 니코틴 용액 농도 수준, 첨가물의 안전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근거에 기반을 둔 전문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이번 원탁회의 'NECA 공명'을 주관한 임태환 원장은 "현재 금연보조제로 인식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안전성 및 금연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면서 "전자담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관리방안 마련 등 공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r/> <br/>NECA가 일반인 1000명(흡연자·비흡연자 절반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가 해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71.6%였으며 '금연보조제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30.3%나 됐다. <br/> <br/>최근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담배 흡입이 호흡기 감염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증기가 젊은 사용자들의 호흡기 감염 위험을 상승시키며, 이 위험은 니코틴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미국 덴버 시에 위치한 호흡기질환 전문병원인 국립 주이시 헬스의 췬 우 박사팀이다. <br/> <br/>이들은 과학연구에 기증된 8~10세 어린이들의 호흡기 조직을 검사했다. 전자담배의 영향을 보기 위해 어린이들의 조직을 선택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br/> <br/>연구는 채취한 호흡기 조직 세포를 무균 그릇에 담고 한쪽에만 전자담배 증기와 세포를 접촉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전자담배 증기에 노출된 호흡기 조직 세포는 그렇지 않은 세포에 비해 감기 바이러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바이러스의 양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연구팀은 실험쥐를 통해서도 전자담배 증기 노출 유무의 차이를 확인했다. 전자담배 증기에 노출된 쥐는 노출되지 않은 쥐에 비해 코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인 라이노바이러스(rhino virus)에 더 잘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표피세포는 호흡기를 외부에서 흡입된 위험물질로부터 보호하는 1차적인 역할을 하는데, 전자담배 증기는 이 같은 표피세포 면역체계에 손상을 끼쳐 쉽게 감염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담배 증기에 니코틴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br/> <br/>이와 함께 전자담배 증기 속에는 염증과 면역체계의 반응을 촉진시키는 단백질인 인터루킨6(IL-6)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니코틴 포함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루킨6의 증가는 몸에 ▲각종 면역 이상증 ▲염증성 질환 ▲림프계 종양이 생기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반면 미국 전자담배제조회사협회(Vaping Association)는 이번 연구에 대해 "실험실에서 세포를 가지고 한 연구를 실제 살아있는 사람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면서 "실제 담배를 흡입했을 때와 비교하지 않은 제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br/> <br/>하지만 미국 폐협회의 노먼 엘더만 의학자문관은 "실험실에서 시행한 연구결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면서도 "이번 연구는 그동안 발표된 여러 연구결과를 확인해 주는 훌륭한 연구"라고 평가했다. <br/> <br/>앞서 지난 1월8일에는 미국 암연구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ACR)와 미국 임상종양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등 두 기관이 함께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다. <br/> <br/>이런 가운데 전자담배의 부작용을 줄이고 관리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은 지난달 26일 전자담배 부작용을 줄이고 관리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br/> <br/>개정안에 따르면 담배포장지에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니코틴 함량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가격정책 병행으로 인한 금연 효과와 니코틴 오남용 예방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박 의원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는 2012년 이후 전자담배에 대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2년 대비 2014년엔 727.1%까지 불어났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전국의 전자담배 판매량은 2011년 대비 78%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추세다. <br/> <br/>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시중에서 성행하고 있는 니코틴 원액과 향액의 분리판매 증가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등을 통한 직접 제조한 탓이다. 이는 통계상의 전자담배 용액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br/> <br/>특히, 전자담배 용액을 니코틴 원액과 향액으로 분리 판매할 경우 니코틴 원액에만 세금이 부과돼 과세액을 축소 납부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독성물질인 니코틴과 별도의 향액을 소비자가 제조하면 니코틴 중독 및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br/> <br/>박 의원은 "최근 수요가 급성장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누수와 용액 제조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규정 정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19.txt

제목: 2015 新건강트렌드가 뜬다!  
날짜: 2015042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310017068311  
ID: 01100701.201504231001706831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리는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피로와 스트레스, 잦은 과음과 흡연, 수면부족 등을 불굴의 의지로 견디면서 부와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한다. <br/> <br/>그렇게 열심히 일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피로와 통증, 병마의 그림자이다. 지금도 주변에 “이제 살만하니까…”, “드디어 성공했는데…”, 그 꿈의 달콤한 열매를 즐기지도 못하고 아프고 병들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br/> <br/>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 그 이유는 ‘인체의 생명력’을 충전 없이 반복적으로 쓰기만 해서 방전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두뇌·육체에너지는 즉 생명력은 ‘뱃속의 오장육부’에서 만들어진다. 인체의 오장육부가 바로 ‘생명력을 생성하는 엔진’인 것이다. <br/> <br/>그 생명엔진 오장육부가 뜨거울수록 심신(心身)이 건강하고 활기차다. 그러나 과로·과음·과식·스트레스가 반복되면 뱃속 장부가 차가워지면서 생명엔진이 식어간다. 생명엔진이 식어 가면 원기(元氣)가 약해지면서 만성피로·수족냉증·탈모·시력저하·코골이·비염·당뇨·정력부진·비만 등 다양한 이상증상이 나타난다. <br/> <br/>더 주목할 것은 뱃속이 차가워 져서 저체온상태가 장기간 반복되면 위염·간염·장염 등 각종 염과 갑상선암·위암·폐암 등 각종 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당뇨·중풍·암·치매 등 환자들의 배를 만져보면 공통적으로 차갑다. <br/> <br/>우리 뱃속의 생명온도가 ‘따뜻하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다’, 그 대자연의 이치가 생로병사의 비밀이자 무병장수의 비법인 것이다. <br/> <br/>이것이 세계 최초로 ‘생명온도건강법’을 주창한 생명온도연구소 김 소장의 핵심 이론이다. 김종수 소장은 100세 장수노인 300여명 인터뷰, 25년간 3000여일 단식 등 심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련과 연구를 통해 생명온도건강법을 탄생시켰다. <br/> <br/>김 소장은 방송 출연 등으로 자연건강학자로 명성을 얻은 뒤 여러 대학교와 기업체 등에서 600회 이상의 강연를 통해 생명온도건강법을 전파하고 있다. <br/> <br/>특히 올해 새봄에 출간한 ‘생명온도\_뱃속이 따뜻하면 만병이 사라진다’는 카피라이터 출신의 캠페인 기획자인 생명온도연구소 김명식 실장과 공저로 탄생했다. <br/> <br/>김 실장은 제약과 병원·헬스 등 메디컬 광고홍보 캠페인을 다년간 진행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그는 남녀노소, 특히 집중력이 약한 독자들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생명온도 바이블’을 창조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20.txt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항암치료 말초신경병증 임상연구 참가자 모집  
날짜: 20150422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210017052266  
ID: 01100701.201504221001705226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이수경 교수팀이 암 진단 후 항암치료로 발생한 말초신경병증(손발저림, 통증 등)에 대한 전기침의 치료 효과를 알아보는 임상연구 참가자를 모집한다. <br/> <br/>대상은 암 진단 후 항암치료가 종료된 20세 이상으로, 5년 이내에 말초신경병증이 4주 이상 지속된 자다. <br/> <br/>참가자는 간기능, 신장기능 등의 혈액검사와 함께 1주일에 2회씩 총 6주간 12회의 전기침치료가 진행된다. 또한 신경변증 관련 양약 치료제를 복용하게 된다. <br/> <br/>참가자에게는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검사비, 진료비 및 치료비와 함께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br/> <br/>문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02-440-7288)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21.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성형한 얼굴이 유전된다면?  
날짜: 20150422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210017056634  
ID: 01100701.201504221001705663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오래전 개봉했던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라는 영화제목 탓인지, 가끔 길을 가다가 유치원생 여자아이와 함께 걷고 있는 젊은 엄마들을 보면 ‘딸은 여자의 과거다’라는 엉뚱한 문구가 떠오르곤 한다. 요즘은 성형수술이 하도 흔해서 얼굴이 엇비슷한 젊은 엄마를 많이 보게 되지만, 성형 전 원래 얼굴이 어땠을까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어린 딸의 얼굴을 보면 엄마의 과거 얼굴이 쉽게 연상되기 때문이다. 내 공상은 계속된다. 만일 수술한 얼굴이 유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유전자를 바꾸지 않는 한 후천적으로 얻어진 특성은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br/> <br/>그런데 최근의 생물공학은 이 공상을 현실화시키려 하고 있다. 즉 유전자 자체를 바꾸어서 질병을 치료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정보, 즉 ‘염기서열’을 신속히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과 이런 유전자 정보를 공학적으로 조작하려는 ‘게놈 공학’(Genome engineering)의 발전 덕분이다. 인간에게 치료가 어려운 여러 가지 질병, 예를 들어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혈우병, 그리고 일부 암의 경우에는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부위를 골라서 잘라버리거나 다른 유전자로 교체를 해버리면 치료가 가능하다. 즉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만 있다면 불치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소설 같은 일이 실현될 수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한 것은 채 10년도 되지 않았다. 특정 유전자를 찾아서 잘라낼 수 있는 ‘Zinc-finger nuclease’, 쉽게 말해서 ‘유전자 가위’와 같은 기술이 등장했고, 근래에는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에만 결합하는 리보핵산(RNA)을 이용해 유전자를 조작하려는 기술도 등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기술이 적용된 것은 살아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전병의 치료였다.  <br/> <br/> 강호정 연세대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그런데 인간들은 더 놀라운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하려는 연구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만일 이 기술이 완전하다면 인간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배아단계에서는 세포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세포만 치료를 해도, 이 정상적인 세포가 분열을 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윤리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배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아이가 출생하거나 출생 후 몇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 기술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엉뚱한 유전자가 편집이 되면 더 끔찍한 유전 질병을 낳을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질병 이외의 악용 가능성이다. 다수의 의료기술들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곧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곤 한다. 처음에 유전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된 방법도 나중에는 머리가 좋은 아이, 키가 큰 아이, 나아가서는 특정 머리카락 색깔이나 눈동자 색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술로 악용될지도 모른다. <br/> <br/>아이의 영어 발음을 교정한다고 혀까지 수술하는 극성 부모를 생각해보라. 주름을 펴준다는 보톡스 시술의 경우도 그러했다. 인간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세균의 독소에서 추출한 이 물질은 원래 사시(斜視)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곧 돈이 되는 사업으로 연결이 돼 이 기술은 주름을 펴는 미용 기술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장기 적용 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잘 모른 채 말이다. <br/> <br/>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모두 중단시켜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기술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과 연구는 계속돼야 한다. 다만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한 성급한 적용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특히 기술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관계자들의 토론과 정보 공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단순히 생명공학자나 의사뿐만 아니라 생명윤리학자, 소비자 단체, 언론, 정부관료 모두가 참여하여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윤리적 고려 없는 기술의 발전은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강호정 연세대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22.txt

제목: 아스피린 장기복용시 소화기암 발병율 20% 낮춰, 하버드대 연구  
날짜: 2015042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010017018140  
ID: 01100701.201504201001701814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아스피린을 오래 복용하면 소화기관암 위험을 20%가량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20일 헬스데이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 영양학과의 차오인 박사는 아스피린의 장기복용이 식도암, 대장암(결장암, 직장암) 등 소화기관암 위험을 20%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r/> <br/>차오 박사는 지난 1980년 여성 간호사 8만 26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간호사 건강연구(NHS)와 1986년부터 남성 전문의료인 4만 7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문의료인 건강연구(HPS)의 최장 32년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br/> <br/>아스피린(325mg)을 매주 2회 이상 복용하는 남녀는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25%, 식도암 위험은 14%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6년 이상 장기간 복용한 사람이 효과가 가장 컸으며 복용 단위가 높을수록 효과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br/> <br/>효과에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br/> <br/>암 가족력, 체중, 흡연, 다른 진통제 또는 비타민 복용, 인종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했지만, 아스피린 복용과 소화기관암 위험감소 사이의 연관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br/> <br/>하지만 아스피린 장기복용이 다른 종류의 암, 특히 유방암, 진행성 전립선암, 폐암 위험을 낮추어 주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조사기간에 여성 2만 400명, 남성 7570명이 각종 암 진단을 받았다. <br/> <br/>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미국암학회(ACS) 약물역학실장 에릭 제이컵스 박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재확인하는 결과이지만 아스피린의 이러한 효과가 부작용의 위험보다 크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 복용을 권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br/> <br/>아스피린은 저용량 복용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장 출혈과 위궤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br/> <br/>이 연구결과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23.txt

제목: 美 암학회 ‘젊은 과학자상’ 받는 조선족 연구원  
날짜: 20150413  
기자: 김승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310016946006  
ID: 01100701.201504131001694600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조선족 출신 서울대 연구원이 세계 최고 권위의 암 학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받는다. <br/> <br/>서울대는 박연옥(32·사진) 약대 종양 미세환경 연구센터 연구원이 오는 18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국암학회 연례 학술대회(AACR) 2015’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박 연구원의 논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유도된 인산화를 통한 위암세포의 미토파지 촉진’은 위암이 생기는 과정에서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새로운 신호 전달 양식을 관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은 이번 학회의 구연 발표 대상으로 채택됐다. <br/> <br/>조선족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박 연구원은 옌볜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뒤 한국 정부의 국가 초청 국비장학생 프로그램에 선정돼 서울대 약대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박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주요 메커니즘을 밝히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24.txt

제목: '담배 위해성' 정부가 직접 밝힌다  
날짜: 20150408  
기자: viayou@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8100000062  
ID: 01100701.2015040810000006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금연광고의 한 장면.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담배 성분을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담배 연기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연구소가 정부의 주도로 세워진다.그간 담배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담배에 대해 실험·분석을 실시해 비공개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담배에 대해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적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8월 '국가 흡연폐해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해 금연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연구소는 우선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과 첨가물, 배출물(연기)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각 담배에 니코틴, 타르, 암모니아, 흡습성물질 등의 성분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으며 멘솔, 당류 등 중독성을 강화하는 첨가물질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담배의 연기에 어떤 성분이 검출되는지 분석한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담배의 기본 성분 외에도 담배에 첨가된 물질들도 실험 대상"이라며 "실험과 분석을 통해 첨가물들이 얼마나 중독성을 강화하는지, 중독성 때문에 끊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있다면 어떤 물질인지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각 담배의 연기가 사람의 몸과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한다. 혈액, 소변, 모발 등 인체 시료에 담배연기를 노출해 어느 정도 위해성이 발생하는지 측정하고 먼지 같은 환경 시료를 활용해 담배연기로 의한 환경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도 검사한다.  이 밖에도 실험동물과 동물 세포를 활용해 담배 연기가 암, 심혈관질환, 감염성 질환, 성장발달장애, 중독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실험할 계획이다. 연구소에서 나온 실험 결과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이나 금연구역 확대, 금연치료 지원 등 금연정책을 수행하는 데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실험 결과에 따라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등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의 정부 조사는 흡연자의 피해를 살펴보는 역학조사에만 머물렀다"며 "흡연이 해롭다고 알려져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인 정보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25.txt

제목: 위암치료 권위자 이문수 순천향대천안병원장  
날짜: 20150407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710016884812  
ID: 01100701.2015040710016884812  
카테고리: 지역>충남  
본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문수(사진)병원장이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2015년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15)'에서 ’종양학술상‘을 수상했다. <br/> <br/> 종양학술상은 암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펼친 의학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br/> <br/> 이 병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수술법 개발 및 위암 관련 연구 성과로 위암 치료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br/> <br/> 이 병원장은 2007년에도 독자적인 위암수술법 개발로 종양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br/> <br/> 현재 이문수 병원장은 충청위암연구회 회장,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br/> <br/>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26.txt

제목: 국내 줄기세포 임상, 미국 이어 두 번째  
날짜: 2015040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710016877396  
ID: 01100701.2015040710016877396  
카테고리: 국제  
본문: 줄기세포 제품화를 위한 국내 임상시험이 총 3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br/> <br/>7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외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동향을 국가, 질환 등으로 분석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4’을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br/> <br/>이번 결과는 ‘1998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국 임상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1215건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중 제품 개발을 위해 진행하는 임상시험 277건을 대상으로 ▲국가별 시험 건수 ▲대상 질환별 구분 ▲세포의 종류 등으로 분석했다.   국가별 임상 점유율.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br/> <br/>이 중 미국이 135건(49%)으로 전체의 약 절반에 달했다. 그 뒤로 한국(39건), 중국(25건), 스페인(21건), 이스라엘·인도(각 13건), 독일·파나마(각 7건), 영국·말레이시아(각 4건), 일본(1건) 등의 순이다. <br/>  <br/>대상 질환 별로 살펴보면 ▲심장관련(51건) ▲신경계(48건) ▲정형외과(29건) ▲소화기계(26건) ▲면역계(21건) ▲암(20건) ▲혈관(20건) ▲안과(12건) 등의 순이다. <br/> <br/>우리나라는 척추 손상 등 신경계(9건), 크론병(만성 염증성 장질환) 등 소화기계(6건), 퇴행성 관절염 등 정형외과(5건), 이식편대숙주병·아토피·두경부암 등 면역계·피부계·암(각 3건) 등의 순이었다. 국제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심장 관련 시험은 2건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br/> <br/>특정 세포나 조직 별로 살펴보면 성인 중간엽줄기세포(190건)가 가장 많이 사용됐고 그 다음으로 조혈모줄기세포(35건), 신경줄기세포(11건) 등의 순이었다. <br/>  <br/>다른 사람의 세포를 이용한 동종유래 줄기세포가 사용된 경우는 147건으로 환자 본인의 세포를 사용하는 자가유래 줄기세포의 사용건(130건)보다 많았다. 이는 타인의 동종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대량생산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r/> <br/>안전평가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동향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span>”고 밝혔다. <br/> <br/>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정보자료 → 자료실 →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27.txt

제목: 아산병원-파스퇴르연구소, 신약개발 공동연구 협약  
날짜: 2015040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710016877492  
ID: 01100701.201504071001687749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아산병원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암과 감염성질환 치료제 개발, 바이오이미징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r/> <br/>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의 풍부한 임상연구역량, 바이오이미징센터(C-BiND)의 바이오이미징 기법,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시각화 기반 초고속?대용량 약효탐색 기술(High Throughput/Content Screening)을 접목해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br/> <br/>또 지속적으로 신약개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 기관의 연구자를 교류하는 등 연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br/> <br/>이번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파스퇴르연구소를 포함한 전 세계 32개의 파스퇴르연구소 국제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구축,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약개발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br/> <br/>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통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서울아산병원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더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28.txt

제목: 암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오픈  
날짜: 20150403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310016844199  
ID: 01100701.2015040310016844199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암 전문요양병원 등으로 취업의 길을 다양하게 열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br/> <br/>  <br/> <br/>자연통합의학암연구회(회장 문창식)는 오는 5월 9일부터 서울역 강의장에서 제 1기 암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br/> <br/>  <br/> <br/>교육은 총 6주 과정이며, 의학교육과 환자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게 된다. 면역, 영양, 해독, 항암식단, 환자설문지 작성, 검사분석, 통증치료, 암 환자 프로그램의 이해 등 의학교육은 물론 암 환자 심리의 이해, 상담요령, 환자 보험 관리 등 환자관리와 관련된 교육도 자세하게 이뤄진다. <br/> <br/>  <br/> <br/>문창식 회장은 “<span class='quot0'>200만 암 환자가 전문 요양병원에서 케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코디네이터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밝히고 “<span class='quot0'>앞으로 요양병원 대상으로 리쿠루팅 등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가동할 계획</span>”이라고 전했다. <br/> <br/>  <br/> <br/>한편, 학회는 이미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자연통합의학암아카데미 12주 과정을 2기째 운영하고 있으며, 곧 3기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br/>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29.txt

제목: 사과 효능…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었어?  
날짜: 2015040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210016823643  
ID: 01100701.201504021001682364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사과 효능 사과 효능 사과 효능 사과 효능 사과 효능사과 효능…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었어? <br/> <br/>사과 효능에 관심이 뜨겁다. <br/> <br/>사과는 품종에 따라 크기나 모양, 색 등이 다양하지만, 성분은 큰 차이가 없다. <br/> <br/>사과는 수분 함량이 높고, 안토시아닌, 팩틴, 비타민 A, 비타민 C와 칼륨, 칼슘, 나트륨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이다.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할 만큼 영양이 풍부한 사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자. <br/> <br/>1. 혈압 강하 작용 <br/>사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다른 과실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편인데 적당한 양의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트롤을 낮추고 LDL의 산화 억제를 통해 심장질환을 예방, 특정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br/> <br/>2. 항산화 작용 <br/>사과의 붉은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력을 가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안토시아닌은 혈액 중의 활성 효소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항산화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사과를 먹을 때는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는 것이 더욱 좋다. <br/> <br/>3. 폐 기능 강화와 암 예방 <br/>사과는 폐 기능이 강화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 또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고 인체 세포를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효소를 자극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폐암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br/> <br/>4. 다이어트와 변비 <br/>사과 다이어트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3일간 사과만 계속 먹으면 대변이나 소변의 체외 배출이 활발해져서 체내에 쌓여 있던 숙변이나 수독이 제거되어 체중이 줄어든다. 또한, 사과와 배와 같은 과일은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음식이면서 고섬유질 음식으로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특히 사과의 중요한 성분인 펙틴은 채소의 섬유질과 같이 장의 운동을 자극해주는 작용을 하며, 장의 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고 장 안의 이상 발효도 방지해 변비에 좋다. <br/> <br/>5. 구강건강 <br/>구미에서는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른다. 이는 껍질째 먹으면 충치가 예방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사과를 깎지 않고 먹으면 껍질이 딱딱하므로 씹는 횟수가 늘어나 안면근육 운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뇌 속의 피의 흐름이 증가하며 잘 씹어야 하므로 타액분비가 증가해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준다. <br/> <br/>네티즌들은 " 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었어?" , "사과 좋지", "잘 챙겨먹자", "구강건강에도 도움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30.txt

제목: 사과의 효능, 다이어트부터 암예방까지 다양  
날짜: 20150402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210016826904  
ID: 01100701.201504021001682690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한민국 대표과일 사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사과는 품종에 따라 크기나 모양, 색 등이 다양하지만, 성분은 큰 차이가 없다. 사과는 수분 함량이 높고, 안토시아닌, 팩틴, 비타민 A, 비타민 C와 칼륨, 칼슘, 나트륨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다. <br/> <br/>먼저 사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다른 과실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편인데 적당한 양의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트롤을 낮추고 LDL의 산화 억제를 통해 심장질환을 예방, 특정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br/> <br/>또한 사과의 붉은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력을 가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안토시아닌은 혈액 중의 활성 효소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항산화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사과를 먹을 때 껍질까지 같이 먹는 것이 좋다. <br/> <br/>사과는 폐 기능이 강화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 또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고 인체 세포를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효소를 자극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폐암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연구자들은 전했다. <br/> <br/>사과 다이어트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3일간 사과만 계속 먹으면 대변이나 소변의 체외 배출이 활발해져서 체내에 쌓여 있던 숙변이나 수독이 제거되어 체중이 줄어든다. 과일은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음식이면서 고섬유질 음식으로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br/> <br/>특히 사과의 중요한 성분인 펙틴은 채소의 섬유질과 같이 장의 운동을 자극해주는 작용을 하며, 장의 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고 장 안의 이상 발효도 방지해 변비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마지막으로 사과를 깎지 않고 껍질째 먹으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 사과를 깎지 않고 먹으면 껍질이 딱딱하므로 씹는 횟수가 늘어나 안면근육 운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뇌 속의 피의 흐름이 증가하며 잘 씹어야 하므로 타액분비가 증가해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31.txt

제목: 호암상 수상자 5人 발표  
날짜: 20150401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110016822213  
ID: 01100701.201504011001682221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과학상 천진우·공학상 김창진·의학상 김성훈·예술상 김수자·사회봉사상 백영심호암재단은 제25호 호암상 수상자로 천진우(53)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 등 5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br/> <br/>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아버지인 고 이병철 전 회장을 기리고자 1990년 제정한 호암상은 올해 시상까지 127명에게 상금 199억원을 수여했다. <br/> <br/>과학상을 받은 천 교수는 나노 과학의 대가로 나노 물질 개발을 위한 화학적 설계기술을 확립하는 데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학상의 영예는 김창진(57)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교수가 안았다. 전기 습윤기술의 창시자인 김 교수는 전위차를 이용해 액체의 습윤성과 표면장력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의학상은 김성훈(57) 서울대 교수가 받았다. 김 교수는 생체 단백질 합성효소가 세포의 증식·분화·사멸에 관여하고,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미술작가 김수자(58)씨에게는 예술상이 돌아갔다. 사회봉사상을 받게 된 간호사 백영심(53)씨는 ‘말라위의 나이팅게일’로 불린다. 그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병원과 간호대, 초등학교 등을 세웠다. <br/> <br/>시상식은 6월1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수상자는 상장과 메달(순금 50돈), 3억원의 상금을 받는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32.txt

제목: 우울증 징후, 우울증에 도움되는 식품 10가지 공개... 효능과 성분은?  
날짜: 2015032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810016767250  
ID: 01100701.2015032810016767250  
카테고리: IT\_과학>콘텐츠  
본문: 우울증 징후 우울증 징후 우울증 징후 우울증 징후 녹색 잎채소 호두 오메가-3 아보카도 블루베리 등우울증 징후, 우울증에 도움되는 식품 10가지 공개... 효능과 성분은? <br/> <br/>우울증 징후와 함께 우울증에 도움되는 식품 10가지가 화제다. <br/> <br/>최근 미국의 건강 정보 사이트 ‘에브리데이헬스닷컴’은 뇌 염증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 10가지를 공개했다. <br/>  <br/>첫 번째는 녹색 잎채소로 '기적의 밥상(Eat to Live)'의 저자인 조엘 펄먼 박사는 건강에 가장 좋고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식품으로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녹색 잎채소를 첫손에 꼽는다. 이런 잎채소는 강력한 면역력 증강과 항암 효과가 있다. <br/>  <br/>두 번째로 호두는 식물 중에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 지원하고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지난 세기 동안 서양 식단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든 식품이 사라지면서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r/> <br/>아보카도에는 뇌가 필요로 하는 건강에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아보카도 열량의 4분의 3은 단일불포화지방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K를 비롯해 비타민B9, B6, B5와 비타민C, 비타민E12 등이 들어있다. 당분 함량은 낮은 대신 식이섬유는 풍부하다. <br/> <br/>블루베리를 비롯해 라즈베리, 블랙베리, 딸기 등의 베리류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다. <br/> <br/>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항산화제를 2년 동안 섭취한 결과, 우울증 증세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화제는 몸속 세포를 고치고 암을 비롯한 병에 걸리는 것을 막는 효능도 있다. <br/> <br/>버섯도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 중 하나다. 버섯이 정신건강에 좋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br/> <br/>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어 기분을 안정시키며, 건강에 좋은 장내 세균을 촉진시키는 프로바이오틱(생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br/> <br/>양파를 비롯해 파, 마늘 등의 파속 식물은 몇 가지 암 위험을 줄이는 효능이 있다. <br/> <br/>이런 채소들은 또한 항염증 효능이 있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제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br/> <br/>소화관과 뇌 사이의 연관성을 안다면 왜 장과 관련된 암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 정신에도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다. <br/> <br/>토마토에는 우울증을 퇴치하는 데 좋은 엽산과 알파리포산이 많이 들어있다.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 약 3분의 1에게서 엽산 결핍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콩류는 당뇨를 방지하고 체중 감소에 좋은 식품이다. 콩류는 천천히 소화가 되면서 혈당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기분에 좋은 작용을 한다. <br/> <br/>끝으로 베리류처럼 사과에는 산화로 인한 손상과 염증을 막거나 고치는 효능이 있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식이 섬유질이 많아 혈당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33.txt

제목: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알고 먹으면 ‘2배 더 이로운’ 식생활  
날짜: 2015032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510016734577  
ID: 01100701.2015032510016734577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출처 네이버.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br/>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알고 먹으면 ‘2배 더 이로운’ 식생활 최근 미국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가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들을 소개 해 화제다.  먼저 생선과 마늘의 궁합이 참 좋다. 생선에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일부 암을 예방하는데 좋으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LDL)의 증가를 억제하고 심장 건강에 탁월한 식품이다.  사과와 포도의 궁합도 훌륭하다. 사과와 딸기에는 항산화물질인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요소는 일부 암 예방과 기억력을 향 상 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br/> <br/>특히 다른 플라보노이드인 카테킨을 함께 섭취하면 혈전을 방지하고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 카테킨은 포도에 존재하며 이 밖에 적포도주, 초콜릿, 녹차에도 있다.  시금치와 레몬 역시 함께 하면 좋은 식품이다. 시금치, 케일, 근대 등 식물의 철분은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를 곁들이면 흡수가 더 잘 된다.  또한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34.txt

제목: ‘3D 프린터’로 고난도 신장암 수술 정확도 높인다  
날짜: 2015032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510016736129  
ID: 01100701.201503251001673612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의료 현장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몸 속 깊숙이 자리한 암 덩어리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br/>  <br/>25일 서울아산병원 김청수(비뇨기과)?김남국(융합의학과)?경윤수(건강의학과) 교수팀은 최근 6개월 동안 15명의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해 개인별 신장 및 암 조직의 형태를 3차원으로 완벽 재현하고 환자별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워 신장 부분절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신장의 해부학적 상태를 실물과 같이 출력해 눈으로 직접 보며 절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절제가 필요한 암 덩어리는 완벽히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은 최대한 보존 할 수 있게 됐다. <br/> <br/>신장을 보존한 채 암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떼어내는 신장 부분절제술은 비뇨기과에서 고난도 수술로 꼽힌다. 몸속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에는 많은 양의 혈액이 지나가는데, 이 혈류를 차단한 채 암을 잘라내고 남아있는 신장을 다시 꿰매는 과정은 빠른 시간 안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br/> <br/>따라서 신장 주위의 혈관 구조 및 요관의 분포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의 CT와 같은 2차원 이미지로는 신장암과 신장 내부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수술 범위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br/>  <br/>연구팀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컴퓨터단층촬영 이미지(Volumetric CT)를 바탕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직접 개발한 3D 모델 툴(A-view software)을 통해 3차원 신장 모형을 만들었다. 표면은 투명 재질로 만들어 내부가 보일 수 있게 했고 신동맥, 신정맥, 요관, 신우, 나아가 암 조직을 구분해 제작했다. <br/>  <br/>무엇보다 신장 내 혈관 구조가 특이한 환자의 경우 3D 프린터를 활용해 높은 정확도로 이를 재현해 낼 수 있어 보다 정교한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br/>  <br/>또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도 몸속에 있는 장기를 그대로 재현한 모형을 보며 수술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br/>  <br/>개별적으로 맞춤 제작한 3차원 신장 모형의 경우 투명 재질을 사용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뿐 만 아니라 중요한 혈관 및 암 조직을 탈부착 가능하도록 만들어 환자들이 보다 쉽게 수술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br/>  <br/>김청수 교수는, “<span class='quot0'>3차원 신장 모형을 통해 파악한 것과 실제 수술을 집도했을 때 신장의 상태 및 신장 암 조직의 위치가 육안적으로 유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양의 상태도 거의 동일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환자 맞춤형 장기를 출력하고 이를 토대로 상세한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효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경윤수 교수는 “<span class='quot0'>앞으로는 형태, 재질, 색감 등 모든 면에서 더욱 완벽하고 정교한 3D 프린터 모형을 개발해 신장암 뿐 아니라 선천성 비뇨기 질환 등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중요한 비뇨기계 질환 치료에 활용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한편 이번 3D 프린터 활용 수술결과는 최근 3월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유럽비뇨기학회에서 발표됐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35.txt

제목: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알고 먹으면 효과 2배! 어떤 조합인가 보니...  
날짜: 2015032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510016737006  
ID: 01100701.2015032510016737006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알고 먹으면 효과 2배! 어떤 조합인가 보니... <br/> <br/>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이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다. <br/> <br/>미국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을 전했다. <br/> <br/>1.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생선과 마늘 <br/>심장 건강을 위해 고기 대신 생선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마늘을 곁들이면 일부 암을 예방할 뿐 아니라 자연적인 면역력 촉진제가 되기도 한다.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LDL)의 증가를 억제하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br/> <br/>2.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강황과 후추 <br/>카레에 주로 쓰이는 황금색 양념인 강황에는 당뇨 예방 등 몇 가지 장점이 있다. 특히 후추와 함께 쓰면 생물학적 이점이 더 충분히 발휘된다. <br/> <br/>3.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사과와 포도 <br/>사과나 딸기류에 있는 항산화물질인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는 호흡장애와 특정 암을 퇴치하고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 특히 다른 플라보노이드인 카테킨을 함께 섭취하면 혈전을 방지하고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 포도에 있는 카테킨은 적포도주, 초콜릿, 녹차에도 있다. <br/> <br/>4.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토마토와 아보카도 <br/>미국 퍼듀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처럼 색깔이 짙은 식품에 있는 카로티노이드는 소량의 지방이 옮겨주지 않으면 몸에서 흡수가 안 된다고 한다. 토마토에는 알려진 대로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라이코펜이 들어 있다. 단일 불포화지방이 4그램 정도 있는 아보카도 4분의 1쪽을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br/> <br/>5.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시금치와 레몬 <br/>샐러드에 감귤류를 살짝 뿌리면 먹음직스럽고 잎채소들은 영양의 보고로 변한다. 시금치, 케일, 근대 등 식물에 있는 철분은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더 흡수가 잘 된다. 레몬주스나 딸기 조금, 약간의 피망을 더하면 식물성 철분이 생선이나 고기에 있는 형태로 변한다. 그것은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기운을 북돋아준다. <br/> <br/>6.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브로콜리와 토마토 <br/>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전립샘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2007년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36.txt

제목: 한국로슈 아바스틴, 자궁경부암 적응증 추가 획득  
날짜: 20150325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510016729043  
ID: 01100701.201503251001672904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국로슈 아바스틴.한국로슈의 신생혈관 생성 억제 표적치료제 ‘아바스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궁경부암 적응증을 획득했다. <br/> <br/>아바스틴은 지속성, 재발성,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파클리탁셀, 시스플라틴 병용요법 또는 파클리탁셀, 토포테칸 병용요법과 함께 병용 투여하는 용도로 허가를 획득했다. <br/> <br/>현재 미종합암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의 자궁경부암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발성,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치료 요법으로 아바스틴과 항암화학요법(파클리탁셀 시스플라틴 또는 파클리탁셀 토포테칸)의 병용 투여를 ‘카테고리 1’으로 권고하고 있다. <br/> <br/>이번 적응증 추가의 근거가 된 GOG 240 임상 연구에 따르면, 아바스틴 병용 요법은 지난 10여 년간 생존률 개선이 없었던 재발성, 전이성, 지속성 자궁경부암 분야에서 최초로 생존률 연장을 입증했다. <br/> <br/>해당 연구에서 아바스틴 병용 요법 치료군의 전체 생존 기간은 약 17개월로, 이는 항암화학요법 치료군의 전체 생존 기간(13.3개월) 보다 전체 생존 기간을 약 3.7개월 연장한 결과에 해당한다.(HR=0.71, 98% CI 0.54-0.95 , P=0.004) <br/> <br/>대한부인종양연구회 김병기 회장은 “<span class='quot0'>조기 진단된 자궁경부암과 달리 재발성, 전이성, 지속성 자궁경부암은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0'>국내 유일한 자궁경부암 표적치료제인 아바스틴 적응증 추가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span>”고 말했다. <br/> <br/>자궁경부암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으로 전체 여성암 유병률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3500여명의 환자가 새롭게 진단 받고 있다. 최근 백신 개발 및 진단 기술 발달 등으로 조기 진단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이성, 지속성, 재발성 자궁경부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제만이 유일한 치료 옵션으로 사용됐다. <br/> <br/>아바스틴은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를 표적으로 작용해 종양세포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최초의 혈관 생성 억제치료제(anti-angiogenic treatment)로써 미국과 유럽에서 결장직장암, 비소세포폐암, 신장암, 난소암 치료제로 승인을 획득했다. 국내에서는 전이성 직결장암 및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 교모세포종, 상피성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및 자궁경부암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37.txt

제목: 면역세포 자극해 암세포 증식 억제하는 '면역항암제'2종 시판 허용  
날짜: 2015032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310016702037  
ID: 01100701.201503231001670203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리몸의 면역체계를 자극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 종양증식을 억제하는 차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가 잇따라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 <br/> <br/>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일 항 PD-1(프로그램화 세포사멸 수용체 1) 면역항암제인 한국MSD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한국오노약품공업 '옵디보'(니볼루맙)의 시판을 나란히 허가했다. <br/> <br/>두 약품 모두 항암제 '여보이'(이필리무맙) 투여 후에도 진행이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br/> <br/>지난 2013년 사이언스지의 '올해의 연구'로 선정되기도 한 면역항암제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다. <br/> <br/>종양 자체를 공격하는 다른 항암제와 달리 면역체계에 인공 면역 단백질을 주입,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면역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br/> <br/>이에 따라 전신화학항암요법이 가지는 부작용과 표적항암제가 가지는 내성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여러 암종에 적용이 가능해 키트루다의 경우 현재 흑색종 외에 폐암, 유방암, 위암, 두경부암 등 30종 이상의 암질환에 대해 임상연구를 진행중이며, 7개의 암에 대한 치료효과를 입증했다. <br/> <br/>옵티보 역시 오노약품공업과 다국적 제약사 BMS가 신세포암,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호지킨림프종 등 다양한 암에 대해 임상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소세포성폐암 중 편평상피암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았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38.txt

제목: “슈퍼푸드와 디저트가 만났다”  
날짜: 2015032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310016703868  
ID: 01100701.2015032310016703868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식사 후 즐기는 커피 한잔과 케이크 한 조각을 우리는 디저트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디저트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갖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를 이용한 디저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br/> <br/>업계에 따르면 체내 활성산소 제거와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가 각광을 받으면서 식음료업계들이 이를 활용한 디저트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영양이 풍부하고 면역력 증대에 좋다고 알려진 아로니아,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을 활용한 메뉴가 대표적이다. <br/> <br/>이에 식음료업체들은 맛과 건강함을 무기로 언제 어디서든 디저트는 몰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콘셉트의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br/> <br/>최근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로니아는 블루베리의 약 4배, 복분자의 약 20배, 포도의 약 80배에 달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탄닌과 폴리페놀 등 다른 영양소도 들어 있어 효능이 많아 화제가 되고 있다. 아로니아는 아로니아 나무의 열매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하며 식용 색소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관상용으로도 역시 재배된다. <br/> <br/>홀푸드 디자이너 자연원이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두번 엄선한 냉동 아로니아’를 새롭게 출시한다. 자연원의 두번 엄선한 냉동과일은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냉동시켜 건강하고 편리하게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br/> <br/>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능력이 우수해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토마토는 라이코펜 성분이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유방암, 소화계통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동맥경화와 간경화에 좋다. <br/> <br/>CJ제일제당은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넣은 ‘쁘띠첼 슈퍼레드 토마토'와 ‘쁘띠첼 슈퍼레드 블루베리’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쁘띠첼 슈퍼푸드 과일젤리는 각각 토마토와 블루베리의 풍부한 원재료와 상큼한 과즙이 어우러져 식사 대용까지 가능한 디저트 아이템이다. 가격 대비 많은 양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용량도 기존 90g짜리 소형 제품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60g 용량으로 늘려 출시했다 <br/> <br/>아사이볼은 지구상 가장 완벽한 열매로 알려진 슈퍼푸드 유기농 아사이베리 냉동 스무디를 베이스로 해 각종 열대과일을 토핑한 브라질 대표 전통 건강음식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세계적인 톱모델 미란다 커의 몸매 관리 비결로 소개되면서 알려졌으며, 이후 방송에서 아사이베리의 효능이 집중 소개되면서 국내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br/> <br/>㈜보뚜 슈퍼푸드에서 운영하는 보뚜아사이(BOTOACAI)의 인기메뉴인 아사이볼은 건강식품의 원료로 잘 알려진 유기농 아사이베리(Acaiberry)를 냉동 스무디로 만들어 각종 열대과일을 토핑하는 브라질 전통 영양식이다. 실제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는 아사이베리를 주원료로 한 카페들이 성업 중이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웰빙·헬스 메뉴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br/> <br/>죽 전문점 본죽에서 선보인 자연 그대로 음료 3종은 녹두, 단호박, 팥을 주재료로 해 원재료의 건강함을 그대로 살린 건강 음료다. 자연 그대로 음료 3종은 각 재료를 얼음과 함께 통째로 갈아 넣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본죽에서 죽으로 부담 없는 식사를 한 후, 지친 체력에 원기를 불어넣는 보충제 역할을 해줄 건강을 담은 디저트 음료다. <br/> <br/>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건강과 미용을 중시하는 젊은 층과 웰빙과 다이어트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소비 트렌드에 따라 슈퍼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웰빙 디저트 개발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39.txt

제목: 국가암정보센터, 100개 암종 정보 구축  
날짜: 2015031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910016667583  
ID: 01100701.2015031910016667583  
카테고리: 사회  
본문: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가 19일 100개 암종 정보 구축을 완료했다. <br/> <br/>국가암정보센터는 200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종 17종을 시작으로 소아암, 희귀암을 포함한 100개의 암종의 데이터를 국립암센터 소속 전문의가 작성, 검토해 구축했다. <br/> <br/>이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내가 알고 싶은 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명칭별, 계통별로 분류해 암종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br/> <br/>해당 암의 정의, 관련통계, 예방, 진단, 치료, 생활가이드를 안내하고 있어 암환자와 가족 뿐 아니라 일반인, 의료 관계자 등 모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br/> <br/>구축된 암종 정보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 정보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40.txt

제목: 딸기 효능, 임산부-암 환자-심장질환 등에 좋아...그 이유는?  
날짜: 201503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710016621688  
ID: 01100701.2015031710016621688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딸기 효능,딸기 효능,딸기 효능,딸기 효능,딸기 효능 <br/>출처 : 네이버 콘텐츠 검색딸기 효능, 임산부-암 환자-심장질환 등에 좋아...그 이유는? <br/> <br/>딸기 효능에 대한 관심이 봄철을 맞아 높아지고 있다. <br/> <br/>딸기는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피로 회복, 시각 기능 개선 등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좋다. <br/> <br/>딸기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도 많이 들어있어 몸속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고 혈전 생성도를 억제하며 눈의 망막 세포 재합성을 촉진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각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br/> <br/>또한 딸기에는 피로 회복, 면역력 증강, 피부 미용에 효능이 있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나 함유돼 있는데, 신진대사를 활발히 할 뿐 아니라 멜라닌을 억제하고 기미를 막아준다. <br/> <br/>한편 딸기나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3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r/> <br/>딸기는 임산부들에게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에게 뇌 이상, 기형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딸기 100g에는 약 127g의 엽산이 함유돼있다. <br/> <br/>또한 딸기 속의 일라직산은 암세포의 APOTOSIS를 유발해 암세포 억제에도 효능이 있다. <br/> <br/>한편 대한영양사협회는 딸기를 1회에 10개씩, 하루에 2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br/> <br/>딸기 효능과 궁합이 좋은 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딸기 효능, 맛도 영양도 최고", "딸기 효능, 맛있겠다", "딸기 효능, 봄이니까 사먹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41.txt

제목: '화장' 안성기-김호정-김규리, 3인 3색 캐릭터 영상 공개 '혼연일체 연기'  
날짜: 2015031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710016632989  
ID: 01100701.2015031710016632989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br/> <br/> <br/>영원한 현역, 임권택 감독의 신작 '화장'은 죽어가는 아내와 젊은 여자 사이에 놓인 한 남자의 이야기로 안성기, 김규리, 김호정 등 명품 배우들이 최고의 열연을 선보였다. <br/> <br/>최근 공개된 '화장'의 3인 3색 캐릭터 영상은 안성기, 김호정, 김규리 세 배우의 캐릭터와 열연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br/>  <br/>배우 안성기가 연기한 오상무는 직장 내에서 상하를 막론하고 신뢰받으며 존경 받는 상사이다. 병든 아내에게도 헌신적인 좋은 남편이면서도 새로 입사한 젊은 여직원에게 마음을 빼앗겨 흔들리는 한 남자일 뿐이다. 안성기는 오상무의 입장에 선 열연을 선보인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인생의 서글픔과 끓어오르는 갈망이 혼재된 내면을 섬세한 감정 연기로 심도 있게 표현했다. 깊이 있는 연기와 기품 있는 중후함에 중년의 섹시함까지 더해져 배우 안성기의 반전된 이미지를 기대하게 만든다. <br/> <br/>배우 김호정은 암이 재발하여 죽음을 앞에 둔 아내 역을 맡아 폭발적인 열연을 선보인다. 아내는 암 투병으로 몸도 마음도 약해져 힘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신을 돌보는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점점 더 무기력해져만 간다. 김호정은 촬영 전부터 캐릭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감한 삭발 투혼과 혹독한 체중 감량으로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을 보였다. 실제 투병 경험을 더해 마치 실제처럼 열연한 김호정은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 세계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았다. <br/> <br/>생의 한 가운데 빛나고 있는 여자 추은주는 오상무의 회사에 들어온 여직원으로 젊고 한없이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자이다. 그녀의 넘치는 생기와 꾸밈없는 젊음 그 자체가 오상무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추은주 역의 김규리는 이번 작품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세련된 아름다움과 지적인 여성미까지 동시에 선보인다. <br/> <br/>'화장'은 임권택 감독의 탄탄한 연출력으로 세월만큼 한층 더 깊어진 시선, 삶과 죽음, 사랑과 번민이라는 보편적인 감정과 공감, 시대와 소통하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프로덕션이 돋보이는 격조 높은 작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제7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제3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제33회 벤쿠버 국제영화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제34회 하와이 국제영화제, 제25회 스톡홀름 국제영화제, 제9회 런던한국영화제, 제25회 싱가포르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브리즈번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뉴라틴아메리카 영화제, 인도 케랄라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또한 제6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되어 상영을 마쳤고 이달에는 제39회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다. 국내에서는 4월 9일 마침내 관객들과 만난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42.txt

제목: 2017년까지 세계 첫 바이오의약품 5개 수출  
날짜: 20150317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710016630111  
ID: 01100701.201503171001663011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바이오헬스(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은 2024년이면 시장규모가 2조6000억달러까지 성장해 반도체와 화학제품, 자동차 등 한국의 3대 수출산업을 더한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개척 면에서 보면 이렇듯 엄청난 잠재력에도 절대 강자가 나타나지 않는 태동기에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2017년까지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을 포함한 세계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 5개를 출시,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해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이진규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span class='quot0'>한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상용화 수준과 임상 연구건수 2위에 오른 만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선점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올해 3400억원을 지원할 예정</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정부는 이를 위해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R&D)로 방향을 전환, 기업이 희망하는 아이템을 발굴·투자하는 신규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기술개발→임상→인·허가→수출’로 이어지는 종합 일괄형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암과 관절염, 척수손상 등 난치질환에 대한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여러 부처가 연계해 지원하는 제품 지향형 사업도 도입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연구역량을 갖춘 의사 2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의대 졸업생 중 연구 진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기업 연구소 취업을 연계해주는 ‘연구 인턴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43.txt

제목: 피부 속 표피세포 고해상 관찰… 최원식 교수팀 광학현미경 개발  
날짜: 20150315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510016578155  
ID: 01100701.201503151001657815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빛을 이용해 사람의 장기나 피부 조직 속에 있는 세포를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광학현미경을 개발했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고려대 물리학과 최원식(사진) 교수 등이 피부 아래 1.15㎜에 있는 세포를 1㎛(마이크로미터·1000분의 1㎜)의 해상도로 볼 수 있는 CASS광학현미경을 만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래부의 지원으로 최 교수가 주도하고 같은 대학 박규환·이재승 교수 및 건국대 임용식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br/> <br/>CASS광학현미경은 암세포가 주로 발생하는 피부 속 표피세포의 세포핵 변화까지 관찰할 수 있어 암 같은 질병의 조기 진단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암세포는 80%가 피부나 장기의 외피에서 1∼3㎜ 깊이에 있는 표피세포에서 발생하지만, CT·MRI·초음파 등은 해상도가 낮아 암세포가 크게 자라난 이후에야 측정이 가능하다. 또 기존 광학현미경으로는 수십㎛ 깊이까지만 고해상도 관찰이 가능하지만 연구팀은 1㎜ 이상의 깊이까지 고해상도로 세포 영상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44.txt

제목: 맛은 기본, 건강까지 책임지는 ‘컬러푸드’는?  
날짜: 2015031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310016570808  
ID: 01100701.201503131001657080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 국립 암 연구소에서 암 예방을 위해 하루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를 권장하며 컬러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컬러푸드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칼’ 물질이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고, 세포 손상 저하를 가져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5가지 컬러로 꼽힌 노랑 및 빨강, 보라, 초록, 흰색 식품을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건강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br/> <br/>◆옐로 푸드(Yellow Food)=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성분이 풍부한 옐로 푸드는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제아잔틴’.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미용관리에 효과적인 식품이다. 스톤월 키친 ‘망고피치 잼’은 트로피컬 망고와 제철에 수확한 신선한 복숭아의 조합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비교적 달지 않고 부드러운 맛으로 다양한 레시피로 베리에이션 가능하다. <br/> <br/>◆레드 푸드(Red Food)=레드푸드는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 특히 체리는 비타민 A,C,E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노화 방지, 시력 보호, 소화작용에 효과적이다. 자연원 ‘두번 엄선한 냉동 체리’는 별도의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냉동시킨 제품으로 체리의 씨와 꼭지를 제거해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체리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br/> <br/>◆퍼플 푸드(Purple Food)=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으로 노화 방지와 뇌졸증 위험을 줄여주고, 눈 망막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 눈 건강에 효과적인 블루베리를 달콤한 디저트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CJ제일제당 ‘쁘띠첼 슈퍼 블루’는 풍부한 블루베리와 상큼한 과즙의 조화가 돋보이는 과일젤리 제품이다. 160g의 넉넉한 용량으로 식사대용으로 손색없다. <br/> <br/>◆그린 푸드(Green Food)=엽록소와 무기질, 비타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브로콜리의 영양을 담은 건강주스 웅진식품 ‘자연은 데일리톡’은 브로콜리와 함께 5가지 야채과일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한 제품이다. 제품에 함유된 프락토 올리고당은 체내 유산균을 활성화 시켜 장과 간 기능에 도움을 준다. 방부제, 색소, 향료, 유화제, 증점제 등의 식품 첨가물을 배제하고 저온 아셉틱 공법으로 생산해 신선한 야채를 즐길 수 있다. <br/> <br/>◆화이트 푸드(White Food)=간암 및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을 예방하는 ‘파이토케이칼’이 들어있는 화이트 푸드는 암 예방뿐 아니라 강한 살균, 향균 작용을 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화이트 푸드 중 하나인 백포도주를 간편하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보니또 코리아 ‘상그리아 화이트’는 4.5%의 낮은 알코올 도수로 여성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45.txt

제목: 수면무호흡, ‘노화 시계’ 앞당길 수 있다  
날짜: 2015031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110016541020  
ID: 01100701.201503111001654102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수면무호흡이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11일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인간 유전체 연구소 신철 교수, 권유미 박사팀은 수면무호흡 증상이 심할수록 노화시계를 나타내는 텔로미어(telomere)의 길이가 더욱 짧아진다고 밝혔다. <br/> <br/>신 교수팀은 국내 45~72세 사이의 성인 남녀 381명(남자 138명, 여자 243명)을 대상으로 혈액에서 추출한 텔로미어의 길이와 수면 중 발생하는 호흡 및 심박의 관계를 분석해 수면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노화진행시 텔로미어 길이의 변화. 사진=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제공 <br/> <br/>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의 양 끝 부분을 의미하는 텔로미어는 체내의 ‘노화 시계’로 불린다.  유전적 영향 외에도, 활성 산소나 염증 반응 등을 통해서 길이가 짧아질 수 있고, 노화는 물론,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의 상관 사례가 보고됐다. <br/> <br/>연구 결과 불안정한 수면상태를 자주 보이는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가 정상적인 수면상태인 사람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았다고 분석했다. 즉, 불안정한 수면상태를 나타내는 주기적 호흡 및 분절 수면이 빈번 할수록 수면의 안정도가 떨어져 불안정을 초래한다. 이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할 수 있는 유의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br/> <br/>특히 수면무호흡이 1시간에 15회 이상 나타나는 중증도 수면무호흡이 동반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일반인보다 2~2.5배 더 짧았다. <br/> <br/>신 교수는 “<span class='quot0'>수면무호흡증이 있을 때는 체내의 산소가 부족해져 유해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염증반응을 일으켜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게 만든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수면무호흡증을 비롯한 불안정한 수면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해 노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등의 수면 장애가 의심된다면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올해 해외저명 학술지인 ‘수면과 호흡(Sleep and Breathing)’ 1월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46.txt

제목: [단독]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1만건 돌파  
날짜: 20150310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03137152  
ID: 01100701.20160514203137152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필두로 암보험, 상해보험, 저축보험 등의 다이렉트 장기보험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br/> <br/>10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이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계약 건수 1만 건을 돌파했다. <br/> <br/>지난해 10월 첫 출시 된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10월 1690건, 11월 1961건, 12월 2663건의 계약고를 올렸다. 출시 3개월에 6300건 이상의 실적을 올린 것이다. 올해 1월에는 3714건의 계약 실적을 올려 총 1만건 이상 가입했다. <br/> <br/>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자 중 96.5%가 만족하는 것도 특징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의 최대 장점은 좋은 보험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편리함과 보험료를 확인해도 가입권유 전화가 없다. <br/> <br/>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고객에게 설문조사 했다. 그 결과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 선택했다는 대답이 53.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믿음직한 브랜드(41.0%), 편리한 인터넷 가입(37.9%), 가입권유 전화 없음(22.5%), 보상서비스(21.4%) 등의 순으로 중복 선택했다. <br/> <br/>또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알게 된 루트에 대한 질문에는 75.2%가 인터넷 검색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인 소개가 25.7%, TV광고가 21.6%, 인터넷 배너광고가 20.1%를 차지했다. <br/> <br/>지난해 12월 말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가입고객 연령대는 30대가 4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24.4%, 20대 이하가 15.9%, 50대 이상이 10.9% 순이었다. 3040세대가 전체의 3/4을 차지해 주력층으로 나타났다. <br/> <br/>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의 최대 장점은 오프라인 상품 대비 최대 2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한 점"이라며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30% 이상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운전자보험 이외의 다른 상품으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이렉트 장기보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47.txt

제목: 박종완 이명식 교수, 아산의학상 수상...암성장 억제-당뇨병 치료 '공로'  
날짜: 2015031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010016521096  
ID: 01100701.2015031010016521096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박종완 이명식 교수, 아산의학상 수상...암성장 억제-당뇨병 치료 '공로' <br/> <br/>박종완 서울의대 교수와 이명식 성균관의대 교수가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br/> <br/>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9일, '제8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박종완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기초의학부문)와 이명식 성균관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임상의학부문)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br/> <br/>또 젊은의학자 부문 수상자로는 김형범 연세의대 교수(기초의학부문)와 박정열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br/> <br/>재단에 따르면 박종완 교수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의 세포 반응 연구를 통해 암의 성장 억제 인자를 밝힌 연구업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명식 교수는 세포의 자가포식 연구로 당뇨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r/> <br/>김형범 교수는 기존 유전자 가위의 부작용을 줄인 RNA유전자 가위 개발 성과가, 박정열 교수는 복강경 수술로 부인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공로가 각각 높게 평가됐다. <br/> <br/>아산의학상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기초·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낸 국내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했다. 재단은 2016년부터는 시상 대상에 해외 의과학자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br/> <br/>상금은 기초·임상부문 수상자가 각각 상금 3억원이며,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는 각각 5천만원이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br/>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48.txt

제목: [단독]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1만건 돌파  
날짜: 20150310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0100000098  
ID: 01100701.20150310100000098  
카테고리: 경제  
본문: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필두로 암보험, 상해보험, 저축보험 등의 다이렉트 장기보험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10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이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계약 건수 1만 건을 돌파했다.지난해 10월 첫 출시 된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10월 1690건, 11월 1961건, 12월 2663건의 계약고를 올렸다. 출시 3개월에 6300건 이상의 실적을 올린 것이다. 올해 1월에는 3714건의 계약 실적을 올려 총 1만건 이상 가입했다.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자 중 96.5%가 만족하는 것도 특징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의 최대 장점은 좋은 보험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편리함과 보험료를 확인해도 가입권유 전화가 없다.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고객에게 설문조사 했다. 그 결과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 선택했다는 대답이 53.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믿음직한 브랜드(41.0%), 편리한 인터넷 가입(37.9%), 가입권유 전화 없음(22.5%), 보상서비스(21.4%) 등의 순으로 중복 선택했다.또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알게 된 루트에 대한 질문에는 75.2%가 인터넷 검색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인 소개가 25.7%, TV광고가 21.6%, 인터넷 배너광고가 20.1%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 말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가입고객 연령대는 30대가 4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24.4%, 20대 이하가 15.9%, 50대 이상이 10.9% 순이었다. 3040세대가 전체의 3/4을 차지해 주력층으로 나타났다.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의 최대 장점은 오프라인 상품 대비 최대 2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한 점"이라며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30% 이상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운전자보험 이외의 다른 상품으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이렉트 장기보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49.txt

제목: ‘아산의학상’ 박종완·이명식 교수  
날짜: 20150309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910016520877  
ID: 01100701.2015030910016520877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8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박종완(왼쪽)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기초의학부문)와 이명식(오른쪽) 성균관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임상의학부문)를 각각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젊은의학자 부문 수상자로는 김형범 연세의대 교수(기초의학부문)와 박정열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br/> <br/>재단에 따르면 박종완 교수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의 세포 반응 연구를 통해 암의 성장 억제 인자를 밝힌 연구업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명식 교수는 세포의 자가포식 연구로 당뇨병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50.txt

제목: 제8회 아산의학상에 서울대 박종완·성균관대 이명식 교수  
날짜: 2015030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910016518338  
ID: 01100701.2015030910016518338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국내 의학계 최고 권위의 ‘제8회 아산의학상’ 기초의학부문에 박종완(54) 교수, 임상의학부문에 이명식(59) 교수가 선정됐다. <br/> <br/>기초의학부문 수상자 박종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의 세포 반응 연구를 통해 암의 성장 억제 인자를 밝힌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이명식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세포의 자가포식 연구를 통해 당뇨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8회 아산의학상’기초의학부문 박종완 서울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사진 왼쪽)와 임상의학부문 이명식 성균관대 의대 교수(사진 오른쪽) 사진= 서울아산병원 제공 <br/> <br/>젊은의학자부문에는 기존 유전자 가위의 부작용을 줄인 RNA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김형범(40) 연세대 의대 교수와 복강경 수술의 우수성을 입증해 부인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박정열(41)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선정됐다. <br/> <br/>기초?임상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3억원이,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19일(목)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 <br/> <br/>아산의학상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낸 국내 의과학자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됐다. <br/> <br/>아산사회복지재단은 국내 의과학계 발전을 위해 2011년 조성한 아산의학발전기금을 2012년 300억원의 규모로 확대해 아산의학상 시상 및 수상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시상대상에 해외 의과학자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br/>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51.txt

제목: 화이자, 먹는 류마티스치료제 젤잔즈 출시  
날짜: 2015030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510016488246  
ID: 01100701.2015030510016488246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한국화이자제약(이하 화이자)이 5일 최초의 먹는 류마티스관절염 표적 치료제인 젤잔즈를 국내에 출시했다. <br/> <br/>그간 류마티스관절염은 백신 형태인 생물학적 제제(TNF 억제제)를 치료제로 사용해 환자들이 불편함을 겪었으나, 이번 경구용 치료제의 출시로 복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보인다. <br/> <br/>화이자는 이날 출시간담회를 통해 “<span class='quot0'>젤잔즈는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 시대 도래 이후 10년 여 만에 최초로 승인된 경구용 류마티스제제</span>”라며 “<span class='quot0'>류마티스관절염과 관련한 염증에 직접 작용하는 정제형 제제</span>”라고 밝혔다.  <br/> <br/>이어 “젤잔즈는 천염증성 사이토카인(세포간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단백질)이 사용하는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인 JAK 경로를 억제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br/> <br/>이를 위해 화이자는 4200명 이상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참여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br/> <br/>연구 결과에 따르면 류마티스의 20% 호전율을 나타내는 수치인 ACR 20 도달 비율이 젤잔즈 5mg 투여군은 59.8%인 반면, 위약군은 26.7%로 나타났다. 50% 호전율을 나타내는 수치인 ACR 50은 투여군이 31.1%, 위약군은 12.5%의 환자가 도달했으며 ACR 70은 투여군이 15.4%, 위약군은 5.8%으로 나타났다. <br/> <br/>또 안전성에서도 기존 생물학적 제제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화이자 측은 설명했다.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주지현 교수는 “<span class='quot1'>면역원성 발생 없이 빠른 효과 발현과 지속적 효과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1'>경구로 복용할 수 있는 신약의 등장은 현 치료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span class='quot2'>젤잔즈 출시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 뿐만 아니라 약의 관리 및 복용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높여, 평생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류마티스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류마티스관절염은 인체 내 관절을 싸고 있는 얇은 막(활막)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으로 흔히 ‘관절의 암’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약 30만명이 이 질병을 앓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30~40대 등 젊은 층에도 흔하게 발생하며, 전체 환자의 70~80%가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52.txt

제목: “심장병과 정신병 등 유전질환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날짜: 20150305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510016487769  
ID: 01100701.201503051001648776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간은 커갈수록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쪽을 더 닮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외모적으로는 외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체질이나 건강 측면에서는 십중팔구 친탁을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br/> <br/>4일(현지시간) 사이언스데일리 등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의과대학 연구진은 최근 과학저널 ‘자연유전학저널’에 동물실험 결과 포유류는 예외없이 아버지 쪽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내용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페르난도 P 드빌레나 교수는 “<span class='quot0'>인간을 비롯한 포유류는 부모 양쪽으로부터 동일한 양의 유전자를 물려받지만 자라면서 부계 쪽 유전자를 더 많이 발현하게 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연구진은 서로 다른 유전자를 지닌 9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DNA와 RNA(유전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리보핵산) 여부를 관찰했다. 이들 쥐는 각기 다른 종의 쥐 3마리를 또 다른 지역(대륙)에서 자란 유전자가 다른 3마리와 교배시켜 태어난 새끼들이다. 연구진은 9마리 쥐가 성체가 되었을 때 각각 RNA가 있는 뇌 부위를 비롯해 4개 피부조직에서의 유전자 발현 상태 등을 측정했다. <br/> <br/>그 결과 수컷 쥐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어미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당뇨와 비만, 심장병 등 아버지 쥐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질병 유전자는 반드시 발현된 반면 어머쥐의 유전자의 발현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드빌레나 교수는 “<span class='quot0'>부모 쥐로부터 동일한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더라도 모계 유전자의 경우 부계 유전자에 밀려 어른이 됐을 때 발현될 확률이 매우 적다는 의미</span>”라고 설명했다. <br/> <br/>이같은 연구결과는 인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 정신분열, 비만 등을 유발하는 수백개의 질병 유전자는 대체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발현 결과라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드빌레나 교수는 “<span class='quot0'>동일한 질병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쪽 유전자가 질병으로 발현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span>”고 말했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53.txt

제목: 녹십자,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뉴라펙’ 출시  
날짜: 2015030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210016439448  
ID: 01100701.201503021001643944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녹십자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뉴라펙 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페그테오그라스팀)’를 출시한다. <br/> <br/>2일 녹십자에 따르면 ‘뉴라펙’은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 시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호중구감소증치료제다.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 1주기 중 4~6회 투여해야 했던 1세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와 달리 1주기당 1회 투여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br/> <br/>녹십자가 개발한 ‘뉴라펙’은 특정 위치에만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을 붙이는 페길레이션(PEGylation) 기술로 기존 제품보다 순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물의 반감기를 늘렸다. <br/> <br/>이에 보험약가를 취득해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며, 보험 약가는 60만9000원이다. <br/> <br/>녹십자 김수정 항암제팀장은 “<span class='quot0'>녹십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백신, 혈액제제 등 바이오의약품을 연구,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출시한 ‘뉴라펙’과 함께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표적치료제 ‘GC1118’, 간암 유전자치료제 ‘JX-594’ 등을 개발하며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한편, 녹십자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뉴라펙’ 개발을 위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받은 바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54.txt

제목: 호박·토마토,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Tip  
날짜: 2015030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210016434336  
ID: 01100701.2015030210016434336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호박은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에 포함될 정도로 전 세계인에게 각광받는 식품이다. <br/> <br/>최근 식품과 노화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 스티븐 플랫 박사는 14가지 '슈퍼푸드' 중 한 가지로 늙은 호박을 선정하기도 했다. <br/> <br/>실제로 호박에는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는 물론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능이 있으며, 과육부터 씨까지 버릴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또한 늙은 호박은 노화방지와 피부 미용에 탁월하며, 몸 속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억제하고 맑고 매끈한 피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특히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해 큰 일교차로 감기 걸리기 쉬운 가을에 면역력을 증진시켜 잦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br/> <br/>호박과 더불어 토마토의 효능이 누리꾼의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토마토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 식품으로서 영양 만점이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또한 토마토에는 혈압을 내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또한 고기나 생선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br/> <br/>뿐만 아니라 각종 암과 노화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화를 촉진해 위의 기능을 좋게 하기도 한다. 다만 위산과다 또는 위장이 냉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br/> <br/>한편, 최근 반짝 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프랑스 생면 파스타 전문점 ‘메조디파스타’에서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펌킨&마스카포네 스프’와 ‘토마토-올리브 스프’ 2종을 출시했다. <br/> <br/>이번에 출시한 스프 메뉴는 2가지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A가 풍부한 호박과 이탈리아산 마스카포네 크림치즈가 어우러진 메뉴로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펌킨&마스카포네 스프’. 지중해 식단에 필수적인 토마토와 올리브를 기본 재료로 하여 유럽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토마토-올리브 스프’ 2종이다. <br/> <br/>회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프랑스에서는 ‘키가 크기 위해서는 스프를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영양적인 측면에서 스프를 필수 메뉴로 여기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스프는 에피타이저나 가벼운 식사대용으로도 즐길 수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프랑스인들에게 사랑 받는 메뉴 중 하나</span>”라고 설명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55.txt

제목: ㈜아모레퍼시픽-분당서울대병원, 항노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MOU 체결  
날짜: 20150224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2410016376277  
ID: 01100701.201502241001637627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심상배)이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이철희)과 항노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상호간의 공동연구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23일 체결했다. <br/> <br/>이날 분당서울대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아모레퍼시픽 심상배 사장, 한상훈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하여, 분당서울대병원 이철희 원장, 이재서 대외협력실장 외 교수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r/> <br/>이번 MOU 체결로 두 기관은 △과학기술분야 및 의료 보건 분야의 공동연구 △고령화 대응 항노화 솔루션 공동연구 및 개발 지원 △연구 인력 교류 및 교육 △시설·장비 및 공간 등의 공동 활용 △학술 및 기술정보의 공동 활용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지원과 공동 연구에도 적극 참여하게 됐다.  <br/> <br/>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니어에 특화된 건강기능식품의 기획과 ▲대사증후군 ▲근골격 활성화 ▲암 예방 ▲활력 증강 ▲멘탈 케어 등 연계 연구에도 함께 힘쓸 예정이다.  <br/> <br/>더불어 두 기관은 국민복지 및 건강을 위한 시니어케어 사업 모델 개발에도 뜻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아모레퍼시픽의 뷰티푸드 브랜드 VB와 연계하여 심신 안정 특화 솔루션 등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br/> <br/>㈜아모레퍼시픽 심상배 사장은 “<span class='quot0'>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span>”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국민의 웰에이징(Well-Ageing) 구현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56.txt

제목: "올리브유에 '암세포' 죽이는 성분 있다"  
날짜: 20150217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710016341518  
ID: 01100701.201502171001634151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엑스트라 버진(Extra Virgin) 올리브유의 올레오칸탈(oleocanthal) 성분이 암세포를 죽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화제다. 이 성분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br/> <br/>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과학매체 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에 따르면 미국 럿거스 대학과 헌터 대학 연구팀이 올레오칸탈이 ‘소포(vesicle)’를 파괴해 암세포를 죽인다는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소포는 암세포의 ‘쓰레기’를 저장한다. <br/> <br/>연구진은 올레오칸탈에 노출된 암세포가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소멸한 것을 확인했다. 보통 ‘세포사멸(손상된 세포가 자살하는 현상·programmed cell death)’에 16~24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레오칸탈이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한 셈이다. 연구진은 올레오칸탈의 자체 효소가 암세포의 빠른 소멸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br/> <br/>럿거스 대학 영양학교수 폴 브레슬린 박사는 “<span class='quot0'>올레오칸탈이 암세포 안의 리소솜(일종의 쓰레기통)에 구멍을 뚫어 폐기물이 쏟아지게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같은 방식으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암세포의 리소솜은 정상세포의 그것보다 더 크다</span>”며 “<span class='quot0'>쓰레기통이 열리면 모든 게 다 쏟아져나온다</span>”고 덧붙였다. <br/> <br/>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올레오칸탈이 정상세포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연구팀은 “올레오칸탈은 정상세포의 생활주기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며 “‘수면’ 상태에 빠진 뒤 하루가 지나면 정상적인 활동이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연구팀의 올레오칸탈 연구결과는 ‘분자·세포 종양학(Molecular and Cellular Oncology)’ 최신호에 실렸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57.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美 티젠과 '암치료제 개발' MOU  
날짜: 20150213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310016313330  
ID: 01100701.201502131001631333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왼쪽)과 티젠의 제프리 M 트렌트 회장이 암 치료제 연구개발의 공동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삼성서울병원(원장 송재훈)은 13일 초기 임상연구 신약 개발의 선두 주자인 미국 제약회사 티젠(Tgen)과 유전체 기반 맞춤 암 치료제 연구개발의 공동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br/> <br/>티젠은 초기 진단과 혁신적 치료법 개발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연구단체로, 지난 2002년 6월 설립됐다. 현재 미국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한 달 평균 20건 이상 진행하며, 기초과학에서의 연구 결과를 임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해 ‘임상시험의 메카’로도 불린다. 현재 암 환자들에게 많이 쓰는 항암제인 파클리탁셀(Paclitaxel), 젬시타빈(gemcitabine) 등 다양한 신약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br/> <br/>티젠이 미국 외 나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서울병원과는 이번 협약으로 향후 3년간 전이성 위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혁신적 개인 맞춤 암 치료 프로그램(IPCP)을 3년 동안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들 암 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해 일반적 암 환자와는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 찾아내면, 그에 맞춰 티젠이 확보한 유전체 기반 표적 치료제를 들여와 환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br/> <br/>제프리 M 트렌트 티젠 회장은 “<span class='quot0'>IPCP는 유전체 기반 임상시험의 혁신적 연구 성과로 연결되리라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많은 암 환자들을 위한 유전체 기반 개인 맞춤 암 치료 발전에 선도적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도 “<span class='quot1'>위암, 폐암 등 5대 암에서 시작해 희귀암 등으로 확대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 맞춤형 유전체 치료 선도 기관으로 발돋움할 것</span>”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2)3410-3692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58.txt

제목: '보기 예쁘면서 건강에도 좋은' 컬러푸드가 뜬다  
날짜: 2015021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310016322096  
ID: 01100701.2015021310016322096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최근 자신의 건강에 맞는 다양한 컬러푸드를 찾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컬러푸드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유의 색상을 가진 자연식품을 뜻하며 보통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흰색 식품으로 구분한다. <br/> <br/>자연에서 재배한 과일·채소의 고유한 천연색소에는 색깔 별로 각기 다른 성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이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다양한 생리작용으로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시키므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망고, 체리, 오렌지, 브로콜리, 포도, 배 등이 대표적 식품이다. <br/> <br/>컬러푸드는 시각과 미각, 건강이라는 3박자를 갖춰 ‘보기에 예쁘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는 젊은 층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국립 암 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가 암을 예방하려면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라고 권장하면서 그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 <br/> <br/>컬러푸드가 ‘대세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자 식품업계에서는 화려한 색의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색깔 별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 역시 뜨겁다. <br/> <br/>◆Yellow Food=’옐로 푸드(Yellow Food)’는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베타카로틴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 겨울철에 특히 섭취하기 좋다. 대표적인 옐로 푸드 망고는 100g당 64kcal의 저칼로리 음식으로 베타카로틴 성분뿐 아니라 제아잔틴 등의 항산화제가 함유돼 여성들의 미용 관리에 도움을 준다. 홀푸드 디자이너 자연원은 ‘두번 엄선한 냉동과일’ 시리즈를 선보이며 컬러푸드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자연원의 두번 엄선한 냉동과일은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냉동시킨 제품으로 자연 해동 후 바로 먹으면 생과 본연의 맛과 영양을 느낄 수 있다. 옐로푸드 망고를 먹기 좋게 잘라 급속 냉동한 ‘두번 엄선한 스위트망고’는 망고의 풍부한 섬유질을 그대로 제품에 담았다. <br/> <br/>◆Red Food=레드푸드(Red Food)에는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있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토마토, 수박, 석류, 체리 등이 있다. 특히 과일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체리는 비타민 A·C·E 성분이 함유돼 피부노화 방지는 물론 시력 보호에도 효과적이며 소화작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원의 ‘두번 엄선한 냉동 체리’는 씨와 꼭지를 제거한 체리를 담아 언제 어디서나 간식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게 했다. 뒷면에 제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가 제공돼 취향에 따라 달콤한 아이스크림부터 케익, 에이드, 푸딩, 잼 등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br/> <br/>◆Green Food=브로콜리, 배추, 케일, 양배추, 해초류 등의 그린푸드(Green Food)는 체내의 중금속 성분 및 유해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엽록소와 무기질, 비타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특히 브로콜리는 피부에 생기를 불어 넣는 비타민E와 변비에 좋은 식물성 섬유도 풍부하다. 웅진식품의 건강주스 ‘자연은 데일리톡-브로콜리와 5가지 야채과일’은 그린푸드 브로콜리와 건강에 좋은 야채·과일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만들었다. 제품에 함유된 프락토 올리고당은 체내 유산균을 활성화시켜 장과 간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br/> <br/>◆Purple Food=포도, 블루베리, 가지 등의 보라색을 띄는 퍼플푸드(Purple Food)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노화를 방지하며 뇌졸중 위험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그 외에도 눈의 망막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 눈 건강을 증진시킨다. 특히 베리의 왕 블루베리는 생과 보다 냉동으로 섭취할 때 의학적 효능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 식품학과 연구진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얼릴 경우 함유된 항산화 물질 농도가 더욱 증가한다. 자연원의 ‘두번 엄선한 냉동 블루베리’는 이러한 블루베리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제품이다. 자연 그대로의 블루베리를 손질해 급속 냉동시켰으며 요구르트나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 스무디로 먹거나 머핀·파이 등 제과 제빵에 활용해 먹어도 좋다. 스무디 브랜드 잠바주스는 겨울을 맞아 따뜻하게 포도를 즐길 수 있는 ‘포도 핫 주스’를 출시했다. 잠바주스의 ‘포도 핫 주스’는 100% 포도만을 착즙해 포도의 새콤한 맛은 물론 비타민과 유기산 등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br/> <br/>◆White Food=마늘, 양파, 버섯, 배 등 흰색 계통의 화이트 푸드에는 바이러스 저항력을 길러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다.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어서 봄 철 황사가 심할 때 많이 찾는 식품 중 하나다.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푸드 브랜드 베이비오는 화이트 푸드 ‘배’를 활용한 과일 칩을 선보이고 있다. 알레르기에 민감한 유아들이 먹기 쉽게 안전을 강화했으며 생과일의 배를 그대로 동결건조해 영양 손실을 최소화했다. 바삭한 식감으로 간식으로 즐기기에 알맞다. <br/> <br/>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컬러푸드 신드롬을 타고 상큼한 과일과 형형색색의 채소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풍부한 영양소와 화려한 색감, 고유의 맛을 다 갖춘 컬러푸드를 활용한 제품의 인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59.txt

제목: 삼성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보험료 차이 없어  
날짜: 20150212  
기자: 이가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191042279  
ID: 01100701.20160514191042279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삼성생명 온라인보험 중 일부 상품은 설계사나 전화로 가입하는 상품과 보험료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온라인 보험이 더 싸다"는 상식을 역이용하는 '마케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온라인 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대비 보험료가 10~30% 가량 저렴하다. 설계사 모집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설계사들을 위한 지점임대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TM, Telemarketing)로 가입하는 보험은 지점 임대료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오프라인 대비 10% 가량 보험료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br/> <br/>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암보험은 오프라인상품과 TM상품의 보험료가 동일했고, 온라인상품은 약 1% 저렴한 것에 불과했다. 또한 정기보험은 오프라인상품과 TM상품의 보험료 차이가 약 10% 발생했지만 TM상품과 온라인상품의 가격 차이는 2%에 그쳤다. <br/> <br/>40세 남성이 삼성생명 암보험(2000만원, 일반암 2000만원, 유방암·자궁암 800만원, 암으로 인한 사망 4000만원)에 동일 기준으로 가입했다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상품의 보험료는 1만3800원이다. 전화를 통해 TM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과 보험료가 똑같았다. 저렴하다는 강조한 온라인상품은 약 200원 저렴한 1만3628원이었다. <br/> <br/> <br/> <br/> <br/>  <br/>삼성생명의 정기보험도 TM상품과 온라인상품의 가격이 같았다. 40세 남성이 20년 동안 사망시 2억원을 보장받는다는 동일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오프라인상품은 매달 보험료로 7만1280원을 내야 한다. TM상품은 오프라인상품보다 약 8% 저렴한 6만6000원이었다. 그러나 TM상품 대비 온라인상품은 6만4680원으로 2% 저렴한 것에 그쳤다. <br/>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TM이나 온라인 가입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동일한 보장에 저렴한 보험료를 기대하고 온라인으로 가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보험사는 동일 보장일 때 오프라인상품이 가장 보험료가 비싸고 TM상품, 온라인상품 순"이라며 "채널별로 보험료가 같다는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br/> <br/>문제는 삼성생명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보험의 장점의 첫 번째로 ‘수수료가 적어 저렴한 보험료’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 상품별 가격을 확인한 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TM상품과 온라인상품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서비스"라고 어필했다.  <br/>그러나 보험업계의 관계자들의 의견은 삼성생명 관계자와 다르다. 손해보험사의 온라인자동차보험과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만들어 놓은 온라인 보험의 이미지만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오프라인 대비 TM과 온라인 채널은 단계적으로 사업비가 낮아지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것은 꼼수 마케팅이라는 지적이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60.txt

제목: 삼성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보험료 차이 없어  
날짜: 20150212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2100000091  
ID: 01100701.2015021210000009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삼성생명 온라인보험 중 일부 상품은 설계사나 전화로 가입하는 상품과 보험료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온라인 보험이 더 싸다"는 상식을 역이용하는 '마케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대비 보험료가 10~30% 가량 저렴하다. 설계사 모집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설계사들을 위한 지점임대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TM, Telemarketing)로 가입하는 보험은 지점 임대료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오프라인 대비 10% 가량 보험료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암보험은 오프라인상품과 TM상품의 보험료가 동일했고, 온라인상품은 약 1% 저렴한 것에 불과했다. 또한 정기보험은 오프라인상품과 TM상품의 보험료 차이가 약 10% 발생했지만 TM상품과 온라인상품의 가격 차이는 2%에 그쳤다.40세 남성이 삼성생명 암보험(2000만원, 일반암 2000만 원, 유방암·자궁암 800만원, 암으로 인한 사망 4000만원)에 동일 기준으로 가입했다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상품의 보험료는 1만3800원이다. 전화를 통해 TM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과 보험료가 똑같았다. 저렴하다는 강조한 온라인상품은 약 200원 저렴한 1만3628원이었다. 삼성생명의 정기보험도 TM상품과 온라인상품의 가격이 같았다. 40세 남성이 20년 동안 사망시 2억원을 보장받는다는 동일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오프라인상품은 매달 보험료로 7만1280원을 내야 한다. TM상품은 오프라인상품보다 약 8% 저렴한 6만6000원이었다. 그러나 TM상품 대비 온라인상품은 6만4680원으로 2% 저렴한 것에 그쳤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TM이나 온라인 가입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동일한 보장에 저렴한 보험료를 기대하고 온라인으로 가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보험사는 동일 보장일 때 오프라인상품이 가장 보험료가 비싸고 TM상품, 온라인상품 순"이라며 "채널별로 보험료가 같다는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보험의 장점의 첫 번째로 ‘수수료가 적어 저렴한 보험료’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 상품별 가격을 확인한 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TM상품과 온라인상품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서비스"라고 어필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관계자들의 의견은 삼성생명 관계자와 다르다. 손해보험사의 온라인자동차보험과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만들어 놓은 온라인 보험의 이미지만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오프라인 대비 TM과 온라인 채널은 단계적으로 사업비가 낮아지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것은 꼼수 마케팅이라는 지적이다.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61.txt

제목: "흡연 유해성, 통념보다 훨씬 커"  
날짜: 20150212  
기자: 유태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210016307124  
ID: 01100701.201502121001630712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흡연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암협회(ACS)와 여러 대학이 참여한 연구진이 55세 이상 미국인 남녀 100만명가량의 10년치 건강기록을 분석한 결과 흡연과의 연관성이 드러난 질병이 최소 5개나 추가됐다고 밝혔다. <br/> <br/>지금껏 흡연으로 사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질환은 폐암 등 12종의 암을 포함해 모두 21가지였으나 신부전, 감염, 간경화, 혈류 감소로 인한 장허혈, 일부 호흡기 질환도 새로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 결과 흡연은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2배 높이며, 감염·간경화·장허혈로 인한 사망위험은 각각 2.3배, 3.1배, 6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흡연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진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도 2배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연간 5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흡연 관련 사망자 수는 매년 6만∼12만명 정도 늘어난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br/> <br/>이번 연구는 흡연 습관과 건강의 통계적 상관성을 밝힌 것으로, 의학 실험과 달리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ACS의 브라이언 카터 박사는 “흡연은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감염 위협을 높인다. 흡연이 유발하는 당뇨, 고혈압, 동맥질환은 신장에 영향을 미치며 폐손상 환자가 감염에 노출되면 각종 호흡기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br/> <br/>유태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62.txt

제목: [핫키워드]돌발성 난청 진단법, 설 스미싱 주의보, 해외발 홍역 확산, 닐 암스트롱 가방 공개, 설 연휴 임시 전동열차 운행, 삼치의 효능  
날짜: 2015021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210016300025  
ID: 01100701.2015021210016300025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br/> <br/> <br/>돌발성 난청 진단법, 설 스미싱 주의보, 해외발 홍역 확산, 닐 암스트롱 가방 공개, 설 연휴 임시 전동열차 운행, 삼치의 효능 <br/> <br/>[핫키워드]돌발성 난청 진단법, 설 스미싱 주의보, 해외발 홍역 확산, 닐 암스트롱 가방 공개, 설 연휴 임시 전동열차 운행, 삼치의 효능 <br/> <br/>돌발성 난청 진단법, 설 스미싱 주의보, 해외발 홍역 확산, 닐 암스트롱 가방 공개, 설 연휴 임시 전동열차 운행, 삼치의 효능 <br/> <br/>  <br/> <br/>  <br/> <br/># 돌발성 난청 진단법 <br/> <br/>돌발성 난청 진단법으로는 기본적인 병력청취와 이경 검사를 실시하고 청력검사를 하여 난청의 정도를 알고, 다른 원인 질환들을 감별하도록 한다. 현기증이 있으면 전정기능 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 <br/> <br/>필요에 따라 종양 발생의 감별을 위해 MRI 등의 영상 검사를 진행하고, 원인이 될 만한 내과적 질환이 있는지 살피려는 목적으로 각종 혈액검사와 염증성 질환 검사 등을 시행한다. <br/> <br/>돌발성 난청 치료법에는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와 같은 항염증제를 주로 사용하며, 혈액순환 개선제, 혈관 확장제, 항바이러스제, 이뇨제, triiodobnezoic acid 유도체가 사용되기도 한다. <br/> <br/>추정되는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서 고막 안쪽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사하거나 수술적 요법 등으로 치료한다. <br/> <br/>  <br/> <br/>  <br/> <br/># 설 스미싱 주의보 <br/> <br/>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 스미싱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br/> <br/>이 같은 내용의 문자 속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깔리면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당하고 금전피해도 당한다. <br/> <br/>정부도 지난 1월 스미싱 탐지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51% 늘어났다며 올 설을 맞아서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했다. <br/> <br/>아울러 스마트폰의 경우 환경설정에서 보안으로 들어가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br/> <br/>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로 신고하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br/> <br/>  <br/> <br/>  <br/> <br/># 해외발 홍역 확산 <br/> <br/>지난해 홍역이 크게 유행한 중국에서는 최근 한 달 새 1천 명이 넘는 환자가 보고되는 등 올 들어 홍역이 다시 확산 기세로 돌아섰다. <br/> <br/>미국도 홍역 비상이다. 지난달 중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홍역 경보가 발령된 데 이어 동부 뉴저지를 비롯해 17개 주에서 12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발생한 홍역이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이다. <br/> <br/>지난해 국내 홍역 환자의 97%는 외국에서 유입된 바이러스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와 중국에서 감염된 경우가 21명,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전파시킨 2차 감염 환자는 407명에 달한다. 호흡기로 전파되는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br/> <br/>자연 면역력이 생기는 50대 이전은 백신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br/> <br/>보건당국은 해외여행 뒤 홍역이 의심되는 고열과 발진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br/> <br/>  <br/> <br/>  <br/> <br/># 닐 암스트롱 가방 공개 <br/> <br/>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이 9일(현지시간) 암스트롱이 달 착륙 비행을 마치고 가져온 가방 속 물건들을 공개했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br/> <br/>가방 속에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한 후 암스토롱이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촬영한 16㎜ 무비 카레마와 휴대용 다목적 소전등, 전선 케이블, 광학 관측용 기기 및 부속장비들, 허리용 묶음 장치 등 총 17점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br/> <br/>이 가방은 암스트롱이 지난 2012년 별세한 후 미망인 캐롤 여사가 오하이오 자택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벽장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br/> <br/>장비를 모두 담은 가방의 무게는 약 4.5kg. 착륙선이 달 표면에서 모선으로 돌아올 때 무게를 줄이기 가방은 달에 버려두기로 돼 있던 품목이었다. 그러나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 등 함께 떠난 우주인들은 기념할만한 물품을 남기기 위해 가방을 몰래 챙겨 지구로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암스트롱의 유족과 박물관 측은 "암스트롱이 생전 누구에게도 가방 속 물건에 대해 언급한 적 없었다"고 전했다. 캐롤은 이 장비들을 모두 박물관에 기증했다. 박물관은 16mm 무비 카메라를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임시 전시하고 있다. <br/> <br/>  <br/> <br/>  <br/> <br/># 설 연휴 임시 전동열차 운행 <br/> <br/>11일 코레일은 설 연휴기간 수도권 귀경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20일과 21일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임시 전동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br/> <br/>연장운행 노선은 지하철 1·3·4호선, 경의선, 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등 9개 노선이며 종착역 도착시각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이틀간 총 66회 운행한다. <br/> <br/>임시 전동열차 운행시각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코레일전철톡, 철도고객센터 또는 각 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아울러 코레일은 설 연휴기간 비상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br/> <br/>코레일 측은 "설 연휴 귀경 편의를 위해 심야 임시 전동열차를 운행하게 됐다. 특별수송대책본부 운영 등으로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r/> <br/>  <br/> <br/>  <br/> <br/># 삼치의 효능 <br/> <br/>삼치는 태아의 두뇌발달을 돕고 머리를 좋게 하며 노인들의 치매 예방, 기억력 증진,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삼치는 살이 희고 부드러워서 꽁치나 고등어보다 노인이나 아이들도 먹기 좋은 생선이다. <br/> <br/>특히 노인과 아이들에게 좋은 생선인 삼치는 삼치는 10월부터 이듬해 2월이 제철이다. 삼치를 구입할 때 살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은 피하고 배와 몸 전체가 단단하고 탄력있는 것을 택해야 한다. <br/> <br/>한편 삼치를 보관할 때에는 소금을 뿌린 후 최대 한 달까지 영하20도에서 0도까지의 냉장 보관이 적절하다. <br/> <br/>  <br/> <br/>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63.txt

제목: KT, 삼성서울병원과 암 유전체 분석 연구협약 체결  
날짜: 20150211  
기자: truth@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1100000053  
ID: 01100701.2015021110000005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KT(회장 황창규)와 삼성서울병원(원장 송재훈)은 암 유전자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 처방을 할 수 있는 암 유전체 분석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암 유전체 분석은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 같은 암이라도 개인특성에 따라 항암제 처방을 각각 다르게 하는 암 맞춤의학의 핵심 기술이다. 현재는 항암제 투여 후 치료반응에 따라 약물의 종류와 항암횟수를 결정한다. 하지만 암 유전체 분석이 완료되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항암제 종류와 투여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 항암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된다.KT는 두 기관이 각자가 가진 클라우드 컴퓨팅, 유전체 분석 플랫폼 등 ICT 기술과 암 치료 및 암 유전체 분석 노하우 등 의료 역량을 융합해 1000명의 암환자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분석을 통해 암유발의 유전적 원인을 규명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해 암 맞춤의료 및 유전체 분석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이다. KT는 1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암 유병자를 위한 맞춤의학 발전을 가능하게 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차동석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상무는 "개인 유전체 정보 기반 맞춤 의료서비스가 보편화되면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와 분석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바이오인포매틱스 기반 유전체 분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맞춤 정밀 의학(precision medicine)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연구·진료 간 연계 인프라 강화 및 국내외 연구자,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암에 대한 개인 맞춤의학의 세계적 선도 기관으로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박웅양 삼성서울병원 삼성유전체연구소 소장은 "향후 글로벌 수준의 대규모 암유전체 분석으로 본원의 암 맞춤의료 리더십을 확보하고 미래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연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KT는 현재 암이나 뇌질환 등 불치병 해결을 위해 커넥톰 프로젝트(Connectome·뇌지도) 참여, 공동 설립 등 학계와의 적극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64.txt

제목: 테고사이언스, 연골조직재생용 조성물 특허 등록  
날짜: 20150210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010016282956  
ID: 01100701.201502101001628295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테고사이언스(대표이사 전세화)는 지난 9일 ‘줄기세포 인 비보(in vivo) 이동 유도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공시했다. <br/> <br/>특허 받은 이 기술은 체외에서 배양된 줄기세포를 손상된 부위로 주입하는 기존 줄기세포치료제와 달리, 화학주성인자(케모카인)를 이용해 체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손상된 조직으로 빠르게 이동시켜 조직을 재생시킨다. <br/> <br/>다양한 물성, 형태, 크기의 이식물로 만들어 인체에 삽입,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척추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 및 암으로 손상된 골 및 연골을 재생하기 위한 치료에 적용할 계획이다. “<span class='quot0'>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해 이식하는 번거로움 없이 손상부위로 체내 줄기세포를 다량 유도하는 등 간편하고 효과적이다</span>”고 회사 측은 말했다. <br/> <br/>테고사이언스는 2012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진우 교수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았으며, 테고R&D팀은 연세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ABMRC)에 입주해 후속 연구에 매진했다. 또한 2012년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자체적으로 상용화 연구에 착수했다. <br/> <br/>테고사이언스 전세화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1'>줄기세포 인 비보(in vivo) 이동 유도 기술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서도 특허 심사 중에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줄기세포를 배양하지 않아도 되는 ‘신개념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span>”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br/> <br/>한편 테고사이언스는 동일한 기술로 피부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 유도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2014년 11월에 취득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65.txt

제목: 英서도 “60대는 더이상 노인 아냐”  
날짜: 20150209  
기자: 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910016274055  
ID: 01100701.2015020910016274055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우리나라에서 60대는 경로당에서 노인 축에 끼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영국에서도 60대는 더 이상 노인으로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장수센터(ILC)는 ‘50대 이상이 겪는 중병들’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병을 앓는 60대 비율이 10년 사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밝혔다. 센터는 심장마비와 심장 발작, 암, 치매, 파킨슨병 등을 노년에 겪는 대표적인 중병으로 분류했다. <br/> <br/>연구진이 2002∼2012년 영국 노화 종단 연구(ELSA)를 분석한 결과 연구에 표본으로 참여 중인 60∼64세 가운데 중병을 앓은 이들의 비율은 2002년 13.8%에서 2012년 7.7%로 대폭 줄었다. 65∼69세 가운데 중병을 적어도 한 번 겪어본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 역시 2002년 17.3%에서 2012년 11.7%로 격감했다. 이는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대부분 사람에게 중병이 발병하는 시기가 늦춰졌음을 의미한다. <br/> <br/>고령 근로자와 관련해 영국 정부에 자문하는 로스 알트만은 “이는 환상적인 뉴스”라며 “<span class='quot0'>이제 60대는 전통적인 의미의 노인이 아니다</span>”고 말했다. <br/> <br/>60대 초반에서 중병 환자의 비율이 하락한 것은 흡연 감소와 식습관 및 건강 관리 개선으로 심장마비와 심장 발작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66.txt

제목: [핫키워드]이번엔 샤워장 이발소, 요르단 IS 공습, 휴면계좌조회, 삼시세끼 시청률, 2월 축제 정보  
날짜: 2015020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710016259076  
ID: 01100701.2015020710016259076  
카테고리: IT\_과학>보안  
본문:   <br/> <br/> <br/>이번엔 샤워장 이발소, 요르단 IS 공습, 휴면계좌조회, 삼시세끼 시청률, 2월 축제 정보 <br/> <br/>[핫키워드]이번엔 샤워장 이발소, 요르단 IS 공습, 휴면계좌조회, 삼시세끼 시청률, 2월 축제 정보 <br/> <br/>7일 이번엔 샤워장 이발소, 요르단 IS 공습, 휴면계좌조회, 삼시세끼 시청률, 2월 축제 정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br/> <br/>  <br/> <br/># 이번엔 샤워장 이발소 <br/> <br/>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교황청은 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광장 돌기둥 사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조해 노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br/> <br/>샤워장에는 샤워기 3개가 설치됐으며 이용자들에게는 수건, 속옷, 비누, 치약, 면도기, 면도용 크림 등이 제공된다. <br/> <br/>교황 알현 행사로 번잡한 수요일을 빼고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br/> <br/>샤워장 옆에는 무료 이발소도 마련됐다. 로마의 이발소가 쉬는 월요일마다 이발사와 미용전공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노숙자들에게 이발과 면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br/> <br/>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0월 바티칸 사회복지 책임자인 콘라드 크라에프스키 주교가 프랑코라는 50세 노숙자에게서 '씻을 곳이 없다'는 하소연을 듣고 교황에게 보고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br/> <br/>교황은 또 최근 로마에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자 여행객들이 바티칸박물관에 놓고간 우산 300개를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br/> <br/>  <br/> <br/># 요르단 IS 공습 <br/> <br/>요르단군은 5일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시리아 내 IS 군사 훈련 시설과 무기고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순교자 마즈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날 공습에서 요르단은 IS가 수도로 삼는 시리아 동부 라카와 유전지대 데이르에조르를 집중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요르단 군은 "악랄한 행동을 저지른 IS를 처단할 것"이라며 "이번 공습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br/> <br/>나세르 주데 요르단 외무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습으로 알카사스베 중위의 죽음에 대한 복수의 서막을 열었다며 IS를 괴멸시키겠다"고 선포했다. <br/> <br/>요르단 국영 방송은 IS 공습에 나선 전투기가 발진하는 장면과 함께 사람들이 공습에 사용할 포탄에 이슬람 경전 꾸란의 경구와 반(反)IS 구호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실제 공습 장면과 함께 전투기들이 알카사스베 중위의 고향 마을 상공을 지나면서 경의를 표한 뒤 수도 암만으로 무사 귀환하는 장면도 전해졌다. <br/> <br/>요르단군은 시리아에 있는 IS 교육 센터와 무기 저장고 폭격했으며 이번 공습으로 IS 대원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에는 '니느웨의 군주'로 불리던 핵심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br/> <br/> <br/># 휴면계좌조회 <br/> <br/>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1058개이며 금액은 2427억 원에 달한다. <br/> <br/>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조회를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br/> <br/>또 시중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br/> <br/>한편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고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은행 5년·우체국 10년이다. <br/> <br/>  <br/> <br/> <br/># 2월 축제 정보 <br/> <br/>한 포털사이트의 2월 축제 정보에 따르면 평창송어축제와 물맑은 양평 빙어 축제는 8일까지 열린다. <br/> <br/>청평 눈썰매 송어 빙어 축제와 청평 얼음꽃 송어 축제는 22일까지 계속된다. <br/> <br/>불빛축제도 전국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br/> <br/>포천 허브아일랜드 불빛동화축제는 4월 30일까지 계속되고, 용인 에버랜드 로맨틱 일루미네이션 축제는 3월 1일까지 열린다. <br/> <br/>벽초지수목원빛축제 역시 3월 1일까지 열리며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은 3월 15일까지 계속된다. <br/> <br/>  <br/> <br/># 삼시세끼 시청률 <br/> <br/>지난 6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에서 손호준은 기상 악화로 만재도에 잔류하게 됐다. <br/> <br/>아침 일찍 일어난유해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배가 못 뜰 것 같다. 호준이 못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밖으로 나온 손호준에게 "파도가 세다. 배 못 뜨겠다"고 말했다. <br/> <br/>정말 유해진의 말대로 거센 파도로 인해 배가 뜰 수 없었고, 손호준은 섬에 잔류하게 됐다. 갑작스런 잔류로 손호준은 울상이 됐다. <br/> <br/>그런 손호준을 바라보며 유해진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제 손님 아니다. 1박 2일만 손님이다. 이제부터는 잠 안 깬다고 투정 부리면 안 된다. 빨리 가서 나무 좀 해와라"라고 시켰다. <br/> <br/>한편 '삼시세끼'는 지난 방송에서 평균 시청률 10.8%, 최고 시청률 14.2%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45분 방송된다. <br/> <br/>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67.txt

제목: 국립암센터·산업단지공단, MOU 체결  
날짜: 2015020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610016246657  
ID: 01100701.201502061001624665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오른쪽)이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이사장과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과 6일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산학연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br/> <br/>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한 분야는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활성화 공동사업 ▲산학연 협력을 위한 기업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산단 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자문 지원 ▲산단 기업 성장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산업기업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지원 ▲국립암센터 혁신 자원 활용 지원 7가지 분야다. <br/> <br/>국립암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암센터의 인적 자산인 교수, 학생, 연구원 등과 기술 자산을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현재 보유 중인 우수한 기술 및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 자원을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br/> <br/>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협력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양 기관의 발전 뿐 아니라 암 관련 분야의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span>”고 밝혔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68.txt

제목: “노벨상 비결? 창의적 사고로 새 분야 개척하라”  
날짜: 20150205  
기자: 신진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510016232070  
ID: 01100701.2015020510016232070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span class='quot0'>책에 나온 지식만 믿지 말고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span>” <br/> <br/>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팀 헌트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는 5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제22회 자연과학 공개강연:과학자의 꿈과 도전’ 특별강연에서 창의적 사고를 강조했다.  <br/> <br/>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제22회 자연과학 공개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에서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팀 헌트 명예교수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br/>남정탁 기자헌트 교수는 “<span class='quot1'>왜 한국에서는 아직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지</span>”를 묻는 한 학생의 질문에 “<span class='quot1'>노벨상을 받으려면 창의적 사고를 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좇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노벨상은 질문을 정해놓고 좇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을 발견할 때 따라온다</span>”며 “<span class='quot1'>내가 이룬 업적도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질문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 발견하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헌트 교수는 미개척 분야에 대한 과학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유능한 과학자를 양성하려면 정부나 민간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런 점에서 가능성 있는 개인 연구를 뽑아서 지원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지원이 바람직하다</span>”고 제언했다. <br/> <br/>헌트 교수는 ‘세포 주기’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고 이를 토대로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한 공로로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br/> <br/>권구성 기자 kusu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69.txt

제목: [핫 키워드] 뱃살을 빼는 10가지 습관, 매화 꽃말,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조정석 거미 열애, 개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날짜: 2015020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310016176218  
ID: 01100701.2015020310016176218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뱃살을 빼는 10가지 습관, 매화 꽃말,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조정석 거미 열애, 개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br/>뱃살을 빼는 10가지 습관, 매화 꽃말,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조정석 거미 열애, 개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이 오늘의 '핫 키워드'로 떠오르며 주목 받고 있다. <br/> <br/># 뱃살을 빼는 10가지 습관 <br/> <br/>뱃살을 빼는 10가지 습관이 공개돼 화제다. <br/> <br/>최근 미국의 건강포털 웹 엠디가 소개한 '뱃살을 뺄 수 있는 10가지 습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1. 식사 습관을 따져보자 <br/> <br/>늦은 밤 야식을 즐기거나 아이들이 남긴 밥이 아깝다고 다 먹는 습관이 있는가? 본인도 분명 이런 식습관이 나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고쳐보자.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br/> <br/>2. 간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br/> <br/>허기를 참는 것은 식사 때 과식을 유발해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 당분이나 칼로리가 많은 간식보다는 견과류나 방울 토마토 등을 먹으면 다이어트와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어 좋다. <br/> <br/>3. 배고플 때 장을 보지 말자 <br/> <br/>배가 고플 때 식료품 가게에 가면 먹거리에 대한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때 필요 없는 음식도 카트에 쉽게 집어넣게된다. 식탐을 덜 느낄 때 절제된 식품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고플 때 장을 보는 것은 피하자. <br/> <br/>4. 일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라 <br/>  <br/>주위에서 권하는 다이어트 식사법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식사법이다. 규칙적인 식사는 과식을 예방해 주기도 한다. <br/> <br/>5. 음식은 식탁에 앉아 먹어라 <br/> <br/>음식을 사서 봉투째 서서 먹으면 과식을 유발할 수 있다. 자리에 앉아 그릇에 덜어 먹어야 음식량을 조절하기 좋다. <br/> <br/>6. 개인 접시를 활용하고 20분을 유지하라 <br/> <br/>식사 때마다 개인 접시를 이용하면 과식을 예방하고 위생에도 좋다. 또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려면 식후 20분 정도 걸린다는 것을 명심하자. 매일 식사를 허겁지겁 먹는 식습관은 뚱보가 되는 지름길이다. <br/> <br/>7. 물을 마시면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자 <br/> <br/>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식감도 잘 느낄 수 있고 소화에도 좋다. 식사 때 적당한 물을 마시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br/> <br/>8. 저녁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라 <br/> <br/>저녁을 먹은 후에도 TV 등을 보며 음식을 찾는다면 다이어트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저녁 식사 후 양치질을 정성스럽게 하면 식탐의 유혹을 줄일 수 있고 치아 건강에도 좋다. <br/> <br/>9. 간식을 먹는다면 ‘미니 식사’처럼 해라 <br/> <br/>가장 영양가 있는 간식은 지방과 단백질이 적고 복합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좋다. 간식을 통해 살이 찌면 곤란하다. <br/> <br/>10.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자 <br/> <br/>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가 바로 아침식사다. 긴 밤의 휴식 후 우리의 몸은 물질 대사 및 하루 에너지를 아침을 통해 얻는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면 점심, 저녁의 과식을 예방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br/> <br/># 매화 꽃말 <br/> <br/>겨울에 피어나는 꽃, 매화의 꽃말이 새삼 화제다. <br/> <br/>매화의 꽃말은 ‘기품’, ‘품격’이다. 겨울을 견디는 소나무(松), 대나무(竹) 그리고 매화나무(梅)를 세한삼우(歲寒三友)라고 하며, 난초·국화·대나무·매화를 사군자(四君子)라고 한다. 매화는 세한삼우에도 사군자에도 포함되어 선비의 품격을 나타내는 꽃으로 많이 표현돼 왔다. <br/> <br/>매화는 맑고 밝은 꽃과 깊은 꽃향기 때문에 선비나 화가들의 시·서(글)·화(그림)에 늘 등장할 만큼 사랑을 받아왔다. 무엇보다도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워 봄을 먼저 알려주는 꽃으로 사랑받았다. <br/> <br/>지조와 절개 그리고 충성을 상징하는 나무인 매화나무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므로 문인들이 시나 그림의 소재로 즐겨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r/> <br/>#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br/> <br/>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이 소개됐다. <br/> <br/>최근 미국의 건강사이트 프리벤션닷컴은 영국 런던대학의 논문을 토대로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를 소개했다. <br/> <br/>공개된 글에 의하면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에는 덩어리나 혹, 기침, 배변습관, 방광 이상, 지속적인 통증 등이 포함돼 있다. <br/> <br/>덩어리나 혹이 만져진다. 유방이나 다른 부위를 자주 만져 덩어리 존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암 조기발견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br/> <br/>기침이나 쉰 목소리, 기침이 오래 지속된다. 이런 증상은 후두암, 폐암, 갑상선암, 림프종의 가장 흔한 증상이다. <br/> <br/>암 환자들의 18%는 배변 시기나 대변의 양, 크기의 변화를 경험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거나 변이 가늘어지면 대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br/> <br/>소변 습관의 변화나 방광에 통증이 있다면 신장암 및 방광암, 전립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남녀 모두에 해당한다. <br/> <br/>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다. 뼈의 암이나 난소암의 전조일 수도 있다. <br/> <br/>목의 통증.목의 통증이 계속되면 후두암 등의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br/> <br/>체중 감소는 췌장, 위, 폐, 식도암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는데도 운동이나 다이어트 탓으로 돌리면 암 조기발견을 놓칠 수 있다. <br/> <br/>신경 또는 면역 체계의 문제, 식도암이나 위암, 목에 암이 생길 때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진다. <br/> <br/>피가 섞여 나오는 기침은 폐암, 대변에 피가 묻어 있으면 결장, 직장암의 표시일 수 있다. 유두에서 피가 나오면 유방암, 소변의 피는 방광이나 신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 <br/> <br/>점이나 주근깨, 사마귀 등 피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피부암을 예고할 수도 있다. <br/> <br/># 조정석 거미 열애 <br/> <br/>가수 거미와 열애 중인 조정석의 이상형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끈다. <br/> <br/>2일 조정석과 거미는 소속사를 통해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조정석 측 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거미와 조정석이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여 좋은 만남 이어오고 있는 것이 맞다</span>”며 “<span class='quot0'>둘은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활동에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만나고 있다</span>”고 입장을 밝혔다. <br/> <br/>거미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역시 “<span class='quot1'>거미와 조정석이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여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맞다</span>”고 열애설을 인정했다. 이어 “앞으로도 두 사람이 예쁜 만남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가수의 사생활인 만큼 더 이상의 추측보도나 과잉취재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r/> <br/>앞서 조정석은 과거 tvN ‘현장토크쇼-택시’에 출연해 이상형과 관련“<span class='quot2'>전형적인 미인보다 매력 있는 사람이 좋다</span>”라며 2NE1 씨엘을 이상형으로 꼽은 바 있다. <br/> <br/>한편 조정석은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대중들에 눈도장을 찍었으며 영화 ‘역린’, ‘관상’, ‘나의 사랑 나의 신부’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거미는 최근 KBS2 금요 드라마 ‘스파이’OST를 발매했다. <br/> <br/># 개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br/> <br/>개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br/> <br/>2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남 고성의 한 오리농장에서 기르던 개에서 AI 바이러스(항원)가 발견돼 농림축산식품부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br/> <br/>국내에서 AI가 조류에서 포유류인 개로 이종간 감염되는 사례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바 있다. 개에서 AI 항원(H5N8)이나 항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작년 9월이후 처음이다. <br/> <br/>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 AI가 발병한 고성의 오리농장에서 키우던 개 3마리에서도 30일 AI 항원이 검출돼 3마리 모두 살처분·매몰했다"고 밝혔다. <br/> <br/>개에서 AI 바이러스 감염 원인은 오리농장에서 AI로 감염돼 죽은 오리를 이들 개에 먹인 것으로 추정된다. <br/> <br/>주 본부장은 AI의 사람으로의 전염성 가능성과 관련, "세계적으로 H5N8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다"면서 "개가 직접 죽은 오리고기를 먹었다면 먹는 과정에서 코 등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는 임상증상도 없고 자가치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70.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고혈압 환자 전용 건강보험 출시 外  
날짜: 20150203  
기자: 정진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310016191231  
ID: 01100701.201502031001619123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혈압 환자 전용 건강보험 출시 <br/> <br/>한화생명은 고혈압 환자 전용 건강보험인 ‘The따뜻한 고혈압케어건강보험’(사진)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혈압약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간편심사로 가입 가능하며, 주요 성인질환인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말기 신부전증 진단 시 관련 특약을 통해 각 2000만원씩 보장한다. 고령층의 보장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갱신주기도 15년으로 연장하고 보장기간도 100세까지 확대했다. 가입 후 15년 시점까지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으면 건강관리자금으로 200만원도 지급한다. 40세가 주계약과 함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말기신부전증 진단, 암 진단, 암사망특약을 가입금액 1000만원씩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남성 3만2500원, 여성 2만8600원이다. 가입연령은 30∼67세이다.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span class='quot0'>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혈압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외국인 위한 ‘영문 웹사이트’ 서비스 <br/> <br/>AXA다이렉트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외국인이 직접 보험료 산출과 가입이 가능한 ‘글로벌 영문 웹사이트’(사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료 조회에서 가입에 필요한 안내까지 모든 과정이 영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5분이면 한국인의 도움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은 자신의 운전 상황과 성향에 맞는 담보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마일리지·블랙박스 할인 등 서비스 안내도 받게 된다. AXA다이렉트는 영문 상품 설명서와 영어가 가능한 보상 상담 전담자를 배치하는 한편 영어 응대 전담 팀과 긴출 및 사고 접수 전용 전화 (02-3479-3030)도 신설한다. 글로벌 영문 웹사이트는 2일 오픈했으며, 공식 홈페이지 주소(axa.co.kr)에 접속해 우측 상단의 언어 선택 메뉴를 바꿔 주면 이용할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71.txt

제목: 유나이티드제약-서울대, 항암 신약 공동 개발 협약 체결  
날짜: 20150202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210016158366  
ID: 01100701.201502021001615836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지난달 27일 서울대 약학대학 강건욱 교수와 ‘천연물 기원 Polo-like Kinase 1(PLK1) 억제 항암 신약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br/> <br/>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아트홀에서 치러진 협약식에는 강덕영 대표와 유나이티드제약 임직원들, 강건욱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강 교수의 연구 내용 발표와 글로벌개발본부 정원태 전무의 제품화 전략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br/> <br/>이번 협약으로 유나이티드제약과 강 교수는 유방암을 타겟으로 한 천연물 기원  PLK1 억제 항암 신약 연구를 위한 산학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정 개발을 통한 제제 연구 분야,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통한 완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br/> <br/>PLK1은 세포의 유사분열(mitosis)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다. 이 효소를 억제하는 것이 항암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에 따라, 해외 제약사에서 여러 임상 시험을 진행했으나 골수 독성이 나타났다. <br/> <br/>반면 강 교수가 진행 중인 연구는 PLK1이 호르몬 저항성 유방암 세포에서 과발현되는 점에 착안, 유방암을 타겟으로 PLK1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선도 물질을 개발함으로써 골수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인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오는 2021년 제품화가 목표다. <br/> <br/>유방암은 세계적으로 여성 암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2012년에 160만 명이 새로 진단됐고, 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2013년 기준 국내 유방암 환자는 약 13만 명으로, 총 진료비는 약 5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제약산업 시장 조사 전문 업체인 IMS 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방암 치료제의 세계 시장은 연평균 5.8% 성장을 통해 2013년 98억 달러에서 2023년 182억 달러 규모로 10년 간 약 2배로 증가될 전망이다. <br/> <br/>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주관하는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및 최적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며, 대학 측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산업체를 통해 상업화함으로써, 원천 기술을 이용한 제약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유나이티드제약은 현재 개량신약 4개 제품을 출시했으며, 2016년까지 10개 제품의 개량신약을 출시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72.txt

제목: 포스텍 김철홍·임근배교수팀, 고속 광학 해상도 광음향 현미경 개발  
날짜: 20150127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710016074783  
ID: 01100701.201501271001607478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기존 현미경에 비해 수십배 빠른 광음향 현미경 기술이 개발됐다. <br/> <br/>포스텍(포항공대)은 김철홍·임근배 교수팀이 2축 방수 MEMS(미세전자제어기술) 스캐너를 이용, 기존의 광음향 기술보다 넓은 범위의 영상을 스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비해 50배 빠른 광음향 현미경 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술은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를 통해 발표했다. <br/> <br/>광음향은 번개가 치면 천둥소리가 들려오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이 빛을 흡수하면 광에너지가 열로 변하는 단계에서 기체에 음파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이 현상을 이용한 의료 영상 기술은 2016년 1억2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br/> <br/>짧은 펄스의 레이저로 생체 조직을 투사하면 광음향 신호가 나오고, 이 신호는 기존의 초음파기기를 통해 감지된다. 이 기술은 실제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고감도일 뿐 아니라, CT나 MRI처럼 조영제가 따로 필요 없어 더욱 각광받고 있다. <br/> <br/>암 진단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고속의 영상출력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방수가 가능한 2축 MEMS 스캐너를 제작, 이 스캐너가 물 속에서 작동하도록 해 초음파와 레이저 빛을 동시에 반사하도록 해 더욱 선명한 영상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미경의 크기를 크게 줄여 향후 내시경이나 손잡이형 광학 영상 장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br/> <br/>연구팀은 이 연구성과를 이용, 살아있는 쥐 귓속 미세혈관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고해상도 영상과 신진대사 정보 제공을 통해 암 관련 연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양한 조영제를 이용, 생체 내 분자 영상학에 응용하고 수술실에서 실시간으로 생체 조직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환자에게는 편리하며 결과는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73.txt

제목: 올림푸스 NBI 내시경 기술, 美 FDA 승인 획득  
날짜: 20150127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710016071180  
ID: 01100701.201501271001607118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올림푸스가 독자 개발한 NBI(Narrow Band Imaging, 협대역 화상 강화) 내시경 기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FDA 510(K)(시판 전 신고) 승인을 받았다. <br/> <br/>FDA는 NBI 기술이 백색광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조직의 효과적인 생검을 가능케 하고 비근육 침윤성 방광암 환자의 종양 경계 식별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br/> <br/>FDA가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NBI 내시경으로 방광을 검사했을 때 백생광 내시경보다 비근육 침윤성 방광암 병변 발견율이 17% 더 높았고, 추가 종양 발견율은 24%, 추가 상피내암 발견율은 28%가 더 높았다. <br/> <br/>앞으로 NBI는 비뇨기과 의료진과 집도의 모두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조기 검진을 통해 의료비용 감소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올림푸스의 NBI는 보통의 생검 과정처럼 염료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백색광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조직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특허 기술이다. <br/> <br/>일반적으로 내시경 검진 시 백색광(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을 합침)으로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NBI는 혈액에 강하게 흡수되는 청색광과 녹색광만을 사용해 점막 표면의 모세혈관 형태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미세병변을 더 잘 보이도록 한다. <br/> <br/>이를 통해 암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수술 과정에서도 종양 주변부를 더 잘 보이도록 해 정확도를 높인다. 또한 환자에게는 방광 제거와 인공 방광 대치술과 같은 침습 치료를 방지해 치료 과정의 불편을 줄여준다. <br/> <br/>NBI는 비뇨기과 이외에도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및 이비인후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임상 효과가 입증되었다. 앞서 바렛 식도의 검사와 감시검사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았으며, 산부인과와 일반 외과 영역에서도 NBI에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NBI의 비뇨기과적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br/> <br/>한편, 올림푸스는 비뇨기과 의료진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Olympus NBI’을 개발한 바 있다. NBI 기술 개요를 비롯해 28가지의 임상사례 이미지, 백색광과의 비교 이미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동료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메일로 보낼 수도 있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74.txt

제목: 아스텔라스 ‘엑스탄디’ 건강보험 적용···전립선암 환자 부담금 대폭 감소  
날짜: 20150127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710016073206  
ID: 01100701.201501271001607320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한국아스텔라스제약(대표 정해도)의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성분명 엔젤루타마이드)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국내 남성 암 증가율 2위인 전립선암 치료에 새 지평이 열렸다. <br/> <br/>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엑스탄디를 위험분담제(환급형) 대상약제로 지정, 1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보험적용 전 월 투약비용(1박스) 기준 약 400만원에서 보험적용 후 약 16만5000원으로 대폭 줄었다. <br/> <br/>엑스탄디는 전립선암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호르몬 안드로겐의 수용체 신호전달을 차단해 암세포 증식을 막는 약물로, 이전에 도세탁셀(탁소텔 외 다수)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다. <br/> <br/>평균 2개월의 생명연장 효과가 있는 도세탁셀은 말기 암환자에게는 다소 견디기 어려운 부작용과 치료 이후 병이 재발할 경우 추가적인 치료 대안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이에 지난 몇 년간 엑스탄디 외에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카바지탁셀), 얀센의 자이티가(아비라테론) 등 신약이 지속적으로 출시됐다. 이 중 아스텔라스가 가장 먼저 건강보험 적용에 성공함으로써 도세탁셀 이후 투여할 수 있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게 됐다. <br/> <br/>또한 아스텔라스제약은 기존에 도세탁셀 등 항암치료 전력이 없는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에 대한 임상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말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추가 적응증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적응증을 추가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75.txt

제목: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30대 회사원들 인터넷 중고 사이트 암거래  
날짜: 2015012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110016032237  
ID: 01100701.2015012110016032237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br/> <br/>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30대 회사원들 인터넷 중고 사이트 암거래 <br/> <br/>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21일 종암경찰서에서는 담배 수천 갑을 담뱃값 인상을 노리고 인터넷중고시장에 몰래 판매하다 불구속 입건된 30대 회사원들이 검찰에 송치됨을 밝혔다. <br/> <br/>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이나 댓글을 올려 사재기한 담배 3천여 갑을 되팔아 총 19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를 했다. <br/> <br/>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거래장소 주변을 잠복근무하던 중 거래하는 현장을 포착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76.txt

제목: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종재 교수  
날짜: 20150118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810016002924  
ID: 01100701.201501181001600292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은 병리과 김종재(사진) 교수를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에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br/> <br/>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서울대 의대 병리학교실 교수로 부임한 뒤 미국 국립보건원(NIH) 방문교수, 웨인주립대 의과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2011년부터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br/> <br/>아산생명과학연구원은 1990년 아산생명과학연구소로 출범해 2011년 지금의 연구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비뇨기과 김청수 교수가 초대 원장에 취임했다. 암, 뇌신경, 대사질환, 분자영상, 유전체, 줄기세포 6대 분야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선도형 암 연구사업단, 항암선도 기술개발지원센터, 알츠하이머 치매 중개연구 등 국책과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77.txt

제목: 안국약품,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신약 개발 박차  
날짜: 2015011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410015980948  
ID: 01100701.201501141001598094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안국약품이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br/> <br/>안국약품은 인천대학교·바미켐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신약후보물질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br/> <br/>안국약품은 인천대 생명과학부 안순길 교수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약후보물질 발굴 및 최적화 사업을 통해 4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차세대 당뇨병 신약후보물질 발굴에 성공한 바 있다. <br/> <br/>이번 기술이전 협약으로 안국약품이 개발 및 판매권한을 가진다. 인천대와 바미켐은 선급기술료와 마일스톤·로열티 등을 받게 된다. <br/> <br/>안국약품은 기술이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연내 비임상연구(GLP)를 완료하고 임상1상 IND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br/> <br/>또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공동개발 및 라이센싱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br/> <br/>안국약품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차세대 당뇨병 치료제인 ‘11β-HSD1’ 저해제는 기존 당뇨병 치료제의 부작용인 심혈관계 질환, 암 발생 위험 및 체중 증가가 없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지방대사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span>”며 “<span class='quot0'>DDP-4 억제제 이후 혁신적인 당뇨병 치료제로 기대가 되는 약물로 평가받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한편 안국약품은 매년 10%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개량신약, 천연물신약과 더불어 최근 바이오의약품 및 혁신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등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78.txt

제목: 표적 치료·맞춤 장기… 첨단 의료시대 ‘활짝’  
날짜: 20150113  
기자: 서필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310015975637  
ID: 01100701.201501131001597563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전자 연구 성과와 첨단 정보기술(IT)의 결합으로 미래 의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500여개 유전자 변이 발견으로 암 정복의 초석이 마련됐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환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진단하기도 한다. 이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 의학은 현재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KBS1 ‘생로병사의 비밀’은 14일 밤 10시 ‘미래의학 2부 - 2015 첨단 맞춤의료의 현주소’를 방송한다. <br/> <br/> 첨단의학의 발달로 인공장기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더 다양한 장기들이 이식 가능해질 것이라 말한다. <br/>KBS 제공인간의 몸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첨단 기술과 결합하며 ‘첨단 의료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이 중 표적치료제는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라 불린다. 표적치료제란 암세포 자체만을 공격해 주변의 정상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치료제로 부작용이 적고 항암 효과 또한 뛰어나다.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인 암이지만 표적치료의 성공적 치료자들은 암환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게 생존해 있다. 제4의 암 치료로 주목받고 있는 면역치료도 주목할 만하다. 환자 자신의 정상 면역세포를 활용해 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악성 흑색종을 시작으로 폐암, 신장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면역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인간 유전자의 연구 성과로 인해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암 치료의 면면을 살펴본다. <br/> <br/>생명 연장을 실현한 인공장기의 발전상도 돌아본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우리 몸속의 여러 장기 역시 노화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기증자 수는 현저히 부족하다. <br/> <br/>이 불균형 현상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인공장기’다. 심장, 간, 췌장과 같은 인체의 중요한 생체 장기를 대신 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인공장기가 과학기술 발달과 더불어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더 다양한 장기들이 이식 가능해질 것이라 말한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79.txt

제목: 태전그룹, 해독주스 ‘츄링’ 출시  
날짜: 2015011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310015973234  
ID: 01100701.2015011310015973234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태전그룹은 자사 유통 시스템인 오더스테이션을 통해 해독주스 ‘츄링’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br/> <br/>오더스테이션을 통해 약국에 첫 선을 보이는 해독주스 ‘츄링’은 당근, 양배추, 토마토, 콜리플라워 등의 야채를 삶아 익힌 후, 바나나, 사과, 딸기를 넣고 갈아 만든 홈메이드 방식의 건강 음료이다.  <br/> <br/>이 음료에 함유된 채소는 제조 과정에서 분리 가열 방식으로 삶아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 외에 별도 첨가물이나 설탕, 방부제 등이 들어있지 않아, 채소와 과일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 <br/> <br/>원래 해독주스는 미국 암센터에서 투병생활로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된 암환자의 영양소 보충을 위해 개발된 치료식으로 개발돼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디톡스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야채와 과일을 삶고 갈아서 주스로 섭취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태전그룹 오더스테이션 담당자는 “<span class='quot0'>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인 만큼 천연 재료로 만든 해독주스 ‘츄링’으로 성인병 예방과 체질 개선 그리고 영양소 불균형을 해소시켜 수 있는 것이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80.txt

제목: 평균 수명 100세시대 앞둔 현대인 ‘비타민D’에 주목하는 이유  
날짜: 20150113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310015971949  
ID: 01100701.201501131001597194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15년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성 81.4세와 여성 86.7세로 나타났다. 머지않아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앞둔 현대인들은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금연, 운동,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일까. <br/> <br/>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의하면 ‘비타민D’가 4개월간 건강기능식품 분야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비타민D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영양소다. 최근 덴마크의 한 연구진이 만성 비타민D 부족이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연구진이 주목한 비타민D가 결핍되면 생길 수 있는 증상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올바른 섭취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br/> <br/>야외활동 부족한 한국인 93%가 비타민D 결핍···건강보조식품 통한 비타민D 섭취 필수 <br/>비타민D는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필수 영양소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체내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줘 결핵,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면역력 질환을 예방하고, 부족할 경우 팔, 다리, 골반 등의 통증과 심할 경우 척추측만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br/> <br/>음식을 통한 섭취는 불가능하며, 햇빛을 통해서만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월등히 높고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 생활화된 현대인의 경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비타민D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br/> <br/>실제로 한국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93%(성인남성 91%, 여성 96%)가 비타민D 부족을 겪고 있으며, 비타민D 결핍 환자 수는 지난 2007년 1800명에서 2011년 1만6000명으로 무려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햇빛을 쬐는 시간을 늘이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이 우려돼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을 막을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해 보스턴 의대에서 비타민D를 연구하는 마이클 F. 홀릭 박사(Michael F. Holick, Ph.D., M.D)는 “SPF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햇빛으로 들어오는 비타민D가 95% 가까이 줄게 되지만 자외선 차단제 없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암 발병률이 높아져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되, 부족한 만큼의 비타민D는 보충제 형태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일조량 부족한 겨울철, 비타민D 매일 섭취하면 겨울철 6대 만성 질환 예방 가능 <br/>비타민D 관련 지식과 최신 의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비타민D 정보센터(www.vitamindinfo.co.kr)에 의하면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에는 비타민D 부족으로 인한 질병이 증가하며 특히 겨울철 6대 만성 질환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고혈압, 류머티스 관절염, 종양, 골다공증, 당뇨병은 비타민D 가 부족할 경우 악화될 수 있어 비타민D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br/> <br/>겨울철 만성 질환자들의 61%가 비타민 부족 상태이며, 혈중 비타민D의 농도가 20ng/mL 이하인 비타민D 결핍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여름에 비해 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를 꾸준히 섭취하기만 해도 류머티스 관절염의 유발 면역 세포와 염증 유발 인자, 암의 증식을 억제 할뿐만 아니라 뼈의 파괴와 생성을 주관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해 골다공증까지 예방할 수 있다. <br/> <br/>비타민D, 식후복용 및 연령대별 권장 섭취량 맞춰 먹어야 효과 높일 수 있어 <br/>현대인의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D는 어떻게,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비타민D는 공복 상태에서 복용할 경우 50%밖에 흡수가 되지 않아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 중 식사를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을 지정해 매일 동일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개월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최소 400에서 1000IU를 섭취해야 하며, 1세부터 18세까지는 최소 600IU에서 많게는 1000IU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성인의 경우 1500IU에서 2000IU까지 섭취해야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 다만, 비타민D 결핍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일반 권장량의 2-3배를 섭취해 비타민D 혈중 농도를 30ng/mL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비타민D 결핍 상태는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r/> <br/> 다나음 비타민D3 제품군, 왼쪽부터 비타민D3 1000IU, 베이비 D-드롭 500IU, 비타민D3 5000IU. <br/>비타민D 전문기업 ‘다나음’에서 출시한 ‘비타민D3’ 제품군은 각 연령대에 맞춘 제품으로 다양하게 구성됐을 뿐 아니라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복용법을 제시하고 있어 겨울철 건강 관리에 탁월하다. 성인을 위한 ‘하이포텐시 고함량 비타민D3 5000IU’와 1세부터 8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1000IU’ 제품은 연질캡슐 형태로 흡수율을 높였다. <br/> <br/>특히 ‘비타민D3 1000IU’ 제품의 경우 젤리처럼 씹어 먹을 수 있어 평소 알약을 잘 먹지 못하는 아이도 쉽게 섭취할 수 있다. 1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베이비D-드롭 500IU’는 드롭 타입으로 출시돼 이유식이나 과일 등에 떨어뜨려 간편하게 먹일 수 있으며 하루 한 두 방울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D를 섭취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br/> <br/>‘다나음’은 비타민D 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비타민D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올바른 제품을 제공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다나음의 비타민D 제품은 전국 약국에서만 구입 가능하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나음 공식 홈페이지(danau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81.txt

제목: 암 줄기세포 백신치료…新수지상세포치료  
날짜: 2015011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210015965261  
ID: 01100701.201501121001596526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줄기세포의 유전자 변이가 암 발생 원인 중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2일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진이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암은 65%가 암 줄기세포 생성으로 인해 발생했다. 암 줄기세포는 정상 줄기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생겨난다. 또 암 줄기세포는 암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로 복제 또는 분열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많은 암세포를 무작위로 만들어 낸다. <br/> <br/>암 줄기세포는 항암 및 방사선치료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이런 가운데 일본에 암치료 면역요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의 ‘암 줄기세포’를 타겟(Target)으로 하는 면역세포 치료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br/> <br/>센신병원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세포치료 전문가로 지난 2013년부터 DC-AIBac/CSC(암줄기세포특이항원획득면역백신요법: 이하 ‘암 줄기세포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br/> <br/>암줄기세포치료’는 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채취해, NK세포, NK-T세포, 킬러-T세포, 감마ㆍ델타-T세포, 수지상세포의 5종 면역세포를 배양한다. 그 과정에서 성숙한 수지상세포에 암항원 펩티드 ‘WT1’을 인식시킨 치료법을 ‘新수지상세포치료’라고 한다. 또 ‘암줄기세포특이항원’을 추가로 인식시켜 암치료제로 제작해 환자에게 링거하는 요법이다. <br/> <br/>암줄기세포 특이항원은 구라모치 박사가 유명 제약회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항원으로 암치료에 접목해 사용되고 있다. <br/> <br/>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그 동안 5종복합면역요법과 신수지상세포치료를 시행해 왔고, 지난 2013년부터는 암 줄기세포 치료를 중심으로 암치료를 해왔다. 결과는 아주 고무적”이러며 “당원의 암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그 동안의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암치료 유효율이 80%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br/> <br/>이어 “공식적인 임상 통계는 대학 병원과 진행하고 있는 임상을 근거로 오는 5월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지난해 11월 국내 Agent 법인 에스유 바이오 주최로 열린 ‘포기하지 않는 암치료’세미나에서 대표 강연자로 나서 면역치료의 중요성과 암줄기세포치료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82.txt

제목: [WT논평] Diem Brown and the future of ovarian cancer  
날짜: 20141226  
기자: 오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610015877192  
ID: 01100701.201412261001587719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Reality TV star Diem Brown died earlier this month of advanced ovarian cancer after a nearly decade long struggle against the disease. She was only 34 years old. Her courage and refusal to give up was her emblem, and it stands as an inspiration to cancer sufferers everywhere. In my book “The Inner Pulse”, I found many examples of patients who were more effectively able to fight their disease because of their courage and inner strength. Diem was certainly a prime example of this. <br/> <br/>Despite modern medical advances, ovarian cancer is still a big killer of women. By the time it is diagnosed it is usually too late to cure. The main reason is because the ovaries are buried deep within a woman’s body, there are no characteristic symptoms for early ovarian cancer, and no reliable marker to make a doctor suspicious. <br/> <br/>It is not surprising therefore that ovarian cancer has a high death rate; in fact according to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mong American women while ovarian cancer is only the 8th most common cancer with 22,000 new cases diagnosed every year, at the same time it is the 5th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 with over 14,000 deaths. Put another way, though ovarian cancer accounts for only 3% of cancer in women, at the same time it causes more death than any other cancer of the female reproductive system. <br/> <br/>Early symptoms are non-specific and are certainly not reliable indicators. Bloating, abdominal pain, feeling full quickly or loss of appetite, and urinary problems are the most common. <br/> <br/>Help is on the way. Studies of abnormal proteins, known as proteomics, are promising at detecting cancer early and genetic markers are beginning to differentiate who is most at risk. Scientists have also determined that most ovarian cancers originate in the fallopian tubes, which will help guide new imaging studies. <br/> <br/>In terms of treatment, targeted antibodies are being developed to seek out for destruction abnormal proteins on the surface of the ovarian cell. Chemicals known as PARP inhibitors block the mechanism for rapid tumor growth. Genetic treatments will reverse the mutations that lead to the cancer. But that is the future. In the meantime a young woman with ovarian cancer is still faced with the only methods of trying to poison the cancer with chemotherapy before you destroy the body along with it. That’s why the story of Diem Brown is so extraordinary. <br/> <br/>The battle against ovarian cancer has really just begun. Diem Brown was one of the strongest early foot soldiers. <br/> <br/>개발 초기단계에 접어든 난소암 치료법 <br/> <br/>마크 시걸(美 뉴욕대학교 의대 의학 부교수) <br/> <br/>리얼리티 TV 스타인 디엠 브라운이 근 10년에 걸친 난소암 투병 끝에 이번 달 암의 진전으로 사망했다. 그녀의 나이는 불과 34세였다. 그녀의 용기와 포기의 거부는 그녀의 상징이었고 이런 태도는 모든 곳의 암환자들을 격려한다. 필자는 자신의 저서 ‘내부의 맥박’에서 용기 및 내면의 힘 때문에 자신의 질병과 더욱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환자들의 모범 사례 다수를 찾아냈다. 디엠은 분명히 이런 사례 중 으뜸이었다. <br/> <br/>현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난소암은 여전히 여자들의 커다란 사망원인이다. 진단이 내려질 때는 치료의 시기가 너무 늦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 주된 이유는 난소가 여자의 몸속 깊은 곳에 묻혀 있고 초기 난소암에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으며 의사가 의심하도록 만드는 신뢰할 수 있는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br/> <br/>그러므로 난소암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놀라운 일이 못 된다. 실제로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여자들의 경우 난소암은 해마다 2만2000명의 신규환자 진단이 내려지는 발병 빈도 8위의 암인 동시에 암 사망 원인 5위로 1만4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다. 달리 표현하면, 난소암은 여성 암의 불과 3%를 차지하는 동시에 여성 생식기 암 가운데서 사망 원인 1위다. <br/> <br/>초기 증상들은 뚜렷하지 않으며 신뢰할 만한 징표와는 거리가 멀다. 복부팽만, 복통, 빠른 포만감, 식욕 상실, 각종 배뇨 장애가 가장 흔한 증상이다. <br/> <br/>도움의 손길이 오는 중이다. 단백질 유전 정보학이라고 불리는 비정상 단백질 연구가 암의 조기 발견의 유망한 수단이며 유전적 지표들은 발병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난소암이 나팔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으며 이 발견은 새로운 영상 연구의 길잡이에 도움을 줄 것이다. <br/> <br/>치료의 경우 표적이 정해진 항체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항체는 난소 세포 표면의 비정상 단백질을 찾아내서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다. PARP 억제제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종양의 빠른 성장 메커니즘을 차단한다. 유전적 요법이 암으로 발전하는 변이를 되돌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일이다. 그동안은 난소암에 걸린 젊은 여자는 암세포와 더불어 신체를 파괴하기에 앞서 화학요법으로 암에 독의 주입을 시도하는 방법밖에는 여전히 달리 의지할 데가 없다. 디엠 브라운의 이야기가 그토록 남다른 까닭이 거기에 있다. <br/> <br/>난소암과의 싸움은 사실 방금 시작되었다. 디엠 브라운은 가장 강력한 초기 보병 중 한 사람이었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r/> <br/>▲emblem:상징 ▲help is on the way:도움의 손길이 오는 중이다 <br/> <br/>▲proteomics:단백질 유전정보학 inhibitor:억제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83.txt

제목: “레드와인 마시면 장수 도움”  
날짜: 20141223  
기자: 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310015858818  
ID: 01100701.201412231001585881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레드 와인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노화 관련 질환의 발병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스크립스연구소 연구진은 미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폴리페놀계 항산화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이 인간의 장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문을 게재했다. <br/> <br/>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붉은 포도나 땅콩, 콩 등에 많이 들어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암이나 당뇨병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의 발병을 억제하고 장수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논쟁해왔다. <br/> <br/>이에 연구진은 레스베라트롤을 TyrRS라 불리는 세포 핵의 스트레스와 연관된 효소와 결합시키고 이전보다 1000배 적은 양의 레스베라트롤을 실험용 쥐에 투여했다. 레스베라트롤과 TyrRS가 결합되면 세포 치유 기능이 있는 아미노산인 타이로신을 모방하게 되며 이는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PARP-1이라 불리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레드 와인을 적정량 마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박진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84.txt

제목: 정요셉 교수, 日 암 연구 사업 지원금 받아  
날짜: 20141219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910015833518  
ID: 01100701.201412191001583351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원장 송석환)은 이 병원 병리과 정요셉(사진) 교수의 연구 과제가 최근 일본 후쿠오카현(縣)이 시행하는 암 연구 지원금 대상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br/> <br/> 여의도성모병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여러 암 가운데 가장 나쁜 예후를 보이는 췌장암에서 그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암줄기세포 면역마커를 발굴하는 내용의 연구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이 암 연구 지원 사업 공모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연구비를 수여받게 되었다. <br/> <br/> 후쿠오타현의 암 연구 지원금 사업은 재단법인 후쿠오카현 ‘튼튼한 건강 사업단’에서 진행한다. 매년 국제적으로 우수한 암 연구를 뽑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85.txt

제목: 한번 치료에 1억9000만원짜리 세계 최고가 백혈병 치료제 탄생  
날짜: 201412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9112321893  
ID: 01100701.2016062911232189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번 치료받는데 1억9000만원이나 드는 백혈병 치료제가 등장했다. <br/> <br/>세계 최고가 답게 임상실험에서 완치율이 32%에 달했다. <br/> <br/>18일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사인 미국 암젠(Amgen)은 새 백혈병 치료제 가격을 17만8000달러(1억9000만원)로 책정했다고 외신 등이 보도했다.  <br/> <br/>한 외신은 블린사이토(Blincyto)라 불리는 이 치료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약 중에 최고가일 것이라고 했다. <br/> <br/>블린사이토는 주입식 약물로 이를 이용한 한 번의 치료는 두 번의 주입을 기본으로 한다. 한 번의 주입이 8만9000달러(9800만원)로 한 번의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은 총 17만8000달러가 된다. <br/> <br/>블린사이토는 희귀 혈액암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에 쓰이는 치료제로 임상실험 결과 32%의 환자들이 투약 7개월 후 완치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는 성인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평균 3~5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증상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32%의 완치율은 기적에 가깝다.  <br/> <br/>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8월 블린사이토를 '획기적 치료제'로 지정하기도 했다. <br/> <br/>다니엘 버트란드 암젠 대변인은 "블린사이토는 백혈병으로 절망에 빠진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이며 "치료제의 의학적, 경제적, 인본주의적 가치를 고려해 가격을 측정했다"고 했다. <br/> <br/>하지만 업계에선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다. <br/> <br/>이 치료제는 줄기세포이식이나 화학요법 같은 기존의 치료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br/> <br/>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미국에서 약 6020명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그 중 1440명이 사망했다. <br/> <br/>또 환자의 반절 가량은 어린아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86.txt

제목: 한번 치료에 1억9000만원짜리 세계 최고가 백혈병 치료제 탄생  
날짜: 201412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303  
ID: 01100701.20141218100158273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번 치료받는데 1억9000만원이나 드는 백혈병 치료제가 등장했다. <br/> <br/>세계 최고가 답게 임상실험에서 완치율이 32%에 달했다. <br/> <br/>18일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사인 미국 암젠(Amgen)은 새 백혈병 치료제 가격을 17만8000달러(1억9000만원)로 책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br/> <br/>로이터통신은 블린사이토(Blincyto)라 불리는 이 치료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약 중에 최고가일 것이라고 했다. <br/> <br/>블린사이토는 주입식 약물로 이를 이용한 한 번의 치료는 두 번의 주입을 기본으로 한다. 한 번의 주입이 8만9000달러(9800만원)로 한 번의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은 총 17만8000달러가 된다. <br/> <br/>블린사이토는 희귀 혈액암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에 쓰이는 치료제로 임상실험 결과 32%의 환자들이 투약 7개월 후 완치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는 성인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평균 3~5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증상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32%의 완치율은 기적에 가깝다.  <br/> <br/>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8월 블린사이토를 '획기적 치료제'로 지정하기도 했다. <br/> <br/>다니엘 버트란드 암젠 대변인은 "블린사이토는 백혈병으로 절망에 빠진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이며 "치료제의 의학적, 경제적, 인본주의적 가치를 고려해 가격을 측정했다"고 했다. <br/> <br/>하지만 업계에선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다. <br/> <br/>이 치료제는 줄기세포이식이나 화학요법 같은 기존의 치료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br/> <br/>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미국에서 약 6020명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그 중 1440명이 사망했다. <br/> <br/>또 환자의 반절 가량은 어린아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87.txt

제목: 녹십자,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뉴라펙’ 임상결과 입증  
날짜: 2014121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510015798823  
ID: 01100701.201412151001579882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녹십자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열린 2014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SABCS)에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뉴라펙’의 임상결과를 포스터 세션을 통해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호중구감소증(neutropenia)은 혈중 백혈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감염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 혈구세포인 호중구가 항암화학요법, 항암방사선요법 등의 원인으로 정상치 이하로 감소하는 질환이다. <br/> <br/>뉴라펙은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 시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항암보조제다.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 1주기 중 4~6회 투여해야 했던 1세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와 달리 1주기당 1회 투여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녹십자는 지난 8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획득해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br/> <br/>녹십자는 이번 학회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4개 기관에서 진행한 뉴라펙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대조약인 암젠의 뉴라스타와 맹검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비교한 결과 비열등성을 보였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br/> <br/>이와 함께, 뉴라펙의 항암화학요법 1주기 동안 절대호중구수(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최저값 이후 2000/mm³ 이상으로 회복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관찰한 결과, 뉴라펙 투여군은 8.85일, 대조약 투여군은 9.83일로 나타나 회복되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약 하루 짧았다. <br/> <br/>녹십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임상시험을 통해 뉴라펙이 세계적인 초대형 블록버스터인 뉴라스타와 비교해 동등이상의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만큼 학회 참가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녹십자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뉴라펙 개발을 위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받은 바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88.txt

제목: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선정  
날짜: 20141214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410015795798  
ID: 01100701.201412141001579579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함시현·임혜숙·유향숙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여성에게 주는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자로 함시현 숙명여대 화학과 교수, 임혜숙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교수, 유향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명예 연구원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학부문 수상자인 함 교수는 치매, 암, 광우병 등의 원인인 단백질 응집현상의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학부문 임교수는 인터넷 통신망 장비의 부품인 패킷 전달 엔진의 고속화를 위한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구조를 개발해 고속화·소형화에 기여할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89.txt

제목: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학술대회 13일 열려  
날짜: 20141211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110015782862  
ID: 01100701.201412111001578286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이사장 동석호·사진)는 13일 오후 1시30분 경희대 종합강의동 청운관에서 제47회 추계 학술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br/> <br/>이번 학술대회는 ‘건강검진과 암 관리’, ‘IT 시대의 건강검진’이란 주제 하에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한다. 검진센터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새로운 건진 항목 개발, 수진자를 위한 모바일 개인기록 관리 등 검진 세계의 새로운 분야를 소개한다. <br/> <br/>15개 대학병원 건진센터가 참여하는 유전체 관련 공동임상연구의 결과 발표가 특히 눈길을 끈다.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석호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연구의 유전체검사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건진센터의 역할은 건강을 체크해 질병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새로운 검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까지 제안하는 추세로 진화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참가 희망자는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홈페이지(kshep.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02-968-1848)나 이메일(soun0824@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참가비는 사전등록을 한 경우 2만원, 당일등록이면 3만원이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90.txt

제목: [WT논평] Money alone, public or private, won’t eradicate malaria  
날짜: 20141211  
기자: 오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110015783874  
ID: 01100701.201412111001578387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Malaria was once a scourge in the United States, primarily in the rural South, where mosquitoes thrive in a marshy, subtropical climate. The 1920 census counted 3,136 malaria deaths, a relatively larger number then than now. But a concerted effort fought back against the disease. More than 4 million homes were sprayed with DDT, an effective and inexpensive pesticide, by 1949. Two years later,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n called the Office of Malaria Control, declared the disease eradicated in the United States. <br/> <br/>It would have been long gone from the developing world, too, but for the environmental zealotry of Rachel Carson, whose 1962 book “Silent Spring” condemned millions to an early death. Many of the victims were children. Miss Carson claimed that DDT causes cancer, poisons the oceans and wipes out so many birds that springtime would eventually fall silent because there would be no feathered friends to chirp and sing. <br/> <br/>In 1972,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banned DDT in the United States.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dopted regulations effectively prohibiting the funding of international projects if DDT were used. This was good news for the mosquitoes, particularly in Africa, but not for the millions who suffered the fever, the chills, the debilitating weakness and often death. <br/> <br/>J. Gordon Edwards, an entomologist writing in the Journal of American Physicians and Surgeons, calls Miss Carson’s work “a case study in scientific fraud.” <br/> <br/>Indeed, an Audubon Society census shows that bird populations increased in areas where DDT was used, and Miss Carson’s claim that DDT caused bird’s egg shells to develop thin and fragile was shown in the laboratory to have been caused by Carson researchers feeding the birds under study a calcium-deficient diet. “Silent Spring” was rigged. <br/> <br/>The damage persists, though the truth has begun to sink in. The United Nations gave DDT “a clean bill of health” and rescinded a ban on its use. Since then, may subtropical countries, particularly in Africa, have resumed applying the pesticide in homes. <br/> <br/>In his 2004 report, Mr. Edwards lamented that the lack of a worldwide initiative to kill mosquitoes persists to this day. “Instead,” he wrot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re devoted to the search for vaccines, which might or might not be effective.” Several researchers have been convicted of embezzling millions of dollars from malaria-research grants. <br/> <br/>Throwing money at a serious health problem isn’t always the best way to fight disease. Eliminating malaria requires killing bugs, not just writing checks. <br/> <br/>말라리아 퇴치를 막은 “침묵의 봄” 사기 <br/> <br/>말라리아는 한때 미국의 주로 남부 농촌에서 골칫거리였다. 그곳에서는 늪지대와 아열대 기후 속에서 모기가 번성했다. 1920년의 국세조사에서는 말라리아 사망자가 3136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금에 비해 많은 수였다. 그러나 조화를 이룬 노력으로 이 질병을 퇴치했다. 효과적이고 값싼 살충제인 DDT가 1949년까지 400만이 넘는 가구에 살포되었다. 당시 말라리아통제본부라고 불렸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년 뒤 미국에서 이 질병이 박멸되었다고 선언했다. <br/> <br/>레이철 카슨의 환경 분야 열성만 아니었다면 말라리아가 개발도상 세계에서도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녀의 1962년 저서 ‘침묵의 봄’ 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기 사망선고를 내렸다. 희생자의 다수는 어린이들이었다. 카슨은 DDT가 암의 원인이 되며 대양을 독성물질로 오염시키고 너무나 많은 조류를 전멸시켜 지저귀고 노래하는 깃털 달린 친구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결국 봄철이 정적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1972년에 환경보호국은 미국에서 DDT를 금지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DDT가 사용되는 경우에 국제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것은 모기들 특히 아프리카의 모기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으나 고열과 오한 및 신체 쇠약 및 종종 사망에 시달렸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br/> <br/>미국 의사 저널에 기고한 곤충학자 J 고든 에드워즈는 카슨의 연구를 가리켜 “과학적 사기의 연구 사례”라고 부른다. <br/> <br/>실제로 오듀본학회의 현장 조사는 DDT가 사용된 지역에서 조류의 개체수가 증가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DDT가 조류의 알껍데기를 얇고 연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카슨의 주장은 그녀의 연구진이 연구 대상 새들에게 칼슘이 부족한 먹이를 준 것이 원인이란 사실이 연구실에서 밝혀졌다. ‘침묵의 봄’ 은 조작된 것이다. <br/> <br/>진실이 인식되기 시작했으나 사기의 피해는 지속되었다. 유엔은 DDT에 ‘건강증명서’ 를 주었고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 그 이후 아열대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정에서 이 살충제의 사용을 재개했다. <br/> <br/>에드워즈는 자신의 2004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기를 죽이는 계획의 결여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span class='quot0'>대신 수억달러의 돈이 효력이 의문시되는 백신 연구에 바쳐지고 있다.</span>” 일부 연구자들은 말라리아 연구 보조금을 수백만달러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br/> <br/>심각한 보건문제에 돈을 퍼붓는 것이 질병과 싸우는 최선의 방식이 항상되는 것은 아니다. 말라리아를 박멸하는 데는 단지 수표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세균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91.txt

제목: 53억에 산 노벨상 메달, 원주인에게 돌려줘  
날짜: 20141210  
기자: 유태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010015775487  
ID: 01100701.2014121010015775487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경매에서 475만달러(약 53억원)에 팔렸던 노벨상 메달이 원래 주인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br/> <br/>러시아의 철강·통신 재벌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구단주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왼쪽 사진) 회장은 지난 4일 뉴욕 경매에서 미국 과학자 제임스 왓슨(86·오른쪽)의 노벨상 메달을 낙찰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면서 이 메달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우스마노프는 자신의 부친이 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공개하며 암 치료 연구에 밑거름을 제공한 왓슨을 돕기 위해 경매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왓슨은 이 메달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뛰어난 과학자가 생활고에 쫓겨 메달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지켜보기가 괴로웠다”고 말했다. <br/> <br/>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92.txt

제목: 러시아 재벌, "왓슨 도우려 낙찰받았다"며 노벨상 메달 돌려줘  
날짜: 2014121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010015769225  
ID: 01100701.2014121010015769225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해 196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제임스 왓슨(86)이 내다 판 노벨상 메달을 되돌려 받게 됐다. <br/> <br/>20세기 최고의 과학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DNA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했던 왓슨은 지난 2007년 영국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흑인이 백인과 동일한 지적능력을 갖췄다는 전제아래 이뤄지는 서구의 아프리카 정책은 잘못됐다"며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고 말해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br/> <br/>이후 연구논문 도용 논란까지 겹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br/> <br/>견디다 못한 왓슨은 자신의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놓아 475만 달러(53억원)를 받았다. <br/> <br/>노벨상 메달을 주인 품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나선 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을 소유한 러시아 재벌 알리셰르 우스마노프 회장이다. <br/> <br/>영국 인디펜던트지는 9일(현지시간) "우스마노프가 지난 4일 뉴욕 경매에서 왓슨의 노벨상 메달을 낙찰받은 주인공이 자신이라며 왓슨에게 메달을 되돌려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br/> <br/>우스마노프는 자신의 부친이 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공개하며 암 치료 연구에 밑거름을 제공한 왓슨을 도우려고 경매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br/> <br/>우스마노프는 "뛰어난 과학자가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메달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 <br/> <br/>이어 "왓슨은 인류역사의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이라며 "그 업적을 기리는 상은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93.txt

제목: 위암·신장암 원스톱 로봇수술 성공  
날짜: 20141207  
기자: 김태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710015749619  
ID: 01100701.201412071001574961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발전하면서 두 가지 이상의 복합암을 동시에 수술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br/> <br/>삼성서울병원 소화기외과 배재문 교수와 비뇨기과 서성일 교수는 최근 위암, 신장암이 동시에 발생한 환자 A(55·여)씨를 상대로 로봇을 활용한 ‘원스톱’ 수술에 성공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정기 건강검진 당시 내시경 검사에서 초기 위암이 발견됐다. 이후 추가 검사 결과 오른쪽 신장에서 3.6㎝ 크기의 암이 또 확인됐다. <br/> <br/> 배재문 교수·서성일 교수의료진은 논의 끝에 로봇 수술로 두 개의 암을 동시에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배 교수가 환자 복부에 8∼12㎜의 구멍 5곳을 뚫은 뒤 무려 4시간20분이 걸려 위암 부위를 절제했다. 이어 서 교수가 구멍 4곳을 추가로 뚫은 다음 1시간50분 동안 신장암 부위를 절제했다. 총 6시간10분에 걸친 대수술 후 A씨는 건강을 되찾았다. 병원 측은 “6개월 동안 세심하게 관찰한 결과 재발 등 위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r/> <br/>배 교수와 서 교수는 이번 성공을 계기로 로봇 수술의 다양한 활용법과 수술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암에 대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면 아무래도 수술 자체에 따른 위험 요소를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또 시간과 비용 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이다. <br/> <br/>A씨의 경우 위암과 신장암 수술을 할 때 로봇 팔의 진입을 위해 각기 구멍을 뚫어야 했다. 하지만 향후 수술 기술이 발전해 진입 부위를 공유하면 미용적 측면 등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교수와 서 교수는 “<span class='quot0'>초기 암 환자에게는 가급적 최소 침습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두 교수는 이번 수술 경과를 대한위암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br/> <br/>김태훈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94.txt

제목: 데치면 좋은 채소, 데쳐 먹었을 때 영양소 흡수 높아  
날짜: 20141203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310015728084  
ID: 01100701.2014120310015728084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데치면 좋은 채소 게시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 <br/>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데치면 좋은 채소'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게재됐다. <br/> <br/>공개된 게시글에 따르면 데치면 좋은 채소에는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우엉, 시금치, 표고버섯 등이 꼽혔다. <br/> <br/>채소를 데치면 생으로 먹을 때 보다 많은 양의 채소를 먹을 수 있다. 또한 질소비료를 사용하여 생긴 질산염은 데쳤을 때 50% 이상 감소한다. <br/> <br/>이 채소들은 데쳤을 때 숙성과정이나 조리과정, 다른 재료와의 배합과정에서으로 생으로 먹었을때에는 얻지 못하는 영양소를 우리 몸에 공급한다. 성분들이 농축되면서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 <br/> <br/>당근의 영양소 중 하나인 베타카로틴은 생으로 먹을 때 체내에 10% 밖에 흡수되지 않지만 익혀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지며, 브로콜리에 있는 암을 예방하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도 데치는 과정에서 농축되면서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 <br/> <br/>데치면 좋은 채소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한데 이를 데쳐 먹으면 조리 과정에서 나쁜 이물질이 제거되고 다른 재료와 배합되면서 좋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 <br/> <br/>반면 생으로 먹어야 좋은 채소에는 피망, 오이, 양상추, 마늘, 마, 토마토, 무 등이 꼽히고 있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95.txt

제목: 초겨울 뇌졸중 경보, '극심한 온도차 조심하세요..준비운동 필수'  
날짜: 2014113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3010015700938  
ID: 01100701.201411301001570093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초겨울 뇌졸중 경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br/> <br/>최근 내린 비와 함께 온도가 떨어지며 초겨울 뇌졸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br/> <br/>뇌졸중은 심장에서 뇌로 연결되는 혈관에서 생기는 병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구분된다. 60세 이상 사망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무서우 병이다. <br/> <br/>먼저 뇌출혈은 약해진 혈관벽이 높은 혈압을 이기지 못한 채 터지는 병이다. 뇌경색은 혈관이 좁아지다 결국 막히는 병이다 뇌경색은 콜레스트롤 등이 이유다. <br/> <br/>이러한 뇌졸중은 한국 사망 원인 가운데 암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초겨울 뇌졸중 경보가 일어나는 것은 집안과 밖의 기온차가 극심한 이유가 있다. 급격하게 낮아지는 기온에서 무리하게 운동하고 힘쓰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고 높아지는 것. 따라서 초겨울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비운동이 필수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96.txt

제목: 전자담배 발암물질 '담배 끊을려고 피다가 암걸리게 생겼네' 일반담배보다 10배 많은 발암물질  
날짜: 2014112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810015697645  
ID: 01100701.201411281001569764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자담배 발암물질전자담배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br/> <br/>전자담배 발암물질이 일반담배 보다 최대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일본 TBS방송은 일국립보건의료과학원 연구팀이 일본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돼 있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전자담배 증기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됐다고 한다.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연구팀장인 구누기타 나오키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전자담배의 액상을 가열하면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는 일반 담배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최대 10배가 많았다</span>”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일반환경에서 새집증후군 문제로도 잘 알려진 발암성 물질로 알려졌다. <br/> <br/>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특정 향 등이 첨가된 액체를 가열해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일반 담배와 달리 냄새가 나지 않는다.  <br/> <br/>이에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담배가 해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br/>앞서 지난 8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가 태아와 청년층에 유해하다고 경고하며 각국 정부가 전자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한 법적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br/> <br/>또한 지난 18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br/> <br/>한편 28일 오후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담뱃값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폭을 정부가 발표한 2000원으로 요구해 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00~1500원 인상을 주장해 왔다. <br/> <br/>앞서 지난 9월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최초 발표한 바 있다. 유성엽 수석부의장은 "합의해도 (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할건데"라며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을 암시했다. <br/> <br/>전자담배 발암물질 담뱃값 2000원 인상 잠정합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발암물질, 충격” “전자담배 발암물질 담뱃값 2000원 인상 잠정합의 , 이럴줄은 몰랐네” “전자담배 발암물질 담뱃값 2000원 인상 잠정합의 , 담배란 담배는 백해무익하구나”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97.txt

제목: 대한림프부종학회 새 회장에 김이수 교수  
날짜: 2014112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610015680399  
ID: 01100701.201411261001568039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김이수(사진) 한림대 성심병원 유방내분비암센터장이 최근 열린 대한림프부종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br/> <br/>26일 한림대 성심병원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외과학교실 주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유방암 치료의 권위자로 꼽힌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교환교수 자격으로 연수를 했다. 미국암연구학회(AACR) 회원으로 매년 학회에 참석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외 유수 학술지의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것은 물론 유방암 관련 학회의 위원장과 이사를 역임했고, 2013년에는 한국유방암학회 부회장으로 뽑혔다. <br/> <br/>대한림프부종학회는 2004년 11월 림프부종과 관련된 기초 및 임상적 연구와 림프부종의 예방, 교육, 진단 및 치료에 관심이 있는 의료인들이 모여 결성했다. 매년 2회의 심포지엄과 정기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br/> <br/>림프부종은 림프계 손상이나 기능 이상에 의한 림프액 수송 능력저하에 의해 조직에 과도한 부종과 단백물질 축적, 염증 및 섬유화가 초래되는 만성질환이다. 특히 암 치료 후 발생하는 이차성 림프부종은 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br/> <br/>김 센터장은 “<span class='quot0'>2차성 림프부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암 중 하나인 유방암 환자들을 매일 현장에서 만나 치료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림프부종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환자와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98.txt

제목: 아베종양내과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치료율 보니???  
날짜: 20141120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010015641857  
ID: 01100701.201411201001564185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체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종양과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겼을 때 이를 인식하고, T-세포에 공격을 요청하는 손가락 또는 나뭇가지 모양의 세포인 수지상세포가 세간의 이목을 모은 바 있다. <br/> <br/>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개별화의료의 전략적 전개’를 주제로 열린 제19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수지상세포를 한 단계 발전시킨 ‘다가(多價)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법’을 발표했다. <br/> <br/>아베 박사의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간단히 요약하면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항원)을 찾아내고 추가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 치료법과는 맞춤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br/> <br/>아베 박사는 표준치료(수술· 항암제· 방사선치료)를 할 수 없는 전이· 재발암 환자에게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적용했고, 치료는 2주에 1번씩 총 6회(1싸이클)로 했으며 효과판정은 혈액검사와 영상진단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br/> <br/>다가 신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 치료 결과, 진행성 폐암환자 22중 15명(68.2%)에서 효과가 있었고, 진행성 대장암환자 32명 중 19명(59.4%)에서 효과와 진행성 췌장암환자 42명 중 18명(42.9%)에서 치료효과를 얻었다. <br/> <br/>치료는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 종양마커 종합검사 후 환자의 수지상세포에 평균 5개의 펩타이드를 추가 사용했다. 사용된 펩타이드는 써바이빈· MAGE-A3· NY-ESO-1· GV1001· WT1· MUC1· CEA· CA125 등이며 아베종양내과는 암세포 인지능력을 가진 다양한 항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br/> <br/>GV1001은 유럽에서는 이미 특정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펩타이드(항원)이며, 한국에서는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식 허가한 췌장암 치료제다. 아베 박사는 췌장암 이외에서도 GV1001이 효과가 있어 일본의 임상시험계획(IND)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추가로 임상실험 중인데, 이 임상실험은 폐암과 위암· 췌장암· 유방암 등 암종별 환자 40명씩 총 16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주)선진바이오텍이 공동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br/> <br/>인체에서 암세포 살상을 담당하는 것은 킬러T세포다. 이 킬러T세포는 면역세포의 사령탑인 수지상세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수지상세포는 암세포의 표식인 항원을 기억해 킬러T세포에게 암세포의 정보를 전달· 암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이 암을 치료하게 된다. <br/> <br/>이 같은 획득면역세포인 수지상세포와 그 역할을 발견한 랄프 슈타인만 박사는 지난 201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 일본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는 슈타인만 박사가 주축이 된 연구회 소속으로 슈타인만 박사의 독자적인 지식을 전수받아 기존의 단순한 수지상세포 치료법이 아닌 항암작용이 더욱 강력한 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법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br/> <br/>하지만 인체에 존재하는 수지상세포는 1% 미만이고 정맥혈액에는 0.1% 미만이라, 소량 채혈해서는 수지상세포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임파구만 배양해 치료하는 수준이어서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었다. <br/> <br/>또 기존 치료는 성분채혈에 약 5,000ml가 필요했고 2~3시간이 소요돼 환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사용할 수 있는 펩타이드(항원)는 1~2 종류 정도였으며 단쇄(單鎖) 펩타이드라 치료효과도 부족했다. 또 동결보관 후 해빙해 치료에 사용하면 물리적 결합된 항원이 떨어지고 정맥주사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br/> <br/>아베 박사는 정맥혈에 있는 8~11%의 단구를 분리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량인 약 25ml 채혈만으로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가 가능하다는데 착안했다. 아베 박사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후 여러 종류의 개인 맞춤형 펩타이드가 추가로 사용되며, 사용된 펩타이드는 장쇄(長鎖)라 항암 작용기간이 길며 암세포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림프절에 피하주사로 한다. <br/> <br/>아베종양내과는 지난 7월 이 치료법으로 특허(특허 제5577472호)를 받기도 했다. 암세포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같은 사람의 같은 암세포라 해도 표면에 제시된 항원(암표시)가 틀리므로 그 다양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펩타이드와 일치되는 킬러T세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베 박사의 주장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499.txt

제목: [영양칼럼] 똑똑한 비타민 이야기\_07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주는 비타민 E  
날짜: 20141120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010015639453  
ID: 01100701.201411201001563945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젊음· 건강· 힘을 상징하는 항산화 비타민E!  <br/>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인정한 비타민E의 기능성 내용은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이다. 즉 항산화 효과가 있어 우리 몸을 노화시키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다른 비타민들도 그렇듯이 비타민E도 식약청에서 인정한 기능 이외에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통해 건강을 지켜주는데 비타민E는 어떤 효과들이 보고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br/> <br/>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비타민E의 작용은 아주 중요하다. 과산화지질에 의한 피해는 간· 폐 등 모든 곳에 미치고 암을 유발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E는 혈액순환 장애에서 오는 어깨 결림· 두통· 치질· 동상· 냉증 등의 증상을 개선한다. <br/> <br/>또 호로몬의 균형이 무너져 생기는 갱년기 장애의 치료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노화를 방지하므로 충분히 공급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br/> <br/>비타민E는 다른 말로 토코페롤(tocopherol)이라고도 부른다. 토코페롤은 무슨 뜻 일까? 토코페롤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합성어인데 자식 또는 후손을 뜻하는 “tocos”, 힘을 준다는 뜻의 “phero”· 알코올을 뜻하는 “ol”을 합쳐서 만든 단어이다. 즉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알코올성 물질이라는 뜻이다. <br/> <br/>비타민E가 부족하면 여자에게는 불임· 유산· 대하증세가 나타나고 남자는 정자 형성 기능이 감소하여 체내 정자의 수가 부족해진다고 한다.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의 소화기내과 과장인 Arum J. Sanyal 박사에 의하면 알코올 섭취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 질환의 치료에 비타민E가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br/> <br/>소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지만 비타민E가 간질환 개선에 뚜렷하게 도움이 되었으며 부족하지 않게 적절히 섭취하면 간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다. 또한 비타민E 함유제제는 말초 혈행 장애와 갱년기 시 어깨와 목결힘, 수족저림, 수족냉증의 증상을 완화해 준다고 한다. 비타민E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해 혈행을 개선시켜 준다고 한다.  <br/> <br/>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내에 쌓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E !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은 3~400 ㎎ α-TE이다. 과잉 섭취 되어 체내에 쌓였을 경우에 피부가려움증· 홍조· 부종· 복부팽만감· 근력저하· 피로감 증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br/> <br/>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대표적 식품은 식물성 유지(해바라기씨· 유채씨 등)와 식물성 유지로 만든 제품(마가린· 쇼트닝)이다. 기름기 있는 생선· 갑각류· 곡류· 녹색채소· 동물성 기름 등에는 소량 들어 있다.  <br/> <br/>이렇듯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E 섭취를 급원 식품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은 똑똑한 비타민 스페쉬의 5060 포세이돈 포 맨· 5060 데메테르 포 우먼 제품을 추천한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멀티 비타민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좋은 편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00.txt

제목: 항균물비누에 함유된 '트리클로산' 간섬유화·암 유발 위험  
날짜: 20141119  
기자: grl87@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000023  
ID: 01100701.2014111910000002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항균 물비누, 바디워시, 치약 등에 많이 쓰이는 항균제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liver fibrosis)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다.1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의 화학과·생화학과·약리학과의 로버트 튜키 교수와 UC 데이비스의 브루스 해먹 교수 등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논문을 미국 학술원회보(PNAS)에 게재했다.연구진은 "6개월간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는 화학물질에 의해 유도된 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고, 종양 크기도 더 컸다"며 "이 노출 기간은 사람으로 따지면 약 18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연구진은 또 트리클로산 노출로 쥐의 발병이 늘어나는 기전을 검토한 결과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튜키 교수는 "환경에서 채취된 샘플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소비자용 제품에서 이 물질이 널리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물질의 사용에 따른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데 쥐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간 독성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유사한 작용을 하는 다른 화합물과 함께 트리클로산에 노출될 때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리클로산은 미국의 강에서 가장 흔히 검출되는 화합물 7개 중 하나이며, 수유를 하는 산부의 모유 중 97%, 검사 대상자 중 75%의 소변에서 이 물질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해먹 교수는 "손을 씻는 데 사용되는 물비누처럼 트리클로산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에 따른 이득은 적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트리클로산의 인체·환경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그는 "다만 치약은 트리클로산 사용량이 적은데다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므로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FDA는 최근 수년간 트리클로산이 호르몬 분비 장애를 일으키고 근수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사용을 제한해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이가람 기자 grl8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01.txt

제목: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어떤 제품인가 봤더니... '충격'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2036  
ID: 01100701.201411191001563203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어떤 제품인가 봤더니... '충격'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향균 물비누와 바디워시, 치약 등에 사용되는 향균제인 '트리클로산'이 간 섬유화 암을 일으킨다고 전해졌다. <br/> <br/>이 매체에 따르면 한 연구진은 쥐와 함께 사람에게도 간 독성 위험이 있다고 말해 주의가 요구된다.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 실험을 통해 알려졌다. <br/> <br/>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6개월 동안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가 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이럴수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뭘 쓰라는거야?",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죄다 암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02.txt

제목: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트리클로산 어디에 사용되나 봤더니... '이럴수가'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2374  
ID: 01100701.201411191001563237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트리클로산 어디에 사용되나 봤더니... '이럴수가'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6개월 동안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가 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연구진은 "쥐의 트리클로산 노출기간인 반년은 사람에게는 약 18년에 해당한다며 인간도 마찬가지로 간섬유화나 암이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이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트리클로산이 호르몬 분비 장애나 근 수축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한편 '트리클로산'은 향균 물비누와 바디워시, 치약 등에 사용되는 향균제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충격이네",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쓸게 없네",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물로만 해야 하는거?"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03.txt

제목: '트리클로산'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우리가 매일쓰는 그 제품들 속에 암유발 유해물질 가득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4440  
ID: 01100701.201411191001563444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 <br/> <br/>향균제인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br/> <br/> <br/>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의과대학 연구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학술원회보를 통해 "비누와 치약 등에 함유된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br/> <br/> <br/>논문 내용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화학물질에 의해 간 종양에 걸리 확률이 더 높았고 종양의 크기도 더 컸다. 연구진은 트리클로산이 다량 함유된 물비누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유했고 치약은 트리클로산 사용량이 적어 그냥 사용해도 좋다고 전했다. <br/> <br/> <br/>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수년간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암 유발 위험 등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자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br/> <br/> <br/>트리클로산은 주로 향균 물비누, 바디워시, 치약 등에 많이 쓰이는 화합물이다. 수유를 하는 산부의 모유 중 97%, 검사 대상자 중 75%의 소변에서 이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실생활에 흔히 쓰이는 화합물중 하나이다. <br/> <br/> <br/>한편, 트리클로산은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유해성이 지적된 바 있다. <br/>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헐",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그럼 뭘로 씻어".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천연 비누 만들어쓰라는건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안돼 이럴수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믿을게 없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04.txt

제목: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향균제, 어디에 들어있나 봤더니 '충격'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2626  
ID: 01100701.201411191001563262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향균제, 어디에 들어있나 봤더니 '충격'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br/> <br/>항균 물비누나 치약 제품에 많이 쓰이는 항균제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항균 물비누와 바디워시 등에 쓰이는 항균제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국 학술원 회보에 실었다. <br/> <br/>논문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는 화학물질에 의해 유도된 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고, 종양 크기도 더 컸다. <br/> <br/>연구진은 트리클로산 노출로 쥐의 발병이 늘어나는 과정을 검토한 결과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br/> <br/>연구진은 특히 유사한 작용을 하는 다른 화합물과 함께 트리클로산에 노출될 때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몇 년 동안 트리클로산이 호르몬 분비 장애를 일으키고 근수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r/> <br/>한편 트리클로산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국정감사때 치약 함유량과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물질로 알려졌다.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에 네티즌들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치약 비누 조심히 사야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이럴수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잘 확인해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05.txt

제목: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물비누 바디워시 등 항균제가 원인이라고? '소비자 충격'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6249  
ID: 01100701.201411191001563624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br/>비누와 바디워시, 치약 등에 함유된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안겼다. <br/> <br/>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항균 물비누와 바디워시 등에 쓰이는 항균제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 암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국 학술원 회보에 실었다. <br/> <br/>논문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화학물질에 의해 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그 크기도 컸다. <br/> <br/>연구진은 트리클로산 노출로 쥐의 발병이 늘어나는 과정을 검토한 결과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br/> <br/>'트리클로산'이 함유된 비누와 바디워시, 치약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수차례 노출되는 필수 생활용품인 만큼 이번 소식으로 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br/> <br/>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몇 년 동안 트리클로산이 호르몬 분비 장애를 일으키고 근수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항균제 소식에 누리꾼들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헐 씻지도 못하니?"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항균제가 그렇게 안 좋나?"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충격이다"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항균제 조심해야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06.txt

제목: 고대안암병원, 인술(仁術)도 한류…몽골인 간질환 무료검진  
날짜: 2014111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810015624214  
ID: 01100701.201411181001562421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몽골인의 건강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br/>  <br/>18일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지난달과 이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간질환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br/> <br/>이번 간질환 검진은 육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간질환 등 소화기질환, 심혈관계 질환이 상대적으로 많은 몽골환자들을 위해 안암병원이 몽골사회복지센터와 함께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 몽골 현지방송국에서도 취재팀을 파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br/> <br/>특히 간질환은 몽골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유병률과 위험성이 매우 높아 적극적인 조기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몽골의 의료수준이 낙후되어 치료는 물론 조기발견을 위한 진료조차도 쉽지 않아 간질환 조기검진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br/> <br/>검사결과는 영상의학과 김윤환 교수를 비롯해 진단검사의학과 조윤정 교수, 소화기센터 서연석 교수 등 전문 의료진이 대거 참여해 판독 및 진단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안암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도울 예정이다. <br/> <br/>안암병원에서 지난해에만 치료받기 위해 직접 찾은 몽골환자만 6000여명이 넘는다. 특히, 심혈관계질환, 중증간질환, 암 수술 등 전문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서부터 개인맞춤형 건강검진이나, 일반 질환 치료를 원하는 일반 환자까지 안암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앞으로 몽골 환자를 위한 통역과 맞춤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r/> <br/>안암병원의 몽골에 대한 애정과 의료지원은 남다르다. 현지에서 이식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이 직접 몽골을 찾아 이식수술을 집도하고 관련 의료술기과 노하우를 의료진에 전수하기도 했다. <br/> <br/>뿐만 아니라 성형외과에서는 구순구개열 아기를 안암병원으로 데려와 예쁜 얼굴을 찾아주기도 하고, 산부인과에서는 난산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세쌍둥이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도 했다. 심혈관센터는 심근경색으로 위독했던 환자를 데려와 응급시술로 생명을 구하기도 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인술과 나눔 및 공헌활동으로 훈훈한 감동을 전해 왔다. <br/> <br/>지난 8월에는 김영훈 안암병원장이 직접 몽골을 찾아 총리를 비롯한 보건의료 당국자들과 만나 몽골 최초로 공공 제세동기를 기증하고,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등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자문활동을 펼쳤다. 또 현지 의료진에게 세계 톱클래스로 인정받고 있는 인공심장박동기 이식술을 전수하고 심혈관시술 및 치료를 받는 몽골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몽골을 방문해 직접 진료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br/> <br/>김영훈 원장은 “<span class='quot0'>낙후된 의료환경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통 받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 힘을 보탤 계획</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단순한 의료지원 및 봉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 의료환경 및 시스템 개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07.txt

제목: 암 면역반응 방해 단백질 발견… 타깃 치료 가능  
날짜: 20141117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8696  
ID: 01100701.201411171001561869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암 환자의 면역반응을 이용해 스스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면역치료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암세포 주변에는 면역반응을 방해하는 환경이 형성돼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뼈 생성 관련 단백질을 차단하면 치료 효과가 증진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효율 증진이 기대된다. <br/> <br/>1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서울대 약대 강창율(사진) 교수와 김은경 박사는 암세포가 분비하는 뼈 생성 관련 단백질인 ‘오스테오폰틴’(OPN)이 암세포 제거를 방해하는 미분화 골수성 세포의 생성과 증식을 유도하는 원리를 확인했다. <br/> <br/>OPN은 골격을 구성하는 주요한 인 단백질로, 주로 뼈의 재형성에 관여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 감염과 부상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암세포에서 분비되기도 한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0'>연구를 통해 OPN이 암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항암 면역반응을 무력화시키는 핵심인 미분화 골수성 세포의 축적을 촉진해 체내 암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span>”고 밝혔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0'>향후 암 치료제에 OPN을 겨냥한 항체나 저해제를 이용하면 면역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08.txt

제목: 소설가 이외수, 故 김자옥 애도 '마왕이어 공주님까지'  
날짜: 2014111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228  
ID: 01100701.2014111610015608228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소설가 이외수가 故 김자옥의 별세 소식에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br/> <br/>이외수는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마왕님(故 신해철)에 이어 공주님도 가셨군요. 모두 이 땅에 오래 계셔야 할 정의롭고 아름답고 선량하신 분들이시지요.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br/> <br/>김자옥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향년 63세로 폐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유족으로 남편이자 가수 오승근, 아들과 딸이 있다. 김자옥은 2008년 대장암으로 한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얼마 전 폐와 임파선 등에 암이 전이돼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고인의 빈소는 서울강남성모병원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예정이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다양한 드라마에서 활동해왔다. 남편은 가수 오승근이다. 특히 김자옥은 1990년 대 도도한 공주 캐릭터로 혁신적인 중견배우 캐릭터를 구축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09.txt

제목: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선암' 일으키는 유전자 따로 있었나? 누리꾼 '충격'  
날짜: 201411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510015606410  
ID: 01100701.201411151001560641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인 폐암 유형 1위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선암' 일으키는 유전자 따로 있었나? 누리꾼 '충격' <br/> <br/>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선암'을 재발시키는 유전자가 발견됐다. <br/> <br/>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폐암센터 장세진, 김형렬 교수팀은 지난 13일 한양대의대, 서울대 자연과학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폐절제술을 받은 폐선암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유전체를 분석해왔다. <br/> <br/>연구 결과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유형인 폐선암의 재발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처음으로 밝혀져 폐암 재발 예방의 실마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br/> <br/>실험 결과에 따르면 RB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한국인 폐암 유형 1위로 수술 후 조기 폐암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연구결과 RB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가 폐암의 재발없이 지낼 확률은 20%로, RB 유전자에 변이가 없는 환자의 60%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br/> <br/>폐암은 국내 사망률 1위의 암으로 최근에는 폐의 선(腺)세포에 생기는 '선암'이 국내 폐암 환자 중 40%에 달한다. 조기 폐선암의 경우 1기라 할지라도 10~20%는 수술 후 재발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br/> <br/>누리꾼들은 "폐암 유형 1위, 선암 무섭네"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역시 유전성이 강하군"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10.txt

제목: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폐선암' 재발유전자 발견.. 완치 비법 되나?  
날짜: 201411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510015607162  
ID: 01100701.201411151001560716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국인 폐암 유형 1위한국인 폐암 유형 1위인 폐선암을 재발시키는 유전자가 발견됐다. <br/> <br/>한국인 폐암 유형 1위는 폐선암으로, 국내 폐암 환자의 40%에 달한다. <br/> <br/>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폐암센터 장세진, 김형렬 교수팀은 지난 13일 한양대의대, 서울대 자연과학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폐절제술을 받은 폐선암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유전체를 분석해왔다. <br/> <br/>연구결과 RB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가 폐암의 재발없이 지낼 확률은 20%로, RB 유전자에 변이가 없는 환자의 60%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br/> <br/>이와 같은 돌연변이 유전자의 발견으로 폐선암의 재발 예측과 표적 약물치료 등 폐선암의 맞춤형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r/> <br/>누리꾼들은 "폐암 유형 1위, 선암 무섭네"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역시 유전성이 강하군"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11.txt

제목: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선암' 재발 유전자 발견... 치료법 발견되나?  
날짜: 201411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510015606970  
ID: 01100701.201411151001560697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인 폐암 유형 1위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선암' 재발 유전자 발견... 치료법 발견되나? <br/> <br/>한국인 폐암 유형 1위인 폐선암을 재발시키는 유전자가 발견돼 눈길을 끈다. <br/> <br/>한국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폐암은 폐의 선세포에 생기는 선암 발병으로 국내 폐암 환자의 4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br/> <br/>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폐암센터 장세진, 김형렬 교수팀은 지난 13일 한양대의대, 서울대 자연과학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폐절제술을 받은 폐선암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유전체를 분석해왔다. <br/> <br/>연구 결과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유형인 폐선암의 재발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처음으로 밝혀져 폐암 재발 예방의 실마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br/> <br/>연구결과 RB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가 폐암의 재발없이 지낼 확률은 20%로, RB 유전자에 변이가 없는 환자의 60%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br/> <br/>이와 같은 돌연변이 유전자의 발견으로 폐선암의 재발 예측과 표적 약물치료 등 폐선암의 맞춤형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12.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커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날짜: 20141114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410015599367  
ID: 01100701.201411141001559936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커피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사람이 하루 동안 마시는 커피 양이 유전자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은 ‘분자정신의학’에 발표한 논문에서 커피를 마시는 12만명의 유전자 구성을 조사한 기존 연구 28건을 분석한 결과, 커피 섭취와 연관된 유전자 6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커피를 잘 마시는 사람은 남과는 다른 유전자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커피를 마시지 않거나 못 마시는 사람도 일정 기간 꾸준히 커피를 마시면 몸이 적응하기도 한다. 커피의 약리작용 성분에 몸이 적응하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br/> <br/>그렇다면 커피에는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었기에 몸에 좋다고도 하고 나쁘다고도 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카페인이다. 카페인은 푸린 계열의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커피나 코코아·차 등의 식물에 골고루 함유돼 있다. 카페인을 흡수하면 45분 이내에 혈액으로 유입돼 간에서 대사가 이뤄진다. 카페인 다음으로 많이 함유된 성분은 커피콩의 지방성분인 디테르펜이다. 디테르펜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양을 높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수록 안 좋은 성분 가운데 하나다. 더운물에 직접 닿으면 쉽게 추출되지만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대부분 걸러진다. <br/> <br/>◆ 에스프레소·아메리카노, 다이어트에도 '好好' <br/> <br/>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메리카노 한 잔의 열량은 5kcal 미만이다. ▲카푸치노 120kcal ▲카페모카 310kcal ▲프라푸치노 400kcal 열량인데, 우유와 설탕을 넣을수록 열량은 높아진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좋은 커피는 검은색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기초대사율은 물론 에너지 소비, 지방 산화, 지방 분해, 열 발생 활동 등을 높이고 이런 모든 작용이 체중 감소로 이어진다. <br/> <br/>뿐만 아니라 커피는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 연구 결과, 스트레스나 유해 자극에 의해 기억력이 교란될 때 커피를 마시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페인에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인지 능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포르투갈 코임브라대 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에는 인지 능력을 높이는 효과뿐 아니라 손상된 인지 능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만성 스트레스, 주의력 결핍증, 과잉행동장애, 조기 발작증, 알코올성 기억력 상실증에도 커피가 유용한 효과를 발휘한다. <br/> <br/>또 커피는 유방암이나 결장직장암·전립샘암·난소암·췌장암·간경화·간세포성암·위암·신장암·방광암·뇌종양·피부암·구강암·식도암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과 커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무척 방대한데, 이 연구들에 따르면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과 디테르펜·커피산·폴리페놀·아로마·헤테로고리 화합물 등 여러 생물학적 활동 성분이 증상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화크산틴 계열의 카페인은 기관지 확장제인 테오필린 성분을 함유해 폐 기능을 높여 천식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크산틴 산화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으로 통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br/> <br/>◆ 하루 4잔이상 마시면 심·뇌혈관에 부정적 <br/> <br/>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면 나쁘게 작용하기도 한다. 커피도 마찬가지다. 커피를 과다 섭취하면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나 심장부정맥, 뇌졸중 등 심·뇌혈관계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하는데,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커피 한 잔에는 100mg 안팎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으며, 성인이 하루 섭취 권고량인 400mg을 초과해 섭취하면, 심·뇌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br/> <br/>커피 한 잔을 마시면 4~6mg의 칼슘 손실이 생기는데, 이 경우 골다공증과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폐경기 여성이나 무리하게 다이어트하는 여성이 특히 이런 질병에 취약한데, 그럴수록 우유나 채소를 통해 적절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아직 논쟁 중인 사안이지만, 커피 과다 섭취가 신장결석 형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루 200mg 이상 커피를 섭취할 경우 급성 이뇨 작용이 발생하고 체내 수분이 감소해 칼슘 배출을 유도하면서 신장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 성인들, 쌀밥보다 커피 더 찾는다 <br/> <br/>회사원 김모(30·여)씨는 지난달 커피값으로만 20만원을 넘게 썼다. 하루 3~4잔씩 습관처럼 마신 결과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커피는 음료라기보다 주식에 가깝다</span>”고 말한다. 한국인의 주식이 밥에서 커피로 바뀔 지경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들이 일주일에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은 커피로 나타났다. <br/> <br/>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3805명(만19∼64세)을 대상으로 음식 항목별(총 112개) 일주일당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커피는 주당 12.3회로 단일 음식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성인 1명당 하루에 1.8번 커피를 마시는 셈이다. <br/> <br/>사람들은 밥보다 커피를 더 자주 찾았다. 이어 ▲배추김치 주당 11.8회 ▲잡곡밥 주당 9.5회 ▲쌀밥 주당 7회 ▲기타김치 주당 4.5회 ▲우유 주당 2.7회 순이었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커피는 12.1회보다 조금 늘었고 밥과 배추김치는 조금씩 줄었다. 1895년 커피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여년만에 나타난 변화다. <br/> <br/>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커피 수입량은 관세청 기준 연간 10만t을 웃돈다. 성인 1인당 연간 아메리카노(커피 10g) 약 300잔을 마실 수 있는 양이다. 음식군별 주당 섭취빈도는 아직 밥이 17.8회로 가장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13.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커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날짜: 20141114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410016316270  
ID: 01100701.201411141001631627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커피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사람이 하루 동안 마시는 커피 양이 유전자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은 ‘분자정신의학’에 발표한 논문에서 커피를 마시는 12만명의 유전자 구성을 조사한 기존 연구 28건을 분석한 결과, 커피 섭취와 연관된 유전자 6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커피를 잘 마시는 사람은 남과는 다른 유전자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커피를 마시지 않거나 못 마시는 사람도 일정 기간 꾸준히 커피를 마시면 몸이 적응하기도 한다. 커피의 약리작용 성분에 몸이 적응하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br/> <br/>그렇다면 커피에는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었기에 몸에 좋다고도 하고 나쁘다고도 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카페인이다. 카페인은 푸린 계열의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커피나 코코아·차 등의 식물에 골고루 함유돼 있다. 카페인을 흡수하면 45분 이내에 혈액으로 유입돼 간에서 대사가 이뤄진다. 카페인 다음으로 많이 함유된 성분은 커피콩의 지방성분인 디테르펜이다. 디테르펜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양을 높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수록 안 좋은 성분 가운데 하나다. 더운물에 직접 닿으면 쉽게 추출되지만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대부분 걸러진다. <br/> <br/>◆ 에스프레소·아메리카노, 다이어트에도 '好好' <br/> <br/>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메리카노 한 잔의 열량은 5kcal 미만이다. ▲카푸치노 120kcal ▲카페모카 310kcal ▲프라푸치노 400kcal 열량인데, 우유와 설탕을 넣을수록 열량은 높아진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좋은 커피는 검은색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기초대사율은 물론 에너지 소비, 지방 산화, 지방 분해, 열 발생 활동 등을 높이고 이런 모든 작용이 체중 감소로 이어진다. <br/> <br/>뿐만 아니라 커피는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 연구 결과, 스트레스나 유해 자극에 의해 기억력이 교란될 때 커피를 마시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페인에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인지 능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포르투갈 코임브라대 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에는 인지 능력을 높이는 효과뿐 아니라 손상된 인지 능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만성 스트레스, 주의력 결핍증, 과잉행동장애, 조기 발작증, 알코올성 기억력 상실증에도 커피가 유용한 효과를 발휘한다. <br/> <br/>또 커피는 유방암이나 결장직장암·전립샘암·난소암·췌장암·간경화·간세포성암·위암·신장암·방광암·뇌종양·피부암·구강암·식도암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과 커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무척 방대한데, 이 연구들에 따르면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과 디테르펜·커피산·폴리페놀·아로마·헤테로고리 화합물 등 여러 생물학적 활동 성분이 증상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화크산틴 계열의 카페인은 기관지 확장제인 테오필린 성분을 함유해 폐 기능을 높여 천식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크산틴 산화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으로 통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br/> <br/>◆ 하루 4잔이상 마시면 심·뇌혈관에 부정적 <br/> <br/>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면 나쁘게 작용하기도 한다. 커피도 마찬가지다. 커피를 과다 섭취하면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나 심장부정맥, 뇌졸중 등 심·뇌혈관계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하는데,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커피 한 잔에는 100mg 안팎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으며, 성인이 하루 섭취 권고량인 400mg을 초과해 섭취하면, 심·뇌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br/> <br/>커피 한 잔을 마시면 4~6mg의 칼슘 손실이 생기는데, 이 경우 골다공증과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폐경기 여성이나 무리하게 다이어트하는 여성이 특히 이런 질병에 취약한데, 그럴수록 우유나 채소를 통해 적절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아직 논쟁 중인 사안이지만, 커피 과다 섭취가 신장결석 형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루 200mg 이상 커피를 섭취할 경우 급성 이뇨 작용이 발생하고 체내 수분이 감소해 칼슘 배출을 유도하면서 신장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 성인들, 쌀밥보다 커피 더 찾는다 <br/> <br/>회사원 김모(30·여)씨는 지난달 커피값으로만 20만원을 넘게 썼다. 하루 3~4잔씩 습관처럼 마신 결과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커피는 음료라기보다 주식에 가깝다</span>”고 말한다. 한국인의 주식이 밥에서 커피로 바뀔 지경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들이 일주일에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은 커피로 나타났다. <br/> <br/>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3805명(만19∼64세)을 대상으로 음식 항목별(총 112개) 일주일당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커피는 주당 12.3회로 단일 음식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성인 1명당 하루에 1.8번 커피를 마시는 셈이다. <br/> <br/>사람들은 밥보다 커피를 더 자주 찾았다. 이어 ▲배추김치 주당 11.8회 ▲잡곡밥 주당 9.5회 ▲쌀밥 주당 7회 ▲기타김치 주당 4.5회 ▲우유 주당 2.7회 순이었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커피는 12.1회보다 조금 늘었고 밥과 배추김치는 조금씩 줄었다. 1895년 커피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여년만에 나타난 변화다. <br/> <br/>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커피 수입량은 관세청 기준 연간 10만t을 웃돈다. 성인 1인당 연간 아메리카노(커피 10g) 약 300잔을 마실 수 있는 양이다. 음식군별 주당 섭취빈도는 아직 밥이 17.8회로 가장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14.txt

제목: 국내 폐암 유형 1위 '폐선암' 재발 유전자 돌연변이 발견  
날짜: 2014111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310015594592  
ID: 01100701.201411131001559459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인 폐암 유형 중 가장많은 폐선암의 재발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밝혀졌다. <br/> <br/>이번 유전자 돌연변이 발견은 폐암 재발 예방 및 치료 길을 찾을 단서로 여겨진다.  <br/> <br/>13일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폐암센터 장세진(병리과)·김형렬(흉부외과) 교수, 한양대학교 의대 공구 교수, 서울대 자연과학대 백대현 교수 등으로 이뤄진 공동 연구팀은 근치적 폐절제술을 받은 폐선암 환자 247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RB 유전자 돌연변이가 수술 후 조기 폐암의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r/> <br/>연구팀은 폐선암 1기 157명, 2기 44명, 3기 40명, 4기 6명 등 총 247명 환자에서 얻은 각각의 폐암 조직과 정상 폐 조직을 대상으로 차세대 유전체 검사법인 전체 엑솜 염기서열 분석법(Whole Exome Sequencing, WES)을 이용해 유전체 모두를 동시에 비교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폐선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 중 환자의 임상병리학적 정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유전자 변이 22개를 발견했으며 이중 16개는 새롭게 발견한 변이였다. <br/> <br/>특히 조기 폐선암 환자군(1·2기)에서 5년 재발률을 비교했을 때, RB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 환자군(전체 환자군의 5.9%)이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수술 후 재발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br/> <br/>RB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재발 없이 지낼 확률은 20%로 RB유전자 변이가 없는 환자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br/> <br/>RB 유전자 변이가 조기 폐선암 수술 후 환자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br/> <br/>장세진 교수는 "총 247개의 폐선암종 유전체와 정상유전체를 함께 분석한 이번 연구는 폐암 유전체 단일연구로는 최대 규모이며 유전체 연구 결과의 임상적 응용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RB 유전자 돌연변이의 발견으로 조기 폐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재발 고위험군의 분류·선별이 가능해져 적극적 치료 및 재발 예방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br/> <br/>김형렬 교수는 "이러한 표적치료를 통해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비용의 지출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폐암 관련 16개 유전자 발견과 EGFR 유전자 변이 확인 등 한국인 특유의 유전체 규명 소식은 한국인 폐암 환자들의 특성에 맞는 최상의 개인 맞춤 치료제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암연구학회(AACR)가 발간하는 임상암연구(Clinical Cancer Research) 최신호에 실렸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15.txt

제목: 식욕조절 호르몬 조절을 통한 한방 비만 치료  
날짜: 20141113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310015595935  
ID: 01100701.201411131001559593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비만이란 체지방의 과잉 축적을 의미하는데, 이는 장기간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아주 작은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과거의 비만 치료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위주로 진행이 됐지만, 최근에는 섭식 욕구와 에너지 소모 행동을 조절해 에너지 균형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br/> <br/>최근에는 섭식욕구 및 에너지 소모 행동이 신경내분비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 섭식 욕구를 억제하는 반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배고픔을 느끼게 해 섭식 욕구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br/> <br/>이노한의원 박경미 원장은 “<span class='quot0'>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비만의 생리적 정체는 습담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뜻하는데, 습담은 렙틴내성으로 인한 식욕의 증가, 고그렐린혈증으로 인한 포만감의 결여· 고지혈증· 세포외 체액의 저류로 인한 부종과 유사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습담을 제거하는 다양한 약재를 체질에 맞게 배합함으로써 비만 치료가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그 예로 비만 치료에 주재로 쓰이는 약재 중 하나인 의이인은 한의학적으로 소화관내 습담을 배출시키고, 표피 중의 습담을 제거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부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 의학적인 연구 보고에 의하면 의이인은 고지방식이에 의한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몸무게 증가를 억제하고 혈중 렙틴의 농도도 감소 시킨다는 것이 판명됐다. <br/> <br/>박 원장은 “<span class='quot0'>실제로 비만 환자에게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 관여하는 약재를 체질에 맞게 사용했을 때, 섭식 욕구를 억제해 유의한 체중감소와 체질량지수의 개선 및 에너지 소모량 증가가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분비조절을 통해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다이어트를 행하는 과학적 한방 치료의 한 예</span>”라고 말했다. <br/> <br/>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이노한의원의 박경미 원장은 KAIST 생명과학과 박사 출신이라는 이채로운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대덕연구단지에서 천연물 유래의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해 알레르기 치료, 알콜성 간장 질환 치료· 환경호르몬에 의한 내분비계 교란의 치료· 면역증진을 통한 암 치료 등의 연구를 10년이상 수행해왔다. <br/> <br/>이후 한의학에 입문한 그는 6년간의 한의대 학창시절 동안 전통 한의학을 두루 섭렵하면서도 인삼의 연구결과를 해외에 소개하는 책(Herbal Medicine, CRC press)의 저자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br/> <br/>박 원장은 “<span class='quot0'>전통적인 한의학 고서에 기술돼 있는 약초의 효능에만 얽매이지 않고 최신의 연구 결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약초 하나하나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임상에 활용해 한의학적 치료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싶다</span>”라고 전했다. <br/> <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앞으로의 한의학은 보다 개방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렇기 때문에 많은 임상의들이 자신의 치료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서로 소통하는 장이 필요하다</span>”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16.txt

제목: 일양약품, 국산 신약 ‘슈펙트’ 장영실상 수상  
날짜: 2014110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510015539082  
ID: 01100701.201411051001553908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양약품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아시아 최초 슈퍼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국산 18호 신약)로 대한민국 산업 기술 최고기술상인 ‘장영실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br/> <br/>이번 수상은 슈펙트가 ‘2세대 TKI 제제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효과 대비 경제적인 약가를 갖춘 신약’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적인 SCI급 논문 및 저널을 통해 ‘효능·효과의 우수성’과 ‘경쟁력 높은 백혈병 치료제로 암 부문 가장 유망한 글로벌 신약’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br/> <br/>특히 슈펙트의 ‘경제적 약가’는 고가의 백혈병 치료제 처방이 힘든 국내 및 전 세계 환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국민건강 보험재정 건실화와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있는 슈퍼 백혈병 치료제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br/> <br/>임상2상을 완료하고 글리벡(성분 이마티닙) 내성환자 치료 및 초기 약물이 전혀 듣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2차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슈펙트는 백혈병 초기환자까지 처방할 수 있는 ‘1차 치료제’ 인증을 위해 4개 국가, 24개 병원에서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터키, 러시아 등에 제품과 기술수출에 대한 계약을 성사했다. <br/> <br/>‘장영실 상’은 대한민국 산업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상으로 독창성, 경제성, 기술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가공인 최고 기술상이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17.txt

제목: 한미약품, 차세대 표적항암제 1상 임상 돌입  
날짜: 2014110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510015539088  
ID: 01100701.2014110510015539088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차세대 표적항암제 HM95573이 국내 1상 임상시험에 돌입한다. <br/> <br/>한미약품은 최근 HM95573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흑색종 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br/> <br/>HM95573은 암세포 증식 및 성장에 관여하는 변이성 RAF과 RAS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강하게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큰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2세대 RAF 저해제 약물로 개발되고 있다. <br/> <br/>한미약품은 이번 임상을 통해 고형암 환자에서 HM95573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해 최대 내약용량 등을 결정하며 종양반응률, 최대 종양크기 변화율, 질병조절율 등을 관찰하게 된다. <br/> <br/>약물의 종양 반응과 관련한 시험 대상은 변이성 B-RAF, 변이성 K-RAS 및 변이성 N-RAS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흑색종, 대장암, 간암 또는 비소세포폐암 등 환자이다.  <br/> <br/>한미약품 정진아 임상개발 담당이사는 “HM95573은 기존 항암제에서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2세대 약물로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라며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br/> <br/>한편 이번 HM95573 개발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것이다. <br/> <br/>한미약품은 HM95573을 비롯해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EGFR(상피세포성장인자) 돌연변이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HM61713’, EGFR 수용체의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포지오티닙(Poziotinib) 등 3건의 표적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18.txt

제목: [기고] 우리 농업의 또 하나의 힘, ‘치유농업’  
날짜: 2014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210015520096  
ID: 01100701.201411021001552009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흰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면서 우리 농촌은 1년 동안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보는 가을걷이 끝자락에 와 있다. 농촌 들녘을 거닐다 보면 농촌 관광이나 체험을 하기 위해 모인 가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언제부턴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급부상하더니 이들도 농촌에서 힐링하고 싶어 찾았다 한다. <br/> <br/>몇 년 전부터 ‘힐링’이 사회·경제 분야 트렌드 예측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다뤄지기 시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힐링을 내세우고 있다. 박카스 등 상품광고에도 힐링이 결합되며 감성 마케팅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관광업계에서는 템플스테이·트레킹·휴양림체험, 서비스업계에서는 스파·마사지, 요식업계에서는 건강음식 등을 앞세워 저마다 힐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처럼 힐링 트렌드의 급속한 확산으로 관련 산업이 형성되고 있지만 진정한 치유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다. <br/> <br/> 고관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러한 때,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녹색농장에서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통해 식물과 동물을 다루는 농업에 치유의 개념이 적용되면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예치료, 동물매개치료 등 일부 체험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은 시작 단계이다. 이제 개념을 잡아가는 단계이긴 하나 우리 농업에서의 치유는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 전망도 밝다. 실례로 치유농업의 하나인 원예치료가 치매나 정신적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연구 결과 원예치료는 수형자의 불안감과 대인 예민성, 그리고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원예치료 체험 시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생리지표인 ‘코티졸’이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식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불안감 해소와 자아 통합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이 식물치유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안전행정부에서 정부3.0을 대표하는 브랜드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br/> <br/>이러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매일 커가는 식물을 직접 보고 만지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또 함께 수확해 나눠 먹는 즐거움과 행복을 통해 치유를 한다니 치유농업의 대단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액은 1조55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시작 단계인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치유농업은 시장 진입 단계이기에 후발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 주도의 집중적인 기반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생태보전, 예방,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가기관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br/> <br/>우리 농업은 식량생산 같은 먹는 농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치유농업 등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분야임이 분명하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농업을 제시해줄 치유농업에 대한 보다 신뢰 있는 연구와 정책이 뒷받침돼 우리 농업의 또 하나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 <br/> <br/>고관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19.txt

제목: 항암 면역세포치료 전문가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 한국서 세미나 개최  
날짜: 20141031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110015513346  
ID: 01100701.201410311001551334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세계 최초로 암 줄기세포치료를 개발한 일본 센신병원의 구라모치 츠네오박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미나 강연을 한다. <br/> <br/>세미나는 다음달 7일(금) 서울 강남에 있는 GS타워 25층 강연실에서 열린다. 주제는 ‘포기하지 않는 암 치료’이며 ‘표준치료의 한계를 넘어서’ 제4의 치료법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선진의료, 면역세포치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br/> <br/>구라모치 박사는 5종복합면역요법의 창시자로서 일본 내에서도 세포배양 전문가로서 명망이 높고 의학박사로서 암 세포치료 전문병원의 원장이다. <br/> <br/>'구라모치식' 면역세포치료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5종복합면역요법'과 이를 더욱 개량한 '新수지상세포면역백신요법',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백신치료'가 있다. 기존의 행해지던 면역요법보다 뛰어난 치료법으로 암치료 유효율을 상당히 높혔으며 박사의 치료법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br/> <br/>특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백신치료는 암 세포의 줄기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박사가 유명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3년간 연구해서 개발한 암 줄기세포의 특이 항원 펩티드를 이용한 것으로 현재 센신병원 암 치료의 중심이 되고 있다. <br/> <br/>이번 세미나는 박사가 연구 개발한 암치료법에 대한 설명과 그 동안 암 치료현장에서의 사례 그리고 치료실적 등으로 암 환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세미나 참가 신청은 (주)에스유 바이오(02-453-0901)로 연락하면 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20.txt

제목: 산삼배양기 ‘심마니’로 집에서 길러 먹는 110년 산삼!  
날짜: 20141030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010015507355  
ID: 01100701.201410301001550735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산삼은 예로부터 최고의 보양식으로 알려져왔다. 산삼은 원기를 보호하고 혈액생성을 왕성하게 해줘 혈액순환은 원활하게 한다. 또한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며, 체액을 충당시켜 갈증을 해소해 당뇨병 치료에도 도움된다. 이 외에도 호흡기 질환 및 소화기관· 체내 독소 제거 등 다양한 효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산삼이다. <br/> <br/>산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항암 및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진세노사이드는 항염증작용 및 종양 증식 억제 작용· 암 전이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산삼은 암환자들이 자주 찾는 식품이다. 또한 기억력 증진작용 및 피로회복 촉진작용· 스트레스성 행동장애 개선 작용 효과가 있어 수험생에게도 좋은 것이 산삼이다. <br/> <br/>산삼은 인삼의 원종으로 사람에 의해 밭에서 길러진 것을 인삼· 태생적으로 산에서 자라난 삼을 산삼이라고 부른다. 산삼은 야생에서 자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 순수종인 100년 이상 된 산삼은 전문 심마니도 발견하기 어렵다. 100년 이상 된 산삼은 1~2년에 한 두 뿌리 정도 밖에 나오질 않아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 때문에 시중에서는 산삼 조직을 떼어내 배양근을 만들어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재배 과정을 직접 확인 할 수 없어 유전자 조작이나 농약 투여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주식회사 ACT는 산삼배양근을 집에서 직접 기를 수 있는 산삼배양기 ‘심마니(SIMMANI)’를 출시했다. <br/> <br/>심마니(SIMMANI)의 산삼배양근은 한국산삼감정평가 협회에서 3억원 가치로 인증 받은 110년된 산삼을 원형으로 한다. 즉, 소비자들은 110년된 산삼의 효능을 그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이 배양근은 국내외 공익기관에서 농약· 중금속· 독성· 유전자조작이 없다는 것을 검증 받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사용가능허가를 받았다. 이 산삼배양근은 70g씩 팩에 담아 판매된다. <br/> <br/>가정용 산삼 배양기 심마니(SIMMANI)는 산삼을 기르는 데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 및 빛을 조절할 수 있으며, 세균을 걸러내는 무균 시스템과 청정 제균 에어 공급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은 센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설계되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작동을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배지성장 영양액도 최적의 성분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산삼을 키우는데에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br/> <br/>한편,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ACT는 11월 17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홀 208홀에서 산삼배양기 ‘심마니(SIMMANI)’의 총판 및 대리점을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br/>문의: 1800-1103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21.txt

제목: 자궁경부전암 치료 백신 세계 첫 개발  
날짜: 2014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010015508803  
ID: 01100701.20141030100155088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자궁경부전암을 주사로 치료할 날이 이르면 3년 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유전자(DNA) 치료 백신으로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궁경부전암 환자를 치유하는 데 성공했다. <br/> <br/>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성영철(사진)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팀과 김태진 제일병원 교수팀은 자궁경부전암 후기 환자 9명에게 DNA 치료 백신인 ‘GX-188E’를 투여하는 임상 1상 시험을 한 결과 7명(78%)에서 바이러스가 없어져 완치에 이르는 결과를 확인했다. 70%가 넘는 유효성을 보인 백신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r/> <br/>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 원인인 자궁경부전암은 병소를 도려내는 수술 외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수술에 따른 조산, 유산 등을 피할 수 없는 데다 HPV가 남아있다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미 개발된 백신이 있지만 HPV에 감염된 여성에게는 효과가 없다. 자궁경부암은 여성 암 중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발병한다. <br/> <br/>연구팀이 개발한 치료 백신은 어깨근육에 3회 주사를 놓는 것으로 전암을 치료한다. 주사를 통해 HPV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T세포’의 반응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죽은 세포의 자리에는 정상세포가 분열함으로써 해당 부위는 다시 건강한 자궁경부가 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br/> <br/>성영철 교수는 “<span class='quot0'>주사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없애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재발 가능성도 작은 치료제로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HPV로 발병하는 자궁경부암은 물론이고 구강암, 항문암, 외음부암에도 향후 적용될 수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지난 5월부터 국내에서 임상 2상에 돌입했고, 내년에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임상 2상을 시작해 세계적인 제약사와 손잡고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해 최대한 빠르게 마치면 2017년 세계 최초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PV 연관 암을 둘러싼 시장은 5조원 규모로 짐작된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22.txt

제목: 구글, 나노입자 이용해 스마트워치로 암 진단 기술 개발  
날짜: 20141029  
기자: 최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910015500001  
ID: 01100701.201410291001550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구글이 나노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워치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br/> <br/>29일(한국시간) 주요 외신은 구글의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부서 구글X가 나노 기술을 이용해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br/> <br/>적혈구의 1/2000 크기인 산화철 나노 입자를 이용하는 이 진단 기술은, 캡슐 형태 알약으로 나노입자를 인체에 투여해 해당 입자가 암세포 등 특정세포와 결합하면 이를 자성을 띤 스마트워치로 감지하는 방식이다. <br/> <br/>구글X 생명과학부문의 앤드류 콘라드 박사는 "지금까지의 진단법이 1㎞ 높이에서 길을 보는 수준이었다면 나노 진단법은 직접 골목에 들어가 관찰하는 것처럼 몸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이 기술의 의미를 설명했다. <br/> <br/>이에 구글은 제약회사와 웨어러블 기기 업체들과 협력해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br/> <br/>한편 구글은 혁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파킨슨병 환자의 손떨림을 억제하는 숟가락을 개발하는 벤처를 인수하고 혈액, 유전자 정보 등을 분석해 건강 진단을 하는 프로젝트 등을 진행중이다. <br/> <br/>최현정 기자 gagnra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23.txt

제목: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앱 출시  
날짜: 2014102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910015498191  
ID: 01100701.201410291001549819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국립암센터는 암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유익한 암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가암정보센터 앱’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이 앱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약 90여종의 다양한 암 정보 및 암예방 건강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br/> <br/>‘국가암정보센터 앱’을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암의 종류별 증상, 예방법, 치료방법, 검진 등의 정보 뿐 아니라 암환자 생활백서, 통계로 보는 암, 국가지원프로그램, 암예방 멀티미디어 자료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암정보 상담전화(1577-8899)’와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이용하면 된다. <br/> <br/>또 암예방을 위한 건강다이어리 ‘암예방 관리’ 기능은 금연, 금주, 식이, 운동, 체중, 예방접종, 조기검진 등 항목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단계적인 암예방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알람기능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br/> <br/>니코틴중독 자가평가, 식습관 자가평가, 알코올의존도 자가평가로 현재 나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볼 수도 있으며, 암환자와 가족 및 암 관련 정보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그룹을 생성하여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 ‘암예방 talk’도 마련돼 있다. <br/> <br/>앱은 일반인, 암환자 및 가족, 의료 관계자 등 모두가 유용하게 사용가능하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IOS) 앱스토어에서 ‘국가암정보센터’를 검색한 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24.txt

제목: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위암, 억제 가능  
날짜: 2014102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810015486438  
ID: 01100701.201410281001548643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위암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유전자가 규명됐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의한 위암 발생 억제와 조기 진단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br/> <br/>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박원상 교수는 최근 논문을 통해, 위점막 상피세포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Gastrokine 1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 위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28일 밝혔다.  <br/> <br/>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성인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 발병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적인 암이다. <br/> <br/>일반적으로 위점막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되면 독성물질인 CagA를 분비해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생산하고 유전자들의 변이를 유도한다. 또 점막상피세포가 증식하고 세포사는 억제된다. <br/> <br/>연구진은 이러한 감염에 의해 위점막이 지속적인 만성 위염 과정을 거쳐 위암으로 진행되는 병인(病因) 규명과 함께, 생체의 방어 기전과 Gastrokine 1을 이용한 위암 예방 전략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br/> <br/>이를 위해 AGS, MKN1, MKN28, HFE-145 세포주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CagA 독소를 과발현시킨 후 세포증식, 세포자멸사 및 세포 침습을 조사했다. 그 결과 CagA 독소는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유전자 변이와 세포 증식 및 침습을 촉진했다. <br/> <br/>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박원상 교수는 Gastrokine 1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CagA 독소에 의한 위점막의 염증과 세포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위암 발생 억제와 예방에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br/> <br/>박원상 교수는 “<span class='quot0'>Gastokine 1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 위암 발생 예방제는 물론, 효과적인 진단용 표지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Gastrokine1이 인체에서 자연 생성되는 단백인 만큼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밝혔다. <br/> <br/>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종양학 분야의 학술지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25.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퍼킨엘머와 신약개발 연구 선도  
날짜: 2014102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410015466821  
ID: 01100701.201410241001546682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아산병원 신약개발 융합 바이오이미징센터가 세계 1위 이미징분석장비 기업인 퍼킨엘머(PerkinElmer)와의 공동연구 협약으로 바이오이미징을 통한 중개연구 및 신약개발 연구를 선도해 나갈 전망이다. <br/> <br/>서울아산병원은 24일 병원 동관 6층 대회의실에서 최신 바이오이미징장비 우선사용 및 연구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아산병원 신약개발 융합 바이오이미징센터-퍼킨엘머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br/> <br/>바이오이미징은 영상장비를 통해 생명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분석하거나 세포의 약리학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 신약개발의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 <br/>바이오이미징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신약개발 바이오이미징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비임상 단계부터 임상시험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약개발 전주기에서 바이오이미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br/> <br/>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이미징센터의 연구역량과 퍼킨엘머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적 자원이 결합함으로써, 중개연구 및 신약개발연구의 질을 높이고 이미징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br/> <br/>바이오이미징센터는 이번 퍼킨엘머와의 협약을 통해 ▲퍼킨엘머에서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형광 내시경 개발 참여 ▲퍼킨엘머 최신 이미징장비 우선 사용 권리 획득 ▲이미징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br/> <br/>이날 협약식에는 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 명승재 신약개발 융합 바이오이미징센터장, 김청수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브라이언킴(Brian Kim) 퍼킨엘머LST(생명과학사업부) 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br/> <br/>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은 “<span class='quot0'>퍼킨엘머와의 연구협약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의 혁신기술과 산업적 지식을 한층 끌어올려, 기초과학과 임상을 연결하는 중개연구 및 신약개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span>”이라고밝혔다. <br/> <br/>명승재 신약개발 융합 바이오이미징센터장(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1'>첨단공학과 의학의 만남인 바이오이미징을 통해, 연구자들이 다양한 치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span>”고 덧붙였다. <br/> <br/>바이오이미징 분석장비기업인 퍼킨엘머는 1937년 미국 뉴욕에서 광학용 렌즈 생산 회사로 시작해 현재 전세계 150개국에 지사를 두고있는 회사로, 333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이다. 서울아산병원과는 2012년부터 줄기세포암 연구, 내시경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왔다. <br/> <br/>브라이언 킴 퍼킨엘머LST 사장은 “<span class='quot2'>이번 전략적 연구협력을 통해, 최첨단 의료사업을 이끌어온 서울아산병원 및 신약개발 융합 바이오이미징센터에 분자영상기술과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더 깊이있는 연구가 가능해지도록 도울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중개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내달 27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심포지엄을 개최해 중개연구 최신 가이드 및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26.txt

제목: 호박의 효능, 탈모부터 유방암 퇴치에 탁월한 채소 '왜 진작 몰랐지?'  
날짜: 2014102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310015459055  
ID: 01100701.201410231001545905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br/> <br/>호박의 효능 <br/> <br/> <br/>호박의 효능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 <br/> <br/>호박의 칼로리는 낮은 대신 섬유질, 비타민A, C, E와 미네랄(구리, 칼슘, 칼륨), 항산화 물질(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베타-크립토크산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br/> <br/> <br/>호박의 놀라운 효능 4가지를 보면 우선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2011년 나온 연구에 따르면호박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두통과 관절통이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br/> <br/> <br/>또한 탈모를 막아 준다. 2014년 한국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대머리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4주 동안 매일 400㎎의 호박씨 기름을 섭취한 사람들은 머리털이 40% 더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br/>특히 호박은 유방암을 퇴치하는데도 탁월하다. 2012년 ‘영양과 암(Nutrition and Cancer)’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호박씨나 해바라기 씨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여성들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 <br/> <br/> <br/>이어 호박씨에는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인 리그난과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레산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유방암 발병을 막아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br/> <br/> <br/>호박의 효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호박의 효능, 호박 맛있음” “호박의 효능, 잘 알아둬야지” “호 <br/>박의 효능, 효능 정말 많구나” “호박의 효능, 내일 사러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27.txt

제목: 오염된 공기, 영유아 자폐증 유발 위험 2배  
날짜: 20141023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310015462500  
ID: 01100701.2014102310015462500  
카테고리: 사회  
본문: 최근 미국에서 '환경오염과 자폐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br/> <br/>미국 피츠버그대학교의 공공건강연구센터는 "오염된 공기가 영유아의 자폐증을 유발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br/> <br/>이 연구소가 펜실베이니아주 남서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자폐스펙트럼 장애(Austism Spectrum Disorder, 이하 ASD)를 앓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태아 시절 또는 생후 24개월 이내에 독성이 포함된 대기에 노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ASD는 미국에서 68명 당 1명꼴로, 남자아이의 경우 42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신경발달 장애, 언어 장애, 사회 부적응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피츠버그대 에블린 탈봇 박사는 2005~2009년 태어난 ASD 아이 환자의 가족 217 가구와 같은 기간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가족을 인터뷰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br/> <br/>그 결과 임신 당시 크로뮴과 스티렌 수치가 높은 지역에 거주했거나 신생아가 생후 24개월 이내에 위의 물질에 노출됐을 경우,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ASD에 걸릴 확률이 1.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크로뮴 화합물은 다량 흡입할 경우 독성을 나타내며 각종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스티렌은 플라스틱이나 페인트에 주로 함유돼 있어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과 함께 오염물질로 분류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하나다. <br/> <br/>탈봇 박사는 "지난 20년 간 미국 내 ASD 환자는 8배나 증가했다. 크로뮴과 스티렌이 포함된 대기 오염이 자폐증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 <br/>그는 "자폐증의 급속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지만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환경오염과 자폐증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매우 희박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오염된 공기와 ASD의 발병원인을 연구하는 데 작은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이번 연구는 쥐 등을 이용한 기존 실험과 달리 ASD 환자수, 특정 오염물질 데이터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를 얻고 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공해 등 환경과학과 나노과학, 바이오과학 등을 연계해 연구하는 학회인 미국 에어로졸 학회(AAAR) 연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28.txt

제목: [WT논평] The surgeon general and the sun  
날짜: 2014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310015462489  
ID: 01100701.201410231001546248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The sun is ever shooting healthful rays at us, even as the surgeon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suggests we dart for cover under sunscreen and hats. The sun’s rays are evil, the government tells us, and we should avoid them like the plague. So why has mankind not died out from sun-caused disease thousands of years ago? <br/> <br/>There would be nothing without the sun no animals, plants or government bureaucrats looking for something to regulate. Man has always toiled beneath it, chasing buffalo on the American plains, growing crops in barbarian Europe, catching fish in pre-dynastic China. Are we really “harmed” by its rays more than they were? <br/> <br/>Our bodies require sun, as well as life-sustaining salt and fats our surgeon general also says we don’t need. Maybe what we don’t need is a surgeon general. <br/> <br/>Now devolved into Nanny State Central, the surgeon general’s office has become spokesman for intrusive government policies that unnecessarily frighten people, try to control their personal decisions. <br/> <br/>If the “nation’s doctors” can dole out politically motivated insurance advice, their ability to deliver sound, agenda-free health guidance is also questionable. On the specific question of “exposure,” we are getting too much White House-focused surgeon general and not enough science or sun. <br/> <br/>An August study by the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found low Vitamin D levels (delivered through UVB rays) are a major contributing factor to Alzheimer’s disease, stroke and all forms of dementia. A moderate Vitamin D deficiency can cause a 51 percent increase in dementias; a severe deficiency, 122 percent. This is a profound finding. <br/> <br/>Research recently published in the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and ignored by our medical bureaucrats) found increased rates of melanoma were not the result of too much sun exposure, but the benefit of “diagnostic drift” - increased awareness of the disease by the public and physicians, leading to hikes in identifying the disease in early, rather than latter, stages. <br/> <br/>This study and another in the prestigious medical journal Lancet also found skin cancers increasing at greatest rates among indoor workers, though Vitamin D-producing UVBs don’t pass through windows. Other global studies have found that more sun actually protects against melanoma and leads to lower incidences of breast, colorectal and ovarian cancers and that 30 percent of cancers could be prevented with adequate UVB exposure. <br/> <br/>과학을 외면하는 정부의 간섭 사례 <br/> <br/>케리 톨로스코(美 자유 개척 연구소 연구원) <br/> <br/>미군 의무감이 차양이나 챙이 넓은 모자 아래로 달려가 피신하라는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건강에 이로운 광선을 우리에게 언제나 쏘고 있다. 태양 광선이 나쁘며 우리는 역병을 피하듯이 햇빛을 피해야 한다고 정부가 우리에게 말한다. 그렇다면 태양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질병으로 인류가 오랜 세월 전에 멸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br/> <br/>태양이 없으면 동물, 식물 혹은 무언가 규제할 것을 찾는 정부 관료 등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는 항상 태양 아래서 고된 노동을 해왔고 미국의 평원에서 들소를 뒤쫓았으며 야만 시대의 유럽에서 농작물을 키웠고 왕조시대 이전의 중국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우리는 과거 인류보다 태양 광선의 “해”를 실제로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일까. <br/> <br/>우리의 신체는, 생명을 지탱하는 소금과 지방은 물론 태양을 필요로 한다. 미군 의무감은 소금과 지방 역시 우리에게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미군 의무감이 필요없을지도 모른다. <br/> <br/>오늘날 유모국가의 중앙부서로 발전한 미군 의무감의 직무는 간섭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을 대변하는 것으로 변했다. 그런 정책들은 불필요하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시민들의 개인적인 결정을 통제하려 한다. <br/> <br/>만약 “국가의 의사들”이 정책적 동기를 지닌 보험의 조언을 제공할 경우 건전하고 목적에서 해방된 보건 지침을 제공하는 그들의 역량 또한 의문스러워진다. 햇빛 “노출”이란 특정 문제에서 우리는 백악관에 초점을 맞춘 미군 의무감으로부터 너무 많은 말을 듣는 한편 과학이나 혹은 태양에 관해서는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다. <br/> <br/>미국 신경 아카데미가 8월에 발표한 연구는 (자외선으로 공급되는) 비타민 D 수준의 저하가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및 모든 형태의 치매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란 사실을 발견했다. 비타민 D의 낮은 수준 결핍이 치매 발병률을 51% 증가시키고 심각한 결핍은 122%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br/> <br/>영국 피부과학 저널에 최근 발표된(우리의 의료 관료들이 무시한) 연구는 흑색종 발병률의 증가가 지나친 햇빛 노출의 결과가 아니라 이 질병에 대한 대중과 의사들의 인식 증가인 “진찰 추이”의 결과란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인식 증가는 후기 단계보다는 초기 단계에 이 질병을 확인하는 사례의 증가로 이어졌다. <br/> <br/>비타민 D를 생산하는 자외선이 창문을 통과하지 않으나 실내 근로자들의 피부암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 사실이, 이 연구 및 저명한 의학저널인 랜싯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의해 발견되었다. 더 많은 햇빛 노출이 실제로 흑색종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유방암, 직장암, 난소암의 발병률을 낮추며 각종 암의 30%가 충분한 자외선 노출로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이 다른 많은 세계적 연구에 의해 발견되었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29.txt

제목: 유방암 환자 대상 '헬스 아바타' 프로그램 첫 선  
날짜: 20141021  
기자: truth@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1100000053  
ID: 01100701.2014102110000005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헬스 아바타' 프로그램이 서울대병원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서울대병원 유방센터와 서울의대 정보학교실은 21일 환자의 개인별 진료기록을 스마트폰에 담아 향후 진료와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헬스 아바타' 프로그램의 첫 시제품으로 '핑크 아바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전했다.이 프로그램은 서울대병원 유방센터에서 수술받은 유방암 환자들은 본인의 치료요약정보를 병원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둘 수 있고, 이를 언제 어디서든지 꺼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환자가 이 앱을 이용해 병원 측에 치료요약정보를 요청하면  수술 당시 유방암의 크기와 위치, 림프선 전이 여부, 방사선·항암 치료 여부, 처방 약물, 바이오마커 유무 등 환자 치료와 관련된 요약정보를 받아 앱에 저장해 둘 수 있다.이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응급상황이 생겨 다른 지역에서 병원에 가야 할 때 해당 의료진이 곧바로 앱을 통해 환자의 간단한 병력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환자는 사전에 정보요청 및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병원측에 보내야 사용이 가능하다. 개발팀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스마트폰이 다른 사람한테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여기에 더해 이 앱에는 건강한 여성의 유방암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뿐 아니라 유방암 자가진단, 생리주기 관리 기능,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우울증·뇌졸중 등의 질환 위험도 예측 등의 기능이 담겨 여성들이 건강을 캐어하는데 좀 더 편리해질 듯하다.개발팀은 향후 이 프로그램을 다른 암환자로 확대 및 참여 의료기관도 늘리고, 병원 측으로부터 넘겨받는 치료정보도 구체화할 예정이다.김주한 서울의대 정보학교실 교수는 "개인의 건강기록은 정보주체인 해당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병의원이 이를 관리해왔다"면서 "비록 지금은 서울대병원 유방암 환자에 국한된 앱이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건강기록을 내려받고 스스로 관리하는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헬스 아바타 프로그램은 기존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병원 측의 진료기록 제공 없이 환자 스스로 정보를 기록해야 했던 점에서 벗어나 병원과 환자가 개인의료기록을 두고 쌍방향으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이 프로그램은 환자가 병원에서 자신의 진료기록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넘겨받아 응급상황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30.txt

제목: NH농협생명, 모바일앱 가입고객 10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  
날짜: 20141019  
기자: hemked@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9100000022  
ID: 01100701.20141019100000022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NH농협생명(대표이사 나동민, www.nhlife.co.kr)이 모바일앱 가입고객 10만명 돌파를 기념해 오는 11월 14일까지 '모바일 상품 안내장 SNS 공유 이벤트'를 진행한다. NH농협생명 모바일앱 가입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이벤트는 지난 15일 새롭게 출시된 「하나로NH3대질병보험(갱신형/무배당)」을 비롯한 NH농협생명의 보장성 상품(종신/정기/건강/암) 안내장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친구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간단히 참여할 수 있다.친구 10명에게 추천한 고객 선착순 3000명에게 5000포인트를, 그 이상 추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10만포인트를 지급하며, 지급된 포인트는 농협a마켓(www.nhamarket.co.kr)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생명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10월 신보험시스템과 함께 오픈된 NH농협생명 모바일 창구에서 고객들은 보험계약조회, 대출서비스 신청, 보험료 납입, 사고보험금 지급신청 등의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대출서비스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한 모바일 창구의 장점으로 인해, 전체 채널의 월평균 이용 증가율 5.4%에 훨씬 웃도는 22%를 기록하고 있다. (이용 금액 기준)NH농협생명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이다.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31.txt

제목: [건강 단신] 팔기능 장애환자 로봇재활기로 운동 치료 外  
날짜: 2014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910015427437  
ID: 01100701.201410191001542743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팔기능 장애환자 로봇재활기로 운동 치료 <br/> <br/>세브란스재활병원(원장 신지철·사진)은 팔 기능에 장애가 생긴 환자를 위한 로봇 재활치료기를 도입해 치료에 들어갔다. 뇌졸중, 뇌손상, 척추손상 등으로 어깨 관절과 팔꿈치, 손목 등 근육이 마비된 환자들은 로봇 팔을 장착하고 운동 치료를 받게 된다.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환자들이 가상의 3차원 화면을 보며 팔과 어깨 운동을 따라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span>”고 소개했다. 1599-1004 <br/> <br/>한국인 유방암 발생률 동아시아 1위 기록 <br/> <br/>2008년 인구 10만명당 38.9명꼴이던 한국인 유방암 발생률이 2012년 52.1명으로 증가해 사상 처음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국유방암학회(이사장 송병주)는 이 같은 내용의 ‘2014 한국 유방암 백서’를 최근 발표했다. 백서는 “한국은 이제 서구 선진국과 함께 유방암 고위험 국가”라며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02)3461-6060 <br/> <br/>‘허리·무릎·어깨 되살리기’ 주제 건강강좌 <br/> <br/>바른세상병원은 23일 오후 6시30분 경기 성남 NC백화점 6층 소극장에서 ‘내 몸의 기둥-허리, 무릎, 어깨 되살리기’란 제목의 건강 강좌를 연다. 이 병원 서동원(재활의학과) 대표원장, 이승철(신경외과) 척추센터장, 이원희(정형외과) 원장 3명이 강사로 나서 허리, 무릎, 어깨의 건강한 관리에 관해 설명한다. 참가 희망자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1577-3175 <br/> <br/>전립선 질환·비뇨기암 최신 치료법 소개 <br/> <br/>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은 30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전립선 질환과 비뇨기암의 최신 치료’라는 주제로 무료 건강 강좌를 연다. 비뇨기과 정인갑, 송채린 교수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전립선 질환의 최신 치료법, 로봇을 활용한 비뇨기암의 첨단 수술법 등을 설명한다.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령화와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전립선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02)3010-3051∼4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32.txt

제목: 24회 분쉬의학상 본상에 김효수 서울대 교수  
날짜: 2014101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610015413032  
ID: 01100701.201410161001541303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왼쪽부터 김효수 서울대 교수, 윤승용 울산대 교수, 김찬 연세대 강사.제24회 분쉬의학상 본상에 김효수 서울대 의대 교수, 젊은 의학자상 기초 부분에 울산대 의대 윤승용 교수, 젊은 의학자상 임상 부문에 연세대 의대 김찬 강사가 각각 선정됐다. 구한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독일인 의사 리하르트 분쉬의 이름을 딴 분쉬의학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상이다. <br/> <br/>본상 수상자인 김 교수는 ‘사이토카인-줄기세포 요법’을 세계 최초로 고안하고 장기간의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한 줄기세포 분야 권위자다. ‘사이토카인-줄기세포 요법’은 세포간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이용해 환자로부터 고통 없이 세포를 채취하여 심혈관질환 치료에 응용하는 요법이다. 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권위가 있는 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협심증 심근경색증 대사증후군 환자를 위한 혁신적 치료법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성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br/> <br/>젊은 의학자상 기초 부문 수상자인 윤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의 대표 병리물질 중 하나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신경해부학적 네트워크를 따라 이동·전파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베타-아밀로이드의 전파 양상을 비교 관찰한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 전략을 발견했다. 이는 임상신경학 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며 해외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br/> <br/>젊은 의학자상 임상 부문 수상자인 김 강사는 암 혈관에서만 발현되는 로제이 단백질이 암 조직에서 혈관 생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항암제 및 암혈관 표적 치료제와 병합, 새로운 암혈관 신생 조절 치료 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로제이 단백질의 선택적 차단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된 이번 연구는 암 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br/> <br/>분쉬의학상은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사장 더크 밴 니커크)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5000만원, 젊은 의학자상 수상자에게는 각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33.txt

제목: “신선하고 질 높은 국산 우유, 우수성 널리 알릴 것”  
날짜: 20141014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410015390916  
ID: 01100701.2014101410015390916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br/> <br/> <br/>일반적으로 한 마리의 젖소가 매일 생산하는 우유의 양은 30kg에 달한다. 이 중 일부는 최소한의 가공을 거쳐 우유 및 유제품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보관을 위해 분유 형태로 저장한다. <br/> <br/>최근에는 이러한 국내 우유 재고량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우유값 인상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치즈, 요구르트, 가공유 등 유제품의 원료가 수입산이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br/> <br/>실제로 올해 유제품 수입량은 최대 17% 이상 증가해, 낙농선진국과의 직접적인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국내 낙농업체의 어려움과 함께 식량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br/> <br/>지난 8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이상기 사무국장을 찾아 우유의 필요성과 국내 낙농업의 현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br/> <br/>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br/> <br/>-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어떤 단체인가. <br/> <br/>“국민건강을 위한 식품인 우유의 소비촉진을 위해 설립됐다. 지난 1999년부터 2005년 까지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고, 더 폭넓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5월 일을 기점으로 우유자조금 거출을 시작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생산농가의 피와 땀이 담긴 자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낙농산업의 발전과 낙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 우유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대내적으로는 우유 소비 확대를 통해 낙농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국산 우유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우유에 대한 잘못된 상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TV광고, 방송 PPL, 온·오프라인 홍보, 도심 속 목장나들이, 주부 우유 요리 교실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br/> <br/>-소비자들에게 우유의 장점을 소개한다면. <br/> <br/>“개인적으로는 ‘우유는 남을 속여서라도 꼭 먹여야 하는 식품’이라는 농담을 자주 한다. 그만큼 우유 속에는 단백질, 지방, 유당, 무기물, 비타민 등 114가지에 달하는 영양소가 들어 있어 건강에는 더 없이 좋은 식품이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유를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비만과 골다공증 예방, 피부미용 뿐 아니라 최근에는 대사증후군 및 각종 암을 예방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하지만 일반 우유와 가공유는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흰 우유의 경우 유해균을 죽이기 위한 살균 과정만 거치지만 가공유는 인공 향료 색소, 당분 등을 첨가하기 때문이다. 요즘과 같이 비만 아동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적·영양적 측면을 고려해 흰 우유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 우유의 품질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가. <br/> <br/>“우유는 체세포 수와 세균 수가 적을수록 좋은 등급을 받아 고품질유로 분류된다. 체세포 수는 젖소의 면역세포, 즉 백혈구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낙농기구에서는 우유 중 체세포 수를 분석해 젖소의 유방염 감염 유무를 판단한다.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체세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젖소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선진 낙농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체세포 수에 의한 유방염 진단 및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유 품질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세균 수 검사다. 원유의 미생물 오염 정도는 최종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며, 우유 생산과 저장 과정 중의 위생 상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시중에 유통되는 우유의 품질은 해외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 <br/> <br/>“우리나라의 1등급 우유 기준은 낙농 선진국인 덴마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까다롭다. 우리나라 1등급 우유는 1ml 당 체세포 수가 20만 개 미만이다. 덴마크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20만 개 미만을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우 체세포 수 40만 개까지가 1등급 판정을 받는다. 세균 수 규정 역시 뉴질랜드가 1만 개 미만, 덴마크와 우리나라가 3만 개 미만, 프랑스 5만 개 미만, 네덜란드 10만 개 미만으로 우리나라는 낙농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유를 만들기 위해 젖소의 건강관리에서부터 제종 과정까지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매일 목장의 모든 우유에 대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고 착유한 원유는 즉시 냉각해 저온 보관한다. 우유 내에는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상온에서는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이다. 체세포 수 및 세균 수 검사를 위해 목장별로 채취한 우유를 매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우유 제조 과정 역시 깐깐하다. 우유 공장에 도착한 원유는 2백90여 가지 항목 테스트를 거치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원유는 공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 <br/> <br/>-최근 국내 낙농업의 상황은 어떠한가. <br/> <br/>“지난해 가구당 4주 평균 우유 구매량은 5.55kg으로 지난 2012년보다 3.5% 감소했고, 소비자의 1회 우유 평균 구매량은 1.86kg으로 0.5% 줄었다. 젖소 사육두수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원유생산량은 이상기온으로 인해 5.6% 증가했고 국산분유 사용분은 0.3% 감소한 반면, FTA에 의한 수입 유제품 사용은 급증(9.5%~17.5%)했다. 국산 분유재고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제품 수입은 증가한 것이다.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우유 재고’ 문제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유 쿼터제가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쿼터 내 생산량은 정상유대를 받지만 쿼터를 초과할 경우 리터 당 100~300원의 우유값을 받는다. 수입 유제품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낙농가의 생산기반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br/> <br/>-우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br/> <br/>“국산우유의 차별하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국산우유사용인증(K·MILK)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산우유사용인증이란 100% 국내산 우유만을 사용한 우유 및 유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현재도 우유 및 유제품의 겉면에 ‘국산원유 100%’ 등의 문구가 표기돼 있지만 가시성과 제품 간 통일성이 떨어져 수입 유제품과의 구분이 어렵다. 국산우유사용인증은 소비자에게 국산 원유로 만든 제품에 대한 식별을 높여 신뢰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우유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거시다. 이 제도는 소비자 뿐 아니라 낙농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50%대에 머물러 있는 원유 자급률을 높여 장기적으로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지난 7월 우유 가공업체들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았고, 심사 결과 총 8개 업체 220개 제품이 K·MILK 인증을 받았다. ‘국산우유사용인증(K·MILK)’ 마크가 인쇄된 우유와 유제품은 10월 중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 차원에서도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우유를 홍보하고 있다.” <br/> <br/>-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br/> <br/>“올해에는 TV 캠페인을 통해 흰 우유의 가치를 소개하고 남녀노소 전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우유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 매체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대국민 대상 우유 관련 정보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프라인으로는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를 활용해 우유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편견을 바로잡기도 했다. 최근에는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유 음용의 효능과 생활 속 우유 활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각종 프로모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유과학교실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착유에서부터 생산까지의 과정을 체험하도록 한다. 도심 속 목장나들이는 온 가족을 보도심 속에 목장을 구현해 젖소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우유체험 교실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해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우유 음용 홍보를 제공하고, 주부 우유 요리 교실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 강좌를 개설해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br/> <br/>-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를 말해 달라. <br/> <br/>“우유는 소비자의 연령층과 특징에 따라 다양한 효능이 있다. 청소년에게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성장을 도우며, 20~30대에게는 에너지를 쉽게 보충해주는 영양 간식이고, 체력이 저하되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단백질과 칼슘 등의 공급원으로 건강을 증진시킨다. 결국 우유는 나이와 무관하게 평생 마셔야 하는 건강 음료다. 앞으로도 연령층과 생활 습관을 연관 지어 홍보함으로써 우유의 가치를 널릴 알릴 계획이다. 소비자가 우유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심 속 목장 나들이, 어린이 우유체험 교실, 주부 우유 요리 교실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TV나 신문을 통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해 소비자가 우유를 신뢰하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역할에 주력할 것이다.” <br/> <br/>헬스팀 임한희·이새하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34.txt

제목: 림프종 유발 유전자 발견… 이창우 성균관대 교수팀  
날짜: 201410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210015381563  
ID: 01100701.201410121001538156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팀이 림프종(임파선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br/> <br/>성균관대는 의대 분자세포생물학교실 이창우 교수(사진), 박혜영 박사, 고현정 교수 등이 ‘B세포 림프종’ 유발에 관여하는 새로운 발암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악성 림프종은 림프조직 세포들이 악성으로 바뀌어 생기는 종양으로, 국내 전체 암 발생의 2%를 차지한다. 연구팀은 ‘펠리노(Pelino) 1’ 유전자가 B세포 림프종 세포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하고, 이 유전자가 B세포 림프종 유발에 관여하는 과정을 밝혀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펠리노 1 유전자의 발현을 림프종 환자 진단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새로운 치료 기술 개발 가능성도 보인다</span>”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기초·임상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임상연구저널(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온라인판에 실렸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들 군대 보냈더니 맞아죽고, 딸 보냈더니 성추행 당해" 여성 오르가즘의 비밀, 연구를 통해 밝혀져 당신을 화나게 하는 지하철 비매너 8가지? "서울대생이 개발하니 대박" 3주만에 3천단어 암기…충격! SM 중국 멤버 이탈…이유는 결국 돈?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35.txt

제목: 이창우 연구팀, 림프종 유발 발암 유전자 발견  
날짜: 20141012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210015380147  
ID: 01100701.201410121001538014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팀이 림프종(임파선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br/> <br/>성균관대는 의대 분자세포생물학교실 이창우 교수(사진), 박혜영 박사, 고현정 교수 등이 ‘B세포 림프종’ 유발에 관여하는 새로운 발암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악성 림프종은 림프조직 세포들이 악성으로 바뀌어 생기는 종양으로, 국내 전체 암 발생의 2%를 차지한다. 연구팀은 ‘펠리노(Pelino) 1’ 유전자가 B세포 림프종 세포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하고, 이 유전자가 B세포 림프종 유발에 관여하는 과정을 밝혀냈다. <br/> <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펠리노 1 유전자의 발현을 림프종 환자 진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새로운 치료 기술 개발 가능성도 보인다</span>”고 밝혔다. <br/> <br/>해당 논문은 기초·임상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임상연구저널’(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온라인판에 실렸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들 군대 보냈더니 맞아죽고, 딸 보냈더니 성추행 당해" 지디-키코, 심야데이트·스킨십…이래도 아니야? 여성 오르가즘의 비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서울대생이 개발하니 대박" 3주만에 3천단어 암기…충격!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36.txt

제목: 이수만 부인 별세에 빅토리아 애도.."아버지 같은 분, 힘내세요"  
날짜: 2014100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610015342218  
ID: 01100701.2014100610015342218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br/> <br/> <br/>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부인 별세에 에프엑스 빅토리아가 애도의 뜻을 전했다. <br/> <br/>빅토리아는 자신의 SNS에 "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공연 잘 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고 전했다. <br/> <br/>앞서 슈퍼주니어 최시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는 여기서 잘 마치고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로 게재한 바 있다. <br/> <br/>한편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 여사는 지난달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 이수만 부인의 소장암은 2012년 12월에 발병했으며, 2013년 1월에 대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치료 등을 계속 받아왔다. 이수만은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결국 암이 다시 재발해 사망에 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500만원 수표가 150억원이 된 사연? '휴가나온 군인들' 여고생 폭행에 모니터 박살까지···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응급이송 중 女환자 가슴 만진 구급대원,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37.txt

제목: 곤지름(콘딜로마) 환자 증가…방치하면 암으로 악화될 수도  
날짜: 20141006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610015345973  
ID: 01100701.201410061001534597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개방적인 성문화로 인해 곤지름(콘딜로마)에 걸린 사람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곤지름의 원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생기는 전염성 질환이다. 성기부, 항문뿐만 아니라 여성의 질과 외음부, 자궁경부, 남성의 요도 등에서도 발생한다. <br/> <br/>보통 곤지름은 성병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강성교•항문성교•질내성교 등의 주로 성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지만, 성적 접촉 없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100% 성병이라 말하긴 어렵다. 특히 음주 후 성관계나 피부접촉 등 몸의 면역력이 평소보다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더욱 전염되기 쉽다. <br/> <br/>2~3개월간의 잠복 기간을 가지는 곤지름의 초기증상은 주로 성기나 항문 주위에 좁쌀만한 혹이 한 개내지 여러 개 생기거나 뭉쳐서 닭벼슬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변형된 피부조직이 별다른 통증 없이 자연치유될 가능성도 있지만, 속옷과 마찰 때문에 떨어지거나 손으로 제거할 경우 피가 나고 병변이 더 번질 수 있다. <br/> <br/>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병변이 더 넓어지면서 크게 번져 항문 입구를 막거나 항문암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남성은 음경암, 항문암, 요도암, 인두암, 후두암과 연관이 있으며, 여성은 자궁경부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바이러스 배양과 중합효소 연쇄반응(PCR)등이 사용되면 특히 DNA로 검출하는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br/> <br/>곤지름의 치료 방법으로는 과거 전기 소작술, 냉각법, 레이저 절제술 등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액체질소를 이용해 병변을 얼려서 제거하는 냉동요법과 출혈이 적고 재발이 낮은 레이저 제거시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곤지름은 발생부위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다. <br/> <br/>남성의 경우 요도에 곤지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특수 마취하에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재발율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 관찰이 필요하고, 잘못 치료를 하였을 경우 요도협착등을 일으킬수 있다. <br/> <br/>요도와 더불어 항문에도 곤지름이 빈번히 발생하며 항문 곤지름 일 경우 항문괄약근 상부까지 확인하여야 제대로 된 치료 및 재발을 막을 수 있고, 특히 요도와 항문곤지름 같은 경우 전문화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br/> <br/>비뇨기과 전문의 김태헌 원장은 "곤지름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며 "피부 내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까지 비뇨기과 전문 병원에서 정밀히 검사를 한 후 치료를 받아야 암으로 발전할 예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이어 김원장은 “<span class='quot0'>곤지름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면역증강제와 백신을 이용해 예방 및 진행억제, 바이러스 박멸을 촉진시킬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곤지름은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 <br/>따라서 부끄럽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 치료를 통해 재발 없는 완치를 확인한 후에야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도움말:골드만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헌 원장 <br/> <br/>한편 골드만비뇨기과는 곤지름 치료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성내시경과 모든 연조직에 사용가능한 레이저를 보유하였고, 통증을 거의 없게 하는 특수한 마취법을 이용하여 시술을 하기 때문에 당일검사, 당일치료가 가능한 치료시스템을 구축하였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500만원 수표가 150억원이 된 사연? '휴가나온 군인들' 여고생 폭행에 모니터 박살까지···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응급이송 중 女환자 가슴 만진 구급대원,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38.txt

제목: 폐암 걱정... “금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날짜: 20141002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210015324183  
ID: 01100701.201410021001532418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금연정책이 이슈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고 있으나 호흡기 질환, 특히 폐암의 발생에 미치는 흡연의 영향력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br/> <br/>폐암은 우리나라 남성에 있어 위암, 대장암에 이어 3번째로 잘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여성에서도 발생률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2011년 국가 암 등록통계) 높은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기 검진 방법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고 있다. 증상이 있어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수술하기에 늦은 경우가 흔하여 사망률이 매우 높다. 2012년 우리나라 전체 암 사망자의 22.6%인 16,654명(1위)이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는 통계수치로 미루어봤을 때, 폐암의 예후가 매우 불량함을 알 수 있다. <br/> <br/> <br/>따라서 폐암의 치료법은 발생한 이후에 시행되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발생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다. 폐암의 원인에는 흡연, 석면, 비소, 크롬, 니켈 등에 노출, 방사선, 폐 섬유증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흡연이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담배에서 발견되는 유해 물질은 약 4,000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발암 물질로 알려진 것이 60종 이상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한다. 흡연량이 많을수록,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폐암의 발병률은 증가한다. 폐암으로 진단된 남성 가운데 87%, 여성 가운데 85%가 흡연자다. 특히 여성은 흡연의 발암작용에 더 취약해 같은 양의 흡연에도 남성보다 발생률이 1.2~1.7배 높다. 간접흡연 역시 중요한 폐암의 원인으로, 폐암 환자의 25~50%가 간접흡연에 의해 발병한다. 금연 후 10~20년이 지나도 폐암 발생률이 비흡연자의 2.5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r/> <br/>폐암은 크게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분류하며, 비소세포폐암은 다시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으로 구분된다. 그 중 소세포폐암과 편평상피세포암은 평생 흡연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흡연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선암의 경우, 비흡연자인 폐암환자에서 선암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위험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역시 흡연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br/> <br/>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흡연으로 인한 유전자 변형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혀내 주목받고 있다. 편평상피세포 폐암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주요 유전자들의 변형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전체 환자의 80%에서 대표적인 종양 억제 유전자인 TP53이 정상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 104명 중 5명만이 담배를 피운 적이 아예 없었으며, 나머지 환자들은 20년 안팎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피웠던 경험이 있다. 또한 편평상피세포 폐암 환자에게서 FGFR3과 TACC3 유전자가 서로 융합되어 폐에서 세포증식과 분열을 반복하도록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 변형에 대한 표적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br/> <br/>방선휘한의원 이재찬 원장은 “방사선, 화학요법, 항암치료의 공격적인 치료로 인해 환자의 체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약침치료, 침치료, 면역약제, 항종양 면역약제. 온열치료, 심리치료 등의 한방암치료를 이용해 환자의 면역감시체계를 회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명 모델, 응원 팀 승리하자 알몸으로 소녀시대 탈퇴 제시카 "내가 충격받은 건 멤버들이…" 5개월동안 닫혀있던 문, 열어보니 모녀 시체가···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당신은 콜라를 단순히 음료수로만 생각하는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39.txt

제목: 녹십자, 항암보조제 뉴라펙 임상결과 유럽학회서 발표  
날짜: 2014100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210015327699  
ID: 01100701.201410021001532769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녹십자는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4년 유럽종양내과학회(ESM팀)’의 임상결과를 포스터 세션을 통해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br/> <br/>호중구감소증(neutropenia)은 혈중 백혈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감염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 혈구세포인 호중구가 항암화학요법, 항암방사선요법 등의 원인으로 정상치 이하로 감소하는 질환이다. <br/> <br/>뉴라펙은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 시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항암보조제다.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 1주기 중 4~6회 투여해야 했던 1세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와 달리 1주기당 1회 투여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녹십자는 지난 8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획득해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br/> <br/>녹십자는 이번 학회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4개 기관에서 진행한 뉴라펙의 임상 2/3상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대조약인 암젠의 뉴라스타(일반명 : 페그필그라스팀)와 맹검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비교한 결과 비열등성을 보였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br/> <br/>이와 함께 뉴라펙은 항암화학요법 1주기 동안 절대호중구수(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최저값 이후 2000/mm³ 이상으로 회복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관찰했으며 대조약에 비해 회복되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약 하루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김수정 녹십자 부장은 “<span class='quot0'>임상시험을 통해 뉴라펙이 세계적인 초대형 블록버스터인 뉴라스타와 비교해 동등이상의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만큼 학회 참가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녹십자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뉴라펙 개발을 위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받은 바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반항하지 않아서? 12세 여아 성폭범에 징역 3년 탄산음료 콜라, 녹슨 자동차 범퍼에 뿌리니 "단통법 아니라 호갱법"… "차라리 중국산 직구"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유명 모델, 응원 팀 승리하자 알몸으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40.txt

제목: [정철어학원의 1분 SpeaKing!] Jenifer had her dog put to sleep yesterday.  
날짜: 201409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810015287720  
ID: 01100701.2014092810015287720  
카테고리: 국제  
본문: A:Lucia, did you hear that Jenifer had her dog put to sleep yesterday? <br/> <br/>루시아, 어제 제니퍼가 그녀의 강아지를 안락사시켰다는 거 들었어요? <br/> <br/>B:Really? Why did she have to do that? <br/> <br/>정말요? 그녀가 왜 그래야 했던 거예요? <br/> <br/>A:Her dog had suffered from cancer for a long time. <br/> <br/>그녀의 강아지가 오랫동안 암을 앓았나 봐요. <br/> <br/>B:That’s so bad. So how is she doing now? <br/> <br/>너무 안 됐네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br/> <br/>A:She’s been in deep sorrow. <br/> <br/>깊은 슬픔에 잠겨 있죠 뭐. <br/> <br/>‘put something to sleep’은 ‘(병 들거나 다친) 동물을 안락사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br/> <br/>▶Key expressions <br/> <br/>She took her old dog to the vet and he put it to sleep. <br/> <br/>그녀는 그녀의 아픈 강아지를 수의사에게 데려갔고, 그는 강아지를 안락사시켰어요. <br/> <br/>정철어학원 종로캠퍼스 Jenna 강사(iwillbe1030@daum.net) <br/> <br/>www.종로정철.com <br/> <br/>02)736-0530<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비만녀'로 분장한 미녀, 소개팅 남성들 반응이 4급 공무원이 여직원에게 "왜 나랑 같이 자게?" 싱크홀에 삼켜진 어린소녀, CCTV 영상 보니···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병원 이사장 등이 100편이 넘는 집단 성관계 영상을…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41.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카레, 건강에 좋은 이유  
날짜: 20140928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810015287491  
ID: 01100701.201409281001528749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카레에 뇌 손상을 치유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br/> <br/>독일 신경과학·의학연구소의 아델레 뤼거 박사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에 들어있는 방향성 정유(aromatic-turmerone)가 내인성 신경줄기세포(endogenous NSC: neural stem cell)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의 BBC뉴스 인터넷판과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26일 보도했다. <br/> <br/>내인성 신경줄기세포란 뇌 조직 자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로 뇌세포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스스로 증식·분화해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 보충하는 뇌의 자가 수리 시스템 중 일부다. 방향성 정유는 황색 색소인 쿠르쿠민과 함께 카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중요한 생물활성 성분 중 하나다. <br/> <br/>뤼거 박사는 시험관실험과 쥐 실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팀은 먼저 쥐 태아의 뇌에서 채취한 신경줄기세포를 시험관에서 배양해 방향성 정유에 노출시킨 결과 신경줄기세포가 증가했다. 방향성 정유 노출량이 많을 수록 신경줄기세포 증식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br/> <br/>이러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이 신경줄기세포에 방향성 정유를 첨가한 뒤 쥐의 뇌에 주입하고 5일에 걸쳐 증식하는 신경줄기세포와 결합할 수 있도록 추적자(tracer)인 브로모디옥시우리딘을 투여했다. <br/> <br/>이어 7일 후에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쥐의 뇌를 관찰했다. 그 결과 뇌실하 영역(SVZ: subventricular zone)이 넓어지고 기억중추인 해마가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뇌의 이 두 부위는 포유동물의 뇌에서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곳이다. <br/> <br/>연구팀은 이 쥐들의 뇌를 직접 해부해 살펴봤다. 그 결과 방향성 정유가 신경줄기세포의 증식과 여러 뇌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향성 정유가 많이 첨가된 신경줄기세포가 주입된 쥐일 수록 이러한 효과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뤼거 박사는 뇌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이에 대해 영국치매연구학회의 로라 핍스 박사는 이 연구결과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 연구결과는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Stem Cell Research & Therapy)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이와 함께 카레를 자주 섭취할 경우 유방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전용순 교수(가천대 길병원)는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오뚜기가 후원해 열린 '제4회 카레 및 향신료 국제심포지엄'에서 "카레의 주성분인 커큐민과 함께 커큐민을 체내에서 흡수가 잘되도록 나노입자 형태로 변형한 '나노커큐민'을 유방암을 유발한 실험쥐의 유관에 주입한 결과, 탁월한 유방암 예방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br/> <br/>이 자리에서 이재원 교수(부산대)는 "커리의 향신료인 커큐민은 산화적인 스트레스와 염증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며 "마우스 신경줄기 세포(Neural progenitor cells)와 성인해마신경발생에서의 커큐민의 기능을 실험해 본 결과, 낮은 농도에서도 세포 생장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에게 의해 강황에 함유돼 있는 커큐민과 향신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 효과, 암 예방과 의학적 활용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등이 발표됐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으면 날아가는 느낌? 알고보니 "당신은 콜라를 단순히 음료수로만 생각하는가?" 강남 한복판서 불타오른 람보르기니, 피해액이 무려···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나체 동영상·살인 인증샷…도 넘은 SNS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42.txt

제목: ‘iSAMS2014’, 일본서 한의학 세계화 꽃 피운다  
날짜: 20140926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610015283516  
ID: 01100701.201409261001528351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의학 세계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iSAMS2014’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br/> <br/>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 올해로 10회째인 국제학술대회 ‘iSAMS’가 ‘침상연구의 새로운 방향 ; 기초 및 임상 연구’라는 주제로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일본 도쿄 쇼와대학(School of Medicine, Showa University)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br/> <br/>‘iSAMS2014’가 개최되는 쇼와대학은 1928년 설립돼 현재 동경과 요코하마 지역 등에 8개 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다. 일본 내에 유일하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재활의학대학’등 4개 학부가 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경시내 최대의 임상병원을 가지고 있다. <br/> <br/>이번 ‘iSAMS2014’는 9개국 28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일본에서 동서양 의학의 융합과 약침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물들을 발표하는 등 명실상부 세계 의학의 중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br/> <br/>그 기대만큼이나 9개국 28명의 석학들이 참석해 ‘침상연구의 새로운 방향 ; 기초 및 임상 연구’라는 주제로 한의학과 약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br/> <br/>특히 ‘iSAMS2014’ 대회장인 일본 쇼와대학 의과대학장 타다시 히사미츠 교수는 ‘혈액 유동성에 대한 침과 한약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얼바인 분교(UCI) 의과대학 존 롱허스트 교수는 ‘고혈압에 초점을 맞춘 침시술로 해석한 심혈관 메커니즘’ 연구를 발표한다. <br/> <br/>또 세계적인 신경학자인 스웨덴 캐롤린스카 의대 신경학부 쉘 푹세 명예교수와 독일 뷔르쯔부르그 대학 로버트 슈미트 명예 교수는 각각 ‘통증 조정에서의 침의 역할론’과 ‘통각(nociception)에서 만성 통증까지’라는 창의적인 주제로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br/> <br/>이와 함께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 캐런 필킹톤 박사는 ‘통증 침 치료에 관한 설득력 있는 증거 만들기’라는 주제로 침에 관한 논리적이고도 설득적인 결과 도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br/> <br/>아울러 한국에서는 대전대 유화승 교수, 동국대 이승덕 교수, 경희대 조성훈 교수, 원광대 주종천 교수 등이 참석해 한의학과 침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다. 특히 유 교수는 ‘암 치료에 있어서의 약침’이란 주제로 서양의학과 약침의 융합과 새로운 가능성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br/> <br/>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재 전 세계 의학계는 한국 한의학을 비롯한 각국의 전통의학을 주목하고 있고 미주나 유럽은 물론이고 남미나 아프리카까지도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을 정도로 한의학이 세계 의학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부분들이 약침과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고 ‘iSAMS’가 개최되는 의미</span>”라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이번 ‘iSAMS2014’에서는 우수한 한의학 관련 연구업적 이뤄낸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많은 과학 연구자들에게 한의학과 관련한 연구동기 부여와 함께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의학 전반에 걸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AMS(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 AWARDS의 7번째 시상식이 열린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급 공무원이 여직원에게 "왜 나랑 같이 자게?"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싱크홀에 삼켜진 어린소녀, CCTV 영상 보니···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택시에서 만취女 강제추행 하던 男, 몇 분 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43.txt

제목: ‘120세 무병장수의 꿈’ 오송서 만나세요  
날짜: 2014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510015276165  
ID: 01100701.201409251001527616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2014 오송 국제 바이오 산업엑스포가 26일 막이 오른다. <br/> <br/>25일 오송 바이오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엑스포는 충북도와 청주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 비용은 250억원에 달한다. <br/> <br/>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이 탄생시킨 천연기념물 제540호 ‘동경이’ 복제견. <br/>충북도 제공26일 오전 8시30분 KTX 청주 오송역 인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주공연장에서 엑스포 개막을 축하하는 개장식, 오후 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17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공군 블랙이글의 축하 비행과 비보이팀의 ‘생명의 비트’ 퍼포먼스, 신체의 움직임으로 빛과 소리를 연주하는 IT밴드 카타의 식전 공연이 예정돼 있다. <br/> <br/>엑스포는 주제전시 2개관, 체험 3개관, 산업 3개관과 인체탐험관, 체험학습센터, 야외체험장 등으로 구성됐다. 바이오미래관은 포스트 게놈 이후의 바이오 산업화 단계, 현황과 성과, 의료·의약·식량·에너지·융합기술 등 바이오 기술의 미래와 무병장수를 향한 인류의 꿈을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서울대 수의과학대 이병천 교수팀이 탄생시킨 천연기념물 제540호 ‘동경이’ 복제견도 볼 수 있다. <br/> <br/>주제영상관은 생명공학의 가치, 바이오산업이 가져올 아름다운 미래 세상을 3D 입체영상으로 보여주는 어드벤처형 영상관이다. ‘인류의 꿈, 바이오 라이프’라는 주제의 7분 분량 영상물에서 미래의 바이오 시대상을 미리 볼 수 있다. <br/> <br/>건강체험관은 생명 120세에 도전하는 바이오 미래 치료기술 체험 프로그램과 건강한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피 한 방울로 간단하게 암과 심장병, 갑상선질환 등을 진단할 수 있고, 우울증이나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br/> <br/>뷰티 체험관에서는 세계인이 열광하는 K뷰티를 즐기고 바이오 융복합 화장품 등 미래의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다. 에듀체험관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다. 충북도립대가 진행하는 ‘재미있는 바이오 실험실’에서는 생명과학의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다. <br/> <br/>이 엑스포에는 국내외 297개 바이오 기업과 700여명의 바이어가 참여한다. 관람객은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2383억원, 부가가치 1089억원으로 전망된다. 4176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br/> <br/>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국내외 바이오 산업의 흐름과 성과는 물론 미래 가치를 집대성한 바이오엑스포장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차기전투기 F-35 기술 이전 '핵심'은 쏙 빠져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싱크홀에 빠지는 어린소녀, CCTV 영상 '충격'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택시에서 만취女 강제추행 하던 男, 몇 분 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44.txt

제목: 면역요법치료로 암환자 면역력 극대화  
날짜: 20140924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410015262955  
ID: 01100701.201409241001526295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 1970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30년 내에 암을 정복하기로 하고 암 치료 연구에 아낌없는 재정 지원을 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할 동안에도 암은 정복되지 않았다. 미국 의학계에서 2기b~3기 스테이지 이상의 암에 대해서 현대의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암 치료에 있어 현대의학은 크게 발전했고 암 치료율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br/> <br/>일본의 경우, 200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가 아닌 새로운 제4의 암치료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면역세포치료로 불리는 면역요법은 현재 일본 전역에 걸쳐 크고 작은 240여 병·의원에서 암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다. <br/> <br/>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공인된 암 전문잡지· '암 선진의료(がんの 先進醫療)'를 발행하고 있는 출판사 사이트(www.gan-senshiniryo.jp)에 나와 있는 일본 내 세포배양 또는 치료 병원 리스트를 살펴보면 세포배양 전문기관 5개 중 유일하게 병원에서 배양과 세포치료를 하는 곳이 있다. <br/> <br/>암 전문 센신병원은 미국 FDA가 정한 엄격한 기준으로 설치돼 있는 세포배양실· CPC(세포처리센터)에서 병원장이자 배양책임자인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의 40년의 세포배양기술(일본 및 한국에서 특허로 인정)을 가지고 있다. <br/> <br/>'구라모치식' 5종복합면역요법은 5종의 면역세포를 동시에 배양해 면역세포간 네트워크를 형성· 팀플레이(Team Play)를 가능케 해 암환자의 체내에 투여함으로써 암 환자의 면역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배양 시 면역세포의 수는 200~500배로 증식·활성화되고 완성된 세포배양치료제는 환자의 몸 속으로 들어가 암세포를 적극적으로 공격한다. <br/> <br/>의료기관마다 여러 세포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종합병원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라모치 박사의 5종복합면역요법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과 공동 임상연구도 진행도 병행하고 있다. <br/> <br/>현재는 5종복합면역요법보다 더욱 발전된 5종복합면역세포가 포함된 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치료가 있고, 특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치료'는 치료 받고 있는 암 환자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 눈에 띄게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br/> <br/>DC-AIvac•CSC(암 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치료)는 구라모치 박사가 일본 유명 제약회사와 공동 연구로 개발한 암 줄기세포의 특이항원을 이용한 치료법이다.(대학병원과 공동임상 중) <br/> <br/>구라모치 박사는 “<span class='quot0'>암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암 환자이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그들이 본래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한국의 암 환자는 (주)에스유 바이오(02-453-0901)를 통해 상담 또는 문의할 수 있다.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45.txt

제목: 서울대 약대 연구팀 “손상 뇌조직 보호하는 단백질 규명”  
날짜: 20140924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410015263169  
ID: 01100701.201409241001526316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뇌수막의 즉각적인 회복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찾아내고 그 기능을 규명했다. 뇌를 둘러싸 보호하는 뇌수막은 손상되더라도 바로 재구축되는데, 이번 연구로 뇌수막 재생을 돕는 새 치료법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김규원(사진) 서울대 약대 교수팀은 이런 연구성과를 담은 논문을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의 최근호 온라인판에 실었다. <br/> <br/>그동안 뇌수막 세포가 뇌 손상 부위 주변으로 이동해 재구축하는 사실을 확인됐지만, 이런 과정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은 규명되지 않았다. <br/> <br/>연구팀은 뇌손상 후 회복과정에서 암 억제 단백질로 알려진 ‘AKAP12’가 뇌수막의 재구축 과정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뇌손상에 따른 혈관손상으로 저산소 상태에 노출되면 뇌수막 세포에서 AKAP12 생성이 줄고, 이게 정상 뇌의 뇌수막에서 많이 발현되는 ‘TGF-β1’ 단백질에도 영향을 미쳐 뇌수막 세포가 병변주변으로 이동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저산소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혈관에서 새로운 혈관이 뻗어 나와 산소를 공급하면서 다시 뇌수막 세포의 AKAP12 생성이 회복된다. 이후 TGF-β1 단백질에 의해 손상부위 주변으로 새로운 뇌수막 구조가 재구축된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앞으로 뇌손상 환자의 뇌수막 재구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치료법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46.txt

제목: 에스터-C 비타민의 이유 있는 돌풍  
날짜: 20140923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310015252103  
ID: 01100701.20140923100152521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비타민C의 수요 증가로 츄어블이나 분말형태의 비타민C· 비타500과 같은 드링크류· 원산지를 강조한 고려은단 비타민C 등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C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 <br/> <br/>하지만, 높은 함유량에 비해 체내 흡수율 및 이용률이 낮은 제품을 복용하거나 비타민C를 과다복용할 경우 복통이나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체외 배설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요로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br/> <br/>이런 가운데 JTBC ‘닥터의 승부’를 통해 알려진 '에스터-C' 비타민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허 받은 비타민C인 에스터-C는 기존 비타민C의 문제점을 해결해 체내흡수율 및 이용률이 높고, 위장의 불편함 없이 흡수할 수 있다. 또 비타민C의 체외 배출이 적어 결석에 대한 우려가 적다. <br/> <br/>이 같은 장점 덕분에 에스터-C는 닥터의 승부 방송 후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며 '변정수 비타민'으로 유명세를 탔다. <br/> <br/>이날 방송에서 외과 강세훈 원장은 "갑상선암 등 암 예방에 비타민C가 도움이 된다"며 “비타민C 섭취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산도가 강한 비타민C는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공복 섭취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고함량 제품이 아닌 체내흡수율이 높은 제품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br/> <br/>강 원장은 또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굳이 식후가 아니더라도 운동 전 간편하게 섭취하는 데에는 에스터-C 형태로 된 비타민제가 좋다"며 "뿐만 아니라 에스터-C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현저히 적어 옥살산결석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전했다. <br/> <br/>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은희 원장은 “비타민 연구 중에 산화가 덜 되고 안정적이며 조금만 섭취해도 체내에 오래 잔존해 흡수율이나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에스터-C다"며 "에스터-C는 24시간 이상 백혈구 내 남아 활동해 감기에 좋은 예후를 보인다거나, 혈청 내 비타민 C 농도를 2배를 유지한다. 논문에 따르면 에스터-C 섭취 그룹이 감기에 덜 걸리고, 감기를 겪는 기간이 1.3일 더 적어 빨리 호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47.txt

제목: 줄기세포·유전자 치료 규제완화 논란 재점화  
날짜: 2014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310015256250  
ID: 01100701.201409231001525625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정부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생명공학 선진국들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 대 생명윤리’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br/> <br/>정부 관계자는 23일 “<span class='quot0'>보건당국이 올해 안에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의 1차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span>”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br/> <br/>현재 줄기세포 치료제 중 1단계 임상시험 면제 대상은 자가줄기세포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이와 관련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br/> <br/>시민단체와 의료윤리학자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span class='quot1'>줄기세포는 몸속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와 안전성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많이 하는데,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국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span>”이라고 비판했다. <br/> <br/>복지부가 추진 중인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생명윤리법 개정도 문제다.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질환·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 두 조건 가운데 한 경우만 해당돼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 치료제는 1990년대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아직 임상시험에 성공한 나라가 없는 기술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아직 인간유전자 치료제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br/> <br/>정부는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이 지난해 33조원 규모에서 2020년 123조원 규모로 확대된다고 내다봤다. 유전자 치료제도 같은 기간 10조원에서 21조원으로 시장이 확대할 것이라며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아직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산출된 시장 규모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br/> <br/>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현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경찰청이 최근 경찰견의 복제사업에 황우석 박사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선정하면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이날 “<span class='quot3'>특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을 복제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차라리 외국의 다양한 특수견을 구입해 자연교배를 통해 경찰견을 확보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과학적</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48.txt

제목: 한국인 자살·위암·교통사고 사망률 OECD 최고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610015203732  
ID: 01100701.2014091610015203732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우리나라의 자살·위암·교통사고(운수)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이 2012년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10년에 비해 28.2%(약 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br/> <br/>위암 사망률은 2012년 23.4명으로 10년 전(42.8명)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칠레(27.9명)와 일본(25.4명)에 이어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체 암 사망률은 29위,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은 32위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평균(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02년 인구 10만명당 1054.6명에서 2012년 753.8명으로 28.5%나 감소했다. <br/> <br/>우리나라 2012년 사망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10대 원인 가운데 1위는 암으로 7만3759명이 숨졌고, 이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각각 2만6442명, 2만5744명이다. 자살은 그 뒤를 이어 1만4160명으로 당뇨병 1만1557명 보다 많았다. 운수사고는 6502명으로 9대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숙대 교수 "밤일 나가냐, 뛰어 내려 죽어라" 폭언 "일은 내가 하는데 부모 학력이 무슨 상관이죠?" 강병규, 이병헌 겨냥? SNS에 "게임은 끝났다"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월급 10만원 병사들 '담뱃값 4500원'소식에 패닉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49.txt

제목: [이코노 브리핑] 이니스프리 ‘생녹차수 기술’ 인증 외  
날짜: 2014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510015194386  
ID: 01100701.2014091510015194386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이니스프리 ‘생녹차수 기술’ 인증 <br/> <br/>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숍 이니스프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그린티 라인’ 제품의 핵심원료를 추출하는 ‘생녹차수 기술’이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녹색기술인증은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제품·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기 위해 2010년 시행한 인증제도다. <br/> <br/>연내 증권사서도 은행계좌 개설 <br/> <br/>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법 시행에 따라 11월 말부터 증권사에서도 시중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금융사 간 통장개설 시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토록 해 은행 등 타 금융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할 수 있는 연결계좌 정도였다. <br/> <br/>우리銀 명동성당 영업점 개설 <br/> <br/>우리은행은 명동성당 앞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신청사에 서민금융 전담 영업점인 ‘우리희망나눔센터’ 가톨릭점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희망나눔센터는 서민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점포로, 지난해 5월 서울 상계동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센터에서는 새희망홀씨대출 등을 판매한다. <br/> <br/>신한유니버설 6대 종신보험 출시 <br/> <br/>신한생명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에 더해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말기 3대질병(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신한유니버설6대 건강종신보험(사진)’을 15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6대질병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를 선지급하고, 미진단 시 사망보험금 100%와 유족위로금 30%를 지급한다.<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섹스인형'에 경찰 대거 출동, 상황 알고보니… 강병규, 이병헌 겨냥? SNS에 "게임은 끝났다" "뽀뽀하기 좋은 입술~" 제자 상습 추행한 교사 결국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월급 10만원 병사들 '담뱃값 4500원'소식에 패닉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50.txt

제목: [재미난 융합과학 이야기] (39) 로봇으로 암을 치료한다  
날짜: 201409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410015183677  
ID: 01100701.201409141001518367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정상세포는 일정 횟수 이상 분열하거나 다른 세포와 접촉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지만 세포 주기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분열을 계속하게 된다. 이렇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분열해 증식하면 다른 세포들 위로 여러 층을 이루며 세포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를 종양이라고 한다. 일부 종양은 혈관 속으로 들어가 다른 부위까지 이동해 또 다른 종양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를 전이라고 하며, 이렇게 전이를 일으키는 종양을 암이라고 한다. <br/> <br/>암세포는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정상신호를 무시한다. 또 배양 중에 밀도 의존성 억제를 보이지 않으며, 성장 인자가 부족해도 분열을 멈추지 않는다. 암세포는 필요한 성장인자를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신호 전달 경로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양 상태에서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기만 하면 분열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러한 암의 치료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부 종양은 외과수술을 통한 제거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암세포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 방사선 요법을 병행한다. 방사선은 염색체를 손상시켜 세포주기가 중단되도록 한다. 따라서 암세포처럼 분열하고 있는 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방사선에 훨씬 민감하다. 부작용은 방사선이 조사된 부위의 피부가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는 것, 탈모현상, 극심한 피로와 무력감, 구역질 등이 있다. <br/> <br/>화학요법은 몸 전체로 전이된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에는 DNA를 손상시키거나 DNA 복제를 억제하는 것,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작용을 저해하는 것 등이 있다. 부작용은 약제에 의해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도 파괴될 수 있는 점이다. <br/> <br/>요즘 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로봇을 이용한 외과수술이 각광받고 있다. 로봇수술은 위암과 대장암, 방광암, 자궁암 등 여러 가지 암의 수술에 적용하게 되었다. 로봇수술은 환자의 몸에 뚫은 구멍 안에 수술용카메라와 로봇팔을 넣어 의사의 원격조종에 의해 진행된다. 의사는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암이 있는 부위를 10∼15배 크게 볼 수 있으며, 의사의 손동작이 로봇팔에 그대로 전달돼 정교하게 수술을 하게 된다. 의사가 직접 손으로 하는 수술 방법보다 절개부위가 작아 출혈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수술 시간이 짧아 통증이 덜하며 회복이 빠르다. 또 암을 더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어 암의 재발을 줄일 수 있다. <br/> <br/>미래엔 올리드 과학팀<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독] 전자발찌 부착 대학생 2개월만에 또 성추행 월급 10만원 병사들 '담뱃값 4500원'소식에 패닉 "눈물나고 미칠 것 같다" 아기 자지러져 살펴보니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30대男, 부인 폰으로 여고생에 음란영상 보냈다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51.txt

제목: 수에즈운하 기념우표에 파나마 운하사진이?  
날짜: 201409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410015183861  
ID: 01100701.2014091410015183861  
카테고리: 국제>중동\_아프리카  
본문: 이집트가 수에즈운하 확장 프로젝트를 기념해 발행한 우표에 수에즈운하가 아닌 파나마운하 사진을 싣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br/> <br/>13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집트 우편국은 기념우표 3종중 한 우표에 이집트 지도와 함께 운하의 사진을 담았다. 우표가 공개되자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암로 알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파나마운하 사진과 함께 우표의 오류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파나마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운하다. <br/> <br/> 수에즈운하 프로젝트 기념 우표(왼쪽)와 파나마운하 사진.우표 속 운하는 파나마운하와 거의 똑같다. 무엇보다 우표 속 운하는 바다로 이어지는 2개의 수로가 있지만 실제 수에즈운하의 수로는 하나밖에 없다. 알리는 “이집트가 파나마운하 사진을 훔쳤다”며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br/> <br/>이집트 정부 관계자는 실수를 인정하면서 “<span class='quot0'>오류를 수정해 다음 주 우표를 다시 발행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이집트 정부는 지난달 총 공사비 84억달러(약 8조7000억원) 규모의 수에즈운하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br/> <br/>이진경 기자<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독] 전자발찌 부착 대학생 2개월만에 또 성추행 월급 10만원 병사들 '담뱃값 4500원'소식에 패닉 "눈물나고 미칠 것 같다" 아기 자지러져 살펴보니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30대男, 부인 폰으로 여고생에 음란영상 보냈다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52.txt

제목: 히포크라테스의 온열요법, 한방암치료 효과?  
날짜: 20140906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610015150680  
ID: 01100701.201409061001515068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의학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온열요법을 통해 어떠한 질병도 극복할 수 있으며, 온열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체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br/> <br/>체온을 높여 신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온열요법으로 한방암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열요법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정도로 여기곤 한다. <br/> <br/>하지만 이 요법은 찜질• 뜸• 온욕 등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인정 받은 보완대체요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 의학계에서도 이런 온열요법을 활용한 치료방법이나 의료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 <br/> <br/>우리 몸의 세포는 심부체온이 섭씨 36.5~37도일 때 활성화된다.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세포들이 활동을 잘 못해서 면역기능이 떨어진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 정도 저하되며,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3배~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r/> <br/>한방암치료로 온열요법이 좋은 이유는, 몸이 따뜻해지면 생기는 열활성단백질 때문이다. 이 열활성단백질은 체온이 높을 때 자극을 받아 생성되는 단백질로, 체내에 열활성단백질이 증가하면 엔도르핀의 분비가 활성화되고 몸의 면역기능이 올라간다. <br/> <br/>암세포는 온도가 낮을 때 활성화되고, 42도 정도의 열에서는 죽는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 암세포까지 42도의 열을 전달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때문에 온열요법은 암 치료의 보조요법으로도 많이 쓰인다. <br/> <br/>한방 병원을 내원한 암 환자 140명을 대상으로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항암치료와 한방면역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은 증상개선 및 부작용 감소 등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삶의 질이 92.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계모가 "포르노 따라해"…남매의 악몽 "○○년, 한번 줄래?" 서울시 공무원 도 넘은 성희롱 로스쿨 교수, 성희롱…"넌 중상, 넌 중하, 넌 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엑소 쫓아다니려 범죄저지른 '사생팬', 끝내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53.txt

제목: 위암 조기검진의 날, 미리 알고 예방하자  
날짜: 20140905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510015144953  
ID: 01100701.201409051001514495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오는 7일은 그린벨재단이 정한 ‘위암 조기검진의 날’이다. 9월 7일인 이유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7% 완치 가능하다는 의미로, 위암조기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위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선포됐다. <br/> <br/>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발표한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3%로 3명 중 1명은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br/> <br/>남녀를 합해 2011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 다음으로 위암이었고, 남성의 경우 위암의 발병률이 가장 높았다. <br/> <br/>위장을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위내시경과 위장조영촬영이 대표적이다. 위내시경 검사는 위 안의 기포를 제거하는 약을 마시고 목에 마취한 후 위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약을 주사한 뒤, 끝에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입으로 집어넣어 식도, 위, 십이지장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다. <br/> <br/>화면을 통해 위 안을 직접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검사 중 어떤 병변을 발견하면 조직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용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br/> <br/>위장조영촬영검사는 조영제인 바륨과 발포제를 마신 뒤 X선 촬영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발포제는 탄산가스를 발생시키며 팽창해 바륨을 위벽에 도포하는 역할을 하는데, 탄산가스는 검고 바륨은 하얗게 나타나므로 위벽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검사 중 큰 불편감이 없고 시간도 10분 정도이므로 비교적 간편하다. <br/> <br/>위암의 위험인자로는 위암 가족력, 헬리코박터균 감염, 흡연, 염장 음식, 가공된 단백질, 신선하지 않은 음식 등이 있다. <br/> <br/>이런 위험인자가 겹쳐져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반드시 위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정 가능 인자(흡연, 식이습관,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박재현 과장은 “<span class='quot0'>위암은 뚜렷한 위험인자 없이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이 호발되는 곳에서는 40세 이후부터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나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위내시경에서 위암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소견이 나타나면 정기적인 위내시경검사가 필요한데, 주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궤양, 위의 선종성 용종 등이다. <br/> <br/>이런 소견이 있을 경우 병변의 정도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추적검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평소 건강생활 실천과 함께 정기적으로 나이, 건강상태, 가족력 등을 고려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위암예방의 지름길이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학교수, 버스에서 20대女 특정부위 몰카찍다가… '회사에서 음란물 내려받다니…해고' VS '억울해요' 아이돌 가수들, 목숨건 도로위 '무법질주'…대체 왜?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韓미인대회 우승 미스 미얀마 "성접대 강요받아"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54.txt

제목: 막걸리 가라앉은 부분에 항암물질 '스쿠알렌' 많아  
날짜: 20140903  
기자: 이귀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310015124823  
ID: 01100701.201409031001512482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막걸리의 가라앉은 부분에 암의 발생이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항종양 물질인 스쿠알렌과 파네졸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한국식품연구원 식품분석센터 하재호 박사 연구팀은 3일 “최근 연구에서 국내에서 팔고 있는 막걸리에 스쿠알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면서 “함량도 맥주와 포도주보다 50∼200배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스쿠알렌 함량은 1260∼4560㎍(마이크로그램)/㎏으로 포도주(10∼60㎍/㎏)와 맥주(30∼60㎍/㎏)보다 50∼200배 많았다. <br/> <br/>하 박사 연구팀은 스쿠알렌이 막걸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효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앞서 하 박사 연구팀은 2011년 막걸리에서 항암물질인 파네졸 성분을 세계 최초로 분석해 발표한 있다. 하 박사는 “<span class='quot0'>막걸리가 과학적으로도 우수한 술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막걸리의 가라앉은 부분에 스쿠알렌과 파네졸이 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마실 때 잘 흔들어 마시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스쿠알렌과 파네졸 분석기술에 관한 연구결과는 지난 2월 국내 분석전문 학술지인 한국분석과학회지와 세계적인 식품관련 전문학술지인 ‘Food Chemistry’에 각각 게재됐고 이번에 개발한 스쿠알렌과 파네졸 간편 분석기술은 ‘Journal of AOAC International’에 게재될 예정이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55.txt

제목: 암 전이과정 규명… 치료제 개발 새길  
날짜: 2014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210015119511  
ID: 01100701.201409021001511951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 전이를 막는 치료법의 실마리를 풀었다. ‘두 번째 암’으로 불리는 전이암은 발생원리가 밝혀진 바가 거의 없어 치료를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br/> <br/>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엄홍덕(사진) 한국원자력의학원 박사팀은 암세포 전이가 일어나는 유전자 경로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전이를 촉진하는 효소를 찾아내고, 이 효소를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규명했다. <br/> <br/>연구팀은 폐암 세포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 위치한 ‘콤플렉스1’ 효소가 암 전이를 촉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효소는 활성산소 생성을 통해 암 전이를 촉진했다. 이 같은 전이과정에는 쓸모없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백스’ 단백질이 관여한다는 사실도 연구팀은 확인했다. 더불어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p21’ 단백질이 암 전이를 촉진하는 물질을 분해함으로써 이를 억제한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br/> <br/>엄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에 규명된 암 전이 경로를 바탕으로 억제를 극대화하는 물질 또는 기술을 개발해 사전 차단하면 암환자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56.txt

제목: 녹십자랩셀, 첨단 바이오의약품 지원 대상 선정  
날짜: 2014082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810015077817  
ID: 01100701.201408281001507781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녹십자랩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항암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치료제인 ‘MG4101’가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br/> <br/>이번 선정에 따라 녹십자랩셀은 식약처의 허가 심사자와 맞춤형 협의체를 구성해 ‘MG4101’ 개발에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받게 된다. 이 협의체는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는 방향 또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안종성 녹십자랩셀 이사는 “<span class='quot0'>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중 의료적 중요성과 제품화 성공 가능성 등을 검토해 녹십자랩셀에서 개발중인 자연살해세포치료제가 최종 선정된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녹십자랩셀의 ‘MG4101’은 종양 및 감염병 치료를 목적으로 정상인의 말초혈액에서 자연살해세포를 분리 및 증식 배양한 세포치료제다. <br/> <br/>자연살해세포는 우리 몸에서 암 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파괴해 암을 막아주는 면역세포를 의미한다. 정상인의 경우 하루 4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성된다. 이 가운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변이세포는 약 400개. 통상 체내에 존재하는 자연살해세포가 변이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변이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암이 발생하게 된다. <br/> <br/>자연살해세포치료제가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체외에서 자연살해세포를 증식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제품화를 위해서는 암세포살해능력과 세포생존율을 일정하게 관리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br/> <br/>녹십자랩셀은 이미 지난해 ‘MG4101’ 임상 1상을 완료하고 대량 배양 및 동결기술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인 상태로, 현재는 간암과 소아암에 대한 연구자 임상 2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내년 상반기안에 간암에 대한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r/> <br/>‘MG4101’은 기존 면역세포치료제의 생산 및 공급의 한계, 높은 생산비용의 문제를 극복한 면역세포치료제로 건강한 사람의 면역세포를 사용하여 상시 공급이 가능함은 물론 면역 부작용 없이 치료효과를 높이는 신개념의 면역 세포치료제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br/> <br/>한편 미국 대형금융업체인 시티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항암 면역치료제 세계시장은 10년 안에 350억 달러(약 3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57.txt

제목: 국내연구진, 간암 치료 효과 높인 '나노미사일' 개발  
날짜: 20140821  
기자: grl87@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1100000055  
ID: 01100701.2014082110000005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싱가포르의 공동연구진이 천연 물질로 간암 치료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인 '나노미사일'을 개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연구단의 현택환 단장 연구팀이 싱가포르 국립암센터와 공동으로 연구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암 치료법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간암은 생존율이 가장 낮은 종양으로 분류된다. 미국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간암치료제 가운데 효과가 가장 좋다는 '소라페닙'도 간암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지 못한다.연구팀은 수백 종의 약물 조사를 거쳐 천연물인 미역순나무에서 발견된 트립톨리드(triptolide)가 간암 세포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만 독성이 강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연구팀은 종양조직(pH 6.5)이 정상조직(pH 7.4)보다 산도가 낮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중성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산성인 간암 조직에서만 터지는 고분자를 만든 뒤 트립톨리드를 그 안에 담았다. 여기에 암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는 엽산(비타민B군에 속한 수용성 비타민)을 붙여 종양만 공격하도록 유도했다. 이 나노미사일은 정상 조직을 피하고 간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연구팀은 생쥐로 실험한 결과 생존율이 3배 이상 개선된 사실도 확인했다. 현택환 단장은 "효능이 뛰어난 천연 간암치료제를 발굴한 것은 물론 나노기술을 융합한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성과는 지난 5일 미국화학회가 발행하는 나노재료분야 국제학술지인 'ACS 나노' 온라인판에 실렸다.이가람 기자 grl8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58.txt

제목: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2명 항소심도 산재 인정  
날짜: 20140821  
기자: 이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110015025889  
ID: 01100701.2014082110015025889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하지만 다른 공정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산재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r/> <br/>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은경씨 등 다른 근로자 3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br/> <br/>재판부는 우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했던 황씨 등 2명의 경우 원심과 같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0'>망인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등에 근무하면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span>”고 판단했다. <br/> <br/>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및 기흥사업장 5라인 공정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취급 물질이 암과 무관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r/> <br/>원고 측 이종란 노무사는 판결 직후 “<span class='quot1'>삼성전자 측의 정보 은폐와 사실 왜곡 등 반박 주장에 맞서 싸워야 했는데 (산재를 인정해준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유족들 고통에 삼성전자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59.txt

제목: 국내 연구진, PET 이용한 암 융합진료 시스템 개발  
날짜: 20140819  
기자: grl87@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9100000054  
ID: 01100701.2014081910000005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대표적 의료 영상장비인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를 이용해 암 진단과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유전자 시스템을 개발했다.한국원자력의학원 강주현·김광일 박사팀은 PET 장비에 유전자 치료시스템을 접목시켜 암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융합진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밝혔다.이 유전자치료는 방사성동위원소인 '구리-64'를 이용한 것으로 '사람 구리수송체(hCTR1) 유전자'를 이용해 암 조직에 구리수송체를 과발현시킨 후 구리-64를 정맥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PET를 찍게 되면 암세포에 구리-64가 집중돼 암의 크기와 위치가 영상화되는 것은 물론 구리-64에서 배출되는 방사선으로 암세포가 파괴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즉 기존에는 암세포 진단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방사성의약품에 유전자 치료시스템을 접목시킴이로써 진단과 함께 치료도 가능해진 셈이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난치성 암의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컨버전스 방사성의약품의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번 연구는 핵의학 분야 권위지인 '미국 핵의학회저널(Journal of Nuclear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이가람 기자 grl8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60.txt

제목: 국립암센터, 2014 암 대사 워크숍 개최  
날짜: 2014081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810014993666  
ID: 01100701.201408181001499366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립암센터는 22일 오후 1시 국립암센터 연구동 1층 대강당에서 ‘2014 암 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br/> <br/>이번 워크숍은 ‘어둠 속에 한줄기 빛’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말기암, 난치암에 희망적인 암 대사연구의 태동’을 비롯한 총 9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br/> <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립암센터 미래도전암대사통합연구사업 및 보건복지부 암정복과제 ‘암 대사’연구과제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암 대사 연구의 방법론과 성공적 성과들이 소개될 것이며, 관심 있는 이들과의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br/> <br/>워크숍 참가 등록비는 무료이며, 사전등록은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61.txt

제목: 체온 1℃의 과학, 한방암치료 온열요법  
날짜: 2014081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810014997481  
ID: 01100701.201408181001499748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의학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온열요법을 통해 어떠한 질병도 극복할 수 있으며, 온열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체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br/> <br/>체온을 높여 신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온열요법. 많은 사람들이 이 요법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정도로 여기곤 한다. 하지만 이 요법은 찜질· 뜸· 온욕 등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인정 받은 보완대체요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br/> <br/>또 의학계에서도 이런 온열요법을 활용한 치료방법이나 의료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한 온열요법 <br/> <br/>우리 몸의 세포는 심부체온이 섭씨 36.5~37도일 때 활성화된다.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세포들이 활동을 잘 못해서 면역기능이 떨어진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 정도 저하되며,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3배~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r/> <br/>온열요법이 건강 효과를 내는 이유는, 몸이 따뜻해지면 생기는 열활성단백질 때문이다. 이 열활성단백질은 체온이 높을 때 자극을 받아 생성되는 단백질로, 체내에 열활성단백질이 증가하면 엔도르핀의 분비가 활성화되고 몸의 면역기능이 올라간다. <br/> <br/>소람한방병원의 김성수 대표원장은 "이런 치료기전을 이용해 한방암치료에는 온열요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온열요법은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돼 암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 개선된다. 또 암으로 인한 통증이 감소해 대사 기능이 좋아져 암환자들에게 매우 효과 높은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일상생활에서도 온열요법을 응용한 반신욕 <br/> <br/>소람한방병원 김성수 대표원장은 "집에서는 뜸을 뜨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찜질팩을 이용하거나 반신욕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며 "찜질은 배꼽과 배꼽의 2~3㎝ 아랫부분을 하루에 한 번씩 해주면 된다"고 전했다. <br/> <br/>김 원장은 이어 "그 효과로 몸의 대사 기능이 올라가 만성적인 소화기 증상이 완화된다"면서 "아랫배나 엉덩이 부위를 찜질하는 것도 좋다. 뜨거운 장판에 누워서 온몸을 지지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는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평소에는 장판 온도를 피부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로 맞추고 사용해야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도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항암치료 병행하면 부작용 개선 등 효과 높아져 <br/> <br/>암세포는 온도가 낮을 때 활성화되고, 42도 정도의 열에서는 죽는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 암세포까지 42도의 열을 전달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때문에 온열요법은 암 치료의 보조요법으로도 많이 쓰인다. <br/> <br/>소람한방병원을 내원한 환자 140명을 대상으로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항암치료와 한방면역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은 증상개선 및 부작용 감소 등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삶의 질이 92.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62.txt

제목: 유방암 환자 급증, 한방 면역 암 치료법 이란?  
날짜: 20140818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810014998495  
ID: 01100701.201408181001499849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4년 사이에 유방암 환자 수가 4배가량 급증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는 1만 6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에 걸리는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37.1%), 50대(29.1%), 60대(14.0%), 30대(12.7%), 70대(5%) 순으로 밝혀져 40대 이하 젊은 여성층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폐경 이후 50대와 60대의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며 유방암의 ‘안전세대’를 찾아볼 수 없다. <br/> <br/>실제로 50대 후반의 한 주부는 최근 진행성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8년 전 유방암이 재발했던 것. 한쪽 가슴 전체를 절제하고 항암치료까지 받았지만, 재발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이처럼 모든 여성에게 싸늘한 공포로 다가오는 유방암은 한 번 걸리면 가슴을 상실할 수도 있어 큰 절망감을 주는 암으로 꼽힌다. <br/> <br/>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대부분 유즙(모유)을 만드는 조직이나, 유즙이 밖으로 나오는 관에서 가장 바깥쪽 세포인 상피세포에서 암세포로의 변이가 생겨 발생한다. 발병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전적, 환경적, 영양적, 호르몬적인 요인 등 복합적인 인자가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br/> <br/>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5%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암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유방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종괴가 발견될 수도 있다. 특히, 치료를 한 후에도 언제든지 전이와 재발이 나타날 수 있어 꾸준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하다. <br/> <br/>때문에 다양한 치료법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항암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최근 생명나눔한의원에서는 한방암치료법을 통해 효과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바로 항암본초와 산삼을 통해 만든 ‘산삼생명단’ 치료법. <br/> <br/>한방 면역 암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생명나눔한의원 안소미 원장은 “<span class='quot0'>산삼생명단을 통해 유방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재발이나 전이를 방지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후유증 개선, 백혈구 등 면역세포증가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pan>”고 전했다.  도움말:생명나눔한의원 안소미 원장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63.txt

제목: 동아ST, 듀라스틴 주 식약처 허가 취득  
날짜: 2014081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810014993337  
ID: 01100701.201408181001499333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동아에스티는 호중구감소증치료제인 ‘듀라스틴 주사액(트리페그필그라스팀)’에 대해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br/> <br/>호중구감소증이란 백혈구 안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호중구가 갑자기 떨어질 때의 증세를 말하며, 호중구감소증치료제 G-CSF 제제는 암환자의 항암치료 시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암보조치료제다. 지난해 전 세계 약 6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암젠사(社)의 ‘뉴라스타’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br/> <br/>‘듀라스틴’은 독자적인 지속성제제 기술을 적용해 개량한 과립구콜로니자극인자(G-CSF) 제제의 2세대 약효지속성 바이오베터 의약품으로, 적응증은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이다. <br/> <br/>1세대 G-CSF제제보다 수용성을 증가시키고 생체 내에서 장시간 약효를 유지하여 항암화학요법 주기 당 단1회 투여로 호중구감소증의 예방 및 발현 기간을 감소시킨다. <br/> <br/>동아에스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세대 바이오베터 의약품 듀라스틴은 기존에 매일 투여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복용 편의성을 높였고, 잦은 투여로 인한 면역반응 유발의 가능성을 낮췄다</span>”며 “<span class='quot0'>금년 내 발매와 해외 개발 및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듀라스틴’은 2003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2007년 전임상 시험을 완료했다. 이후 임상시험을 통해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예방 및 치료에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고 지난해 8월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64.txt

제목: 캡사이신 과다 섭취 암 발생 촉진한다  
날짜: 2014081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310014964163  
ID: 01100701.2014081310014964163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매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암에 걸린다는 속설은 사실일까. <br/> <br/>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아군 즉,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결국 위암을 비롯한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헌식 교수팀은 캡사이신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캡사이신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자연살해세포의 세포질 과립방출 기능장애를 일으켜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br/> <br/>자연살해세포는 혈액 속에서 떠다니다 암세포를 만나면, 암 세포막에 구멍을 낸 후 세포질과립을 분비해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항암면역세포이다. <br/> <br/>연구진은 여러 암세포를 대상으로 캡사이신의 양을 10μM, 20μM, 50μM, 100μM(마이크로몰?백만분의 1몰) 등으로 각각 다르게 투여한 후, 자연살해세포 활성도를 비교 분석했다. <br/> <br/>연구결과, 위암세포 AGS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자연살해세포 활성도(세포질 과립 방출 정도)가 캡사이신 투여 전 15%에서 고용량 50μM을 투여 후 10%로 활성도가 33%나 감소했다. <br/> <br/>자연살해세포 기능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혈액암세포 221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캡사이신 투여 전 32%에서 50μM 투여 후 16%, 100μM 투여 후 4%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반면 저용량의 캡사이신 10μM, 20μM을 투여했을 때에는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28%, 27%로 투여 전 32%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br/> <br/>캡사이신 자체가 암을 일으키진 않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캡사이신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아군의 무기를 망가뜨려 암세포의 발생을 간접적으로 돕는 셈이다.  <br/> <br/>김헌식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자연살해세포 활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용량 캡사이신에 대한 활성억제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캡사이신을 고용량으로 섭취할 개연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헌식 교수 <br/> <br/>또 캡사이신은 체내 수용체인 TRPV1 단백질과 결합해 항암활성을 나타내는데, 고용량의 캡사이신은 TRPV1과 결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연살해세포의 기능 장애를 유도했다. <br/> <br/>이는 상대적으로 TRPV1이 부족하거나 민감성이 떨어지는 30, 40대 이후 성인이 캡사이신을 다량으로 섭취했을 경우, 암 발생이 촉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br/> <br/>그동안 캡사이신은 암 억제나 진통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지만, 항암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장애를 일으킨다는 연구는 없었다. 이번 연구는 암세포에만 국한됐던 캡사이신에 대한 연구를 항암면역세포로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존 캡사이신 연구가 암에만 국한됐던 반면, 이번에는 항암면역세포 활성에 관한 최초의 연구</span>”라며 “<span class='quot0'>캡사이신에는 항암, 통증완화 등 유용한 생리 활성성분도 많은 만큼 적당하게 먹으면 좋지만, 지나치게 매운 고추는 피하고,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br/> <br/>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프로티어 사업과 선도연구센터 사업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영국의 권위 있는 국제 SCI 학술지 ‘칼시노제네시스(발암학회지, IF:5.635)’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65.txt

제목: “매운 음식 지나치게 먹으면 암 발생 촉진”  
날짜: 2014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310014969958  
ID: 01100701.201408131001496995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암 발생이 촉진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헌식 교수팀은 여러 종류의 암세포에 캡사이신을 투여한 결과 체내에서 항암 면역기능을 하는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암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자연살해세포는 혈액 속에서 떠다니다 암세포를 만나면 암 세포막에 구멍을 낸 후 세포질과립을 분비해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br/> <br/>캡사이신이 암 유전자(EGFR)의 활성을 유도해 염증 유발 및 암 발생에 중요한 단백질(COX-2)을 발현시켜 피부암 등의 발생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적은 있지만 자연살해세포와의 연관성을 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캡사이신 자체가 암을 일으키진 않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캡사이신을 섭취하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 속 아군의 무기를 망가뜨려 암세포의 발생을 간접적으로 돕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66.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산야초 발효액과 면역 강화  
날짜: 2014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0610014923845  
ID: 01100701.201408061001492384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서부 아프리카에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에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고열, 출혈, 탈수 등의 증상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br/> <br/>2003년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를 강타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감염자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발효식품인 김치 덕분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br/> <br/>김치에 많이 들어 있는 마늘은 이미 암과 심장병 발생률을 줄이고 각종 감염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치가 조류독감 퇴치에도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김치를 비롯한 된장, 청국장 등 발효식품은 단순한 영양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r/> <br/>요즘 제철에 수확되는 산야초나 과일을 설탕에 담가 만든 ‘발효액’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고 있어 많은 사람의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 산야초, 과일을 재료로 만든 발효액도 인체 면역력을 증강하는 성분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br/> <br/>발효는 유기물이 미생물 작용에 의해 분해돼 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당분해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오래전부터 빵, 양조제품 제조 등에 이용돼 왔다. 발효에는 효소가 중요하게 관여한다. <br/> <br/>효소(엔자임)는 각종 화학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나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촉매이다.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도 효소에 의해 속도가 빨라진다.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수많은 생화학 반응은 모두가 효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물체 내에 존재하는 효소의 종류도 매우 많다. 대표적인 효소로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각각 가수분해하는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를 들 수 있다. 식물은 동물에 비해 더 많은 효소를 가질 수 있다. <br/> <br/>최근 유전체 연구에 의하면 인간 세포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약 2만4000개인 데 비해 벼와 감자에는 약 3만8000개 있음이 밝혀졌다.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C, 토코페롤 등 천연 항산화물질은 식물에는 풍부하지만 사람은 만들지 못한다. 한 종류의 항산화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 <br/> <br/>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생명공학대부분의 효소는 적정 온도와 적정 pH (수소이온 농도) 범위에서 활성이 활발히 일어난다. 부적절한 조건에서 보관하면 효소의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 촉매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실된다. 한때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효소의 하나인 SOD(superoxide dismutase)는 노화 방지 화장품, 기능성 차, 목욕 첨가제 등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 SOD는 실온에서 쉽게 변성돼 소비자가 사용할 시점에는 효소로서 기능이 없어진 단백질에 불과한 것이다. 효소 그 자체가 만병통치약으로 간주돼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br/> <br/>산야초 발효액의 인기와 함께 명칭과 효능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산야초나 과일 무게의 약 50%의 설탕을 넣고 일정기간 담가 만든 것을 일부에서 효소액이라 부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효소액이 아니라 ‘발효액’이 더 적절하다. 발효액에는 효소반응에 의해 생긴 물질과 설탕물에 의해 추출되는 성분이 존재한다. 식물 재료를 설탕물에 오래 담가 두면 ‘팽윤현상’(물질이 용매를 흡수해 부푸는 것)으로 세포막이 터지면서 세포에 들어 있던 영양성분 가운데 물에 녹는 수용성 영양성분이 설탕물에 의해 추출된다. 여기에는 건강에 좋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면역활성이 있는 항산화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다. <br/> <br/>음식에도 먹는 사람과 잘 어울리는 음식궁합이 있듯이 건강을 위해서나 질병 치료에도 각자의 체질에 맞는 처방이 중요하다. 아무리 몸에 좋은 산야초 발효액이라도 같은 성분을 장기간 많이 복용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개별 산야초 발효액의 질병치료, 면역활성, 건강에 대한 종합적 과학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br/> <br/>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생명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67.txt

제목: 차병원 첨단연구암센터, 유전성 종양상담 클리닉 개설  
날짜: 20140804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0410014902789  
ID: 01100701.2014080410014902789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이 첨단연구암센터 내 ‘유전성 종양상담 클리닉’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br/> <br/>4일 차의과대학교에 따르면 유전성 종양상담 클리닉은 암환자 및 암 발병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 상태를 검사해 진행 중이거나 숨겨진 암의 발병확률을 예측한다. <br/> <br/>종양 유전자 결함이 발견될 경우 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도록 조기검진,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등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br/> <br/>모든 종양의 5~15%는 유전성으로, 유전성 암은 여러 유전자들 중에서 특정 암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진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다. 다른 암에 비해 조기에 발병하고 다른 장기에서 암을 함께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난소암 환자의 경우는 자궁내막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br/> <br/>이제호 분당차병원 첨단연구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0'>가족 중 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68.txt

제목: ‘3분카레’로 레토르트식품 시대 열다  
날짜: 2014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3010014875868  
ID: 01100701.2014073010014875868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그저 간단히 먹기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카레는 사실 영양상 많은 비밀을 지녔다. 바로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비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음식이다. <br/> <br/>이는 카레에 노란색을 띠게 하는 ‘커큐민(curcumin)’ 성분 때문이다. 커큐민은 소화를 촉진하고 심장마비 등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고 치매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br/> <br/>1940년쯤 국내에 처음 소개된 카레는 1970년대 ㈜오뚜기에 의해 대중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카레 하면 자연스럽게 ‘오뚜기 카레’를 떠올릴 정도로 국민상품이 됐다. <br/> <br/>1969년 오뚜기 회사 설립과 함께 출시된 오뚜기 카레는 ‘오뚜기 분말 즉석카레’라는 브랜드로 첫선을 보였다. 오뚜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1960년대 당시 우리 국민의 주식이 쌀인 데다 매운맛을 즐기는 기호와 맞아떨어지는 제품이 카레라고 판단돼 창립 제품으로 생산하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출시 초기 분말 형태로 선보인 오뚜기 카레는 시대 변화와 함께 그 형태를 다양화해 1981년 ‘3분 요리’란 브랜드로 레토르트 카레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출시하자마자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판매 첫해 400만개를 팔아치웠다. <br/> <br/>레토르트 식품은 완전 조리된 식품을 미생물 차단성 용기에 담아 무균성을 유지해 장기간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품이다. 또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상온 보존이 가능해 원재료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간편 식품이다, 국내에서는 오뚜기가 최초로 생산 시판함으로써 레토르트 식품의 역사가 시작됐다. <br/> <br/>오뚜기 ‘3분 요리’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33년간 국내 즉석식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끓는 물에 3분이면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국내 첫 즉석식품인 ‘3분 카레’를 시작으로 ‘3분 짜장’ ‘3분 햄버그’ ‘3분 미트볼’ 등이 잇따라 나왔다. <br/> <br/>2000년대 들어서는 현대인의 소비성향에 맞춰 카레도 진화했다. 건강 지향적 원료를 조화시킨 프리미엄급 ‘3분 백세카레’, 끓는 물에 데우거나 레인지를 이용할 필요 없이 밥 위에 그대로 부어 먹을 수 있어 더욱 간편한 ‘그대로카레, 그대로짜장’를 선보였다. 즉석식품의 지평을 넓힌 셈이다. <br/> <br/>‘3분 카레’의 성공에 힘입어 오뚜기는 공장을 신축해 생산설비를 자동화하고 꾸준한 신제품 개발에 착수해 원재료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은 다양한 3분 제품을 선보였다. 이 모든 제품은 최신의 위생설비를 갖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공장에서 생산된다. <br/> <br/>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69.txt

제목: “파킨슨병·암 근본적 치료 약물 개발”  
날짜: 2014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410014835287  
ID: 01100701.201407241001483528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포스텍(포항공대) 연구팀이 파킨슨병과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물 개발에 성공했다. <br/> <br/>24일 포스텍에 따르면 이 대학 화학과 임현석(사진) 교수팀은 대표적 퇴행성 뇌질환으로 알려진 파킨슨병과 3명 중 한 명이 발병할 정도로 현대인에게 빈번해진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단백질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화합물을 보다 쉽게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 최근호에 발표됐다. <br/> <br/>임 교수팀은 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용 화합물 개발법과 파킨슨병·암 치료용 화합물을 새롭게 제시했다. 특히 연구팀은 이 화합물 개발법을 통해 수천 가지 화합물 형태를 수집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했다. 연구팀은 또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화합물을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했다. <br/> <br/>지금까지 암이나 파킨슨병이 단백질 상호작용의 문제로 발병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단백질 상호작용을 억제 또는 안정화시키는 화합물을 만들기가 어려워 실제로 약물 개발에는 난항을 겪어 왔다. 연구팀은 우선 상호작용을 하는 단백질 구조 속 나선구조에 주목했다. 상당수 단백질은 이 나선구조를 인식하여 다른 단백질과 반응해 작용한다. 이 나선구조의 모양을 모방해 유사한 물질을 만들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지도록 할 수도 있고, 몸에 이롭지 않은 상호작용을 막게 할 수도 있다. <br/> <br/>임 교수는 “<span class='quot0'>새로운 개념의 항암제 연구도 수행 중이지만, 특히 파킨슨병과 관련된 이 화합물은 새로운 개념의 파킨슨병 치료제로서 개발을 진행해 나갈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70.txt

제목: 암세포만 파괴, 부작용 줄인 암치료법 '고주파 온열암치료' 관심 집중  
날짜: 20140723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310014819186  
ID: 01100701.201407231001481918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온열치료법(Hyperthermia)은 암세포가 열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종양조직의 주변 온도를 42°C~43°C까지 올려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br/> <br/>암환자의 경우,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인체 내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활성화돼 면역기능이 70% 정도 향상된다. 온열치료법은 암 환자에게 고주파를 투과해 전기장에 의해 체내에 열을 발생시켜 종양에 공급되는 영양분을 차단하는 원리를 적용한 치료법이다. <br/> <br/>하지만 기존의 온열치료법은 정상세포에까지 열을 주기 때문에 효과 대비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br/> <br/>최근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암치료법이 등장했다. 온코써미아(ONCOTHERMIA) 고주파 온열암치료기(EHY-2000)를 사용한 '고주파 온열암치료법'이 그것이다. <br/> <br/>고주파 온열암치료법은 환자가 움직이는 경우에도 암 조직을 따라 치료부위가 자동 조절되기 때문에 치료 중에도 CT· MRI 등을 이용한 위치 확인이 필요 없다. 환자의 체중, 신체 사이즈 등 개인의 변화를 분석해 적정 에너지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자동 조절함으로써 개인별 맞춤 치료와 전이성 암치료가 가능하다. <br/> <br/>또한 방사선·항암 치료와 병행 시 방사선 효과를 증대시키고 항암제 약물흡수를 증대하는 등 치료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br/> <br/>연세사랑요양병원 강동철 원장은 “<span class='quot0'>고주파 온열암치료법은 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가해 열 발생과 동시에 생체 대사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암세포의 산소 공급 및 증식을 억제해 암세포만을 파괴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또 고주파 온열암치료법은 원칙적으로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고형암 치료와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적어 뇌종양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대장암· 폐암· 난소암· 췌장암 등 여러 고형암의 치료 시 수명 연장· 통증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br/> <br/>모든 치료법이 그렇겠지만 암치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작용과 합병증의 정도다. 고주파 온열암치료법은 암치료 시 일반적인 부작용인 오심· 구토· 식욕부진· 체중감소와 소화장애와 탈모· 팔과 다리의 저림 등의 합병증이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기존의 암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현저하게 줄었지만, 전극을 부착한 피부 주위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피부 아래·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에는 약간의 화상· 상처· 염증· 괴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br/> <br/>강동철 원장은 “부작용이 없는 암치료법으로 알려진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하더라도 치료 결과는 환자의 상태와 체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경미한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전문의사와의 개인별 맞춤 정밀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한편 연세사랑요양병원은 강동·송파 관내 최초로 고주파 온열암치료기(EHY-2000)를 도입해 암환자 치료 및 면역증강을 목적으로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타민 요법· 면역약침· 해독관장· 영양요법 등 면역요법과 온열요법· 해독요법을 병행해 양·한방 협진으로 암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71.txt

제목: 페이스북, 여대생 나체사진 삭제 논란  
날짜: 20140720  
기자: 이은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010014795460  
ID: 01100701.2014072010014795460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페이스북이 최근 영국 여대생들이 기부 목적으로 만든 누드사진 페이지를 유해 콘텐츠로 지정,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삭제된 사진의 주인공들은 워릭대학교 조정부 여대생들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이 누드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2014 누드 달력에 들어간 사진으로, 학생들은 달력 판매 수익금을 맥밀란 암 지원센터에 기부해왔다. <br/> <br/>페이스북 측은 이 사진이 유해하다며 무단으로 삭제했다. 이 캠페인을 주관한 학생 소피 벨(20)은 "더 많은 모금을 위해 만든 페이지가 졸지에 유해 콘텐츠가 됐다"며 "나체사진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는데 이 사진들은 페이스북이 제시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br/> <br/>그는 "페이스북에는 우리보다 더 야한 페이지가 많다"면서 "어떻게 자선 달력 사진이 포르노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페이스북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로 이 사진이 삭제됐다"며 "곧 복구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br/> <br/>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72.txt

제목: 방선휘한의원, 암치료의 중심 ‘면역력’  
날짜: 20140717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710014777415  
ID: 01100701.201407171001477741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br/> <br/>암 환자 100만명 시대,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암을 극복하기 위한 키워드로 ‘면역력’이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암 환자의 10년 생존율이 35%를 넘었지만, 암은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어 있다. <br/> <br/>최근 들어 조기검진 및 의료기술이 발달해 암에 걸리더라도 완치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암에 걸린 환자나 완치된 환자가 면역력관리를 잘 하지 못해 면역력이 약해져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암 재발을 겪는 사례도 종종 생긴다. <br/> <br/>65kg의 성인의 경우 60~70조개의 세포로 이뤄져 있는데 하루에 1.000~10.000개의 암세포가 매일 몸 안에 생성되고 있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 종양이 된다. 따라서 종양이 형성될 수 없도록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암이 발견되면 수술과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의 공격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암 치료 중에는 우울, 분노, 좌절 등의 마음가짐과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현대의학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면역요법’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br/> <br/>통합면역치료 전문 방선휘한의원에서는 면역 암 치료의 핵심인 약침치료, 침 치료, 항종양 면역약제, 맞춤처방, 온열치료, 심리치료(웃음치료, 음악치료)를 통해 저하되어 있는 면역감시체계를 회복시키고 암 억제 기전을 정상 가동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한다. <br/>  <br/>방선휘한의원 방선휘 대표원장은 ‘암환자들의 수술로 인한 체력소실과 면역력 저하 등 공격적인 치료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면역감시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는 면역치료를 받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생활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73.txt

제목: 포스텍­일리노이대 연구팀, 콜레스테롤 몸속 신호등 역할 연구결과 발표  
날짜: 20140717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710014778088  
ID: 01100701.201407171001477808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흔히 해롭다고 생각하는 콜레스테롤이 태아 기형이나, 암 발병 등의 신호를 조절하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한·미 공동연구팀이 처음으로 밝혀냈다. <br/> <br/>포스텍(포항공대) 한진관 교수와 미국 일리노이대 조원화 교수팀은 몸속 세포막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다양한 생물학적 현상을 조절하는 윈트(Wnt) 신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내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를 통해 밝표했다. <br/> <br/>척추동물의 발생이나 세포의 분열과 분화, 줄기세포의 유지와 같은 생물학적 현상들은 윈트라는 이름을 가진 단백질이 베타-카테닌에 의한 전형적 신호전달과 베타-카테닌에 의하지 않은 비전형적 신호전달 등 2개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함으로써 이뤄진다. 이 신호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태아가 기형이 되거나, 성인의 경우에는 암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윈트 신호전달체계’는 암 발병을 알리는 ‘발암신호’로도 알려져 있다. <br/> <br/>그러나 이 서로 다른 두 신호전달 체계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택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은 알려진 바가 없었다. <br/> <br/>공동 연구팀은 생화학적·발생학적 분석을 통해 세포막에 위치한 콜레스테롤이 신호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Dvl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써, 신호전달체계에 필요한 여러 단백질들을 세포막들로 유도해 신호체계가 베타-카테닌에 의한 전형적 신호전달로만 선택적으로 일어나도록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r/> <br/>즉, 콜레스테롤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처럼 세포막을 구성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호등’처럼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조절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성과는 특히 ‘발암신호’를 미연에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신약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74.txt

제목: 오송서 바이오 첨단기술의 향연 펼쳐진다  
날짜: 2014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710014782292  
ID: 01100701.201407171001478229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펼쳐진다. <br/> <br/>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주시 등이 공동 개최하는 이 행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오송 KTX역 인근 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다.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이라는 주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엑스포는 태동기부터 미래 산업까지 바이오산업의 흐름을 폭넓게 담는다. <br/> <br/>엑스포장은 바이오미래관(주제관)과 바이오 건강체험관, 바이오 뷰티마켓 등 다양한 전시관을 비롯해 국내외 우수 바이오기업이 참여하는 기업관과 산업관이 운영된다. 바이오 미래관에서는 인간의 유전자 정보인 게놈 지도가 완성된 이후 산업화되는 과정과 미래의 바이오산업까지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복제견인 스너피, 줄기세포, 항암제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술과 세계적인 연구·산업화 동향은 물론 3D 프린팅 인공장기, 바이오연료 자동차, 바이오 로봇 등 미래 바이오 사회의 모습을 구현한다. <br/> <br/>바이오건강체험관은 오감을 이용한 건강요법, 유전자 검사와 스마트 암 검사, 생체나이 측정 등 바이오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암과 치매, 심장 질환, 당뇨 등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병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남녀노소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뷰티체험관도 대표적인 볼거리 중의 하나다. 이곳에서는 노화방지 성분인 바이오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된 핸드크림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이나 노화·탈모·비만 예방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다. <br/> <br/>생명과학 기초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에듀체험관에서는 인체 장기 모형을 조립하거나, 초음파로 자신이나 친구의 장기를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를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외에 주제영상관, 바이오마켓, 바이오산업관, 화장품·뷰티산업관이 있다. 살아 움직이는 대형 신체 장기의 행렬인 ‘바이오 휴먼 로드 페스티벌’, 폐자재를 활용해 만든 공룡 퍼레이드인 ‘응답하라. 바이오 사우르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야외에 준비돼 있다. <br/> <br/>관람객들이 대형 신체 장기를 직접 만지고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어린이들이 생명의 신비를 느끼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시설도 준비된다. <br/> <br/>세포 모양의 그네를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세포 그네’, 세포 위로 팡팡 뛰며 즐기는 ‘세포 트램플린’, 세포를 타고 오르는 ‘세포 정글짐’은 어린이들이 즐기면서 인체의 신비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교육용 놀이시설이다. <br/> <br/>관람객들이 모형 어미 개의 뱃속에 머리를 직접 넣고 영상을 구경하는 ‘바이오 동물 농장’도 흥미로운 볼거리 중의 하나이다. 어미 개의 뱃속에서는 세포가 생명체로 성장하는 신비한 과정이 상영된다. 인간의 뇌를 형상한 대형 돔 형태의 ‘바이오 컨트롤 게임장’에서는 ‘뇌파 사격’, ‘레이싱’ 등 뇌파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을 준비한다. <br/> <br/>충북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바이오산업은 무병장수를 실현하고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꿈의 산업</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충북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확인시키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75.txt

제목: “게임으로 암 환자 항암치료 돕는다”  
날짜: 2014071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510014759792  
ID: 01100701.2014071510014759792  
카테고리: IT\_과학>콘텐츠  
본문:   <br/> <br/>국내 의료진이 항암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환자를 돕는 게임을 개발했다. <br/> <br/>중앙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 과제를 통해 씨엘 게임즈(CLGamez)와 공동으로 암 환자의 항암치료 향상을 위한 기능성 소셜 네트워크 게임 ‘알라부(I Love Breast)’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알라부’는 암 환자가 자신의 의학적 상태와 같은 온라인 게임 속의 아바타를 설정해 게임을 진행하며 의사가 준 퀘스트(Quest)를 잘 수행하면서 아바타의 모습이 호전되는 미션게임으로, 유방암 환자 치료에 있어 항암치료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기능성 소셜 네트워크 게임(Social Network Game)이다. <br/> <br/>장 교수팀은 항암 치료중인 환자들이 필연적으로 구역, 구토 등의 부작용을 경험해 치료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보고 개발한 것이다. <br/> <br/>따라서 암 환자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침습적 치료법이 아닌 오락의 일종인 게임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고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안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게임을 통해 암 치료의 순응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br/> <br/>‘알라부’ 게임을 실제 유방암 항암치료중인 환자에게 적용해 사전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환자 대부분이 게임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를 느꼈으며, 게임을 통해 항암치료제 약 복용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사진 왼쪽)와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사진 오른쪽) 사진. <br/> <br/>유방암 환자를 위한 ‘알라부’ 게임은 거의 모든 환자의 분포가 여성층인 유방암의 특성상 30~5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즐기고 선호하는 장르인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통해 유방암 환자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또 암 환자들끼리의 네트워킹을 통한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유방암 치료 및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br/> <br/>특히 실제 항암 치료와 같은 주기인 3주간의 게임 플레이 기간을 통해서 치료 과정을 습득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암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br/> <br/>장정순 교수는 “<span class='quot0'>알라부 게임을 유방암 항암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적용한 결과 항암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환자들의 게임에 대한 몰입과 지지를 높이는 방안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결과가 나타났다</span>”고 말했다. <br/> <br/>한덕현 교수는 “<span class='quot1'>유방암 환자에게 적용해 나타난 긍정적인 반응과 교육 효과를 바탕으로 타 진료과목으로 확대해 암 환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에서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76.txt

제목: 일본, 암 선진의료…수지상세포치료·면역세포치료  
날짜: 20140708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810014711957  
ID: 01100701.201407081001471195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은 현대의학으로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암 치료법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제4의 암치료법 또는 선진의료라 불리는 이 치료법은 치료 시 고통이 없고 편안하게 통근치료를 할 수 있다. 특히 암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br/> <br/>이 치료법은 전이·재발 암을 치료하거나 암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대의학 치료와 병용도 가능하다. 이 치료법은 항암요법과 같은 현대의학 치료와 병행하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r/> <br/>이와 관련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재생의료의 한 축인 줄기세포치료와 난치병인 암 치료 등을 위한 면역세포치료 기준을 세워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정책의 일환으로 선진의료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br/> <br/>암 전문잡지 ‘암 선진의료(がんの 先進醫療)’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월간지로 다양한 정부정책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또 암 선진의료 발행사 홈페이지는 암 환자들에게 암 치료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br/> <br/>이 발행사는 최근 면역요법에 대한 정보를 기획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에는 면역세포 치료제를 배양해 공급하는 기관과 병원에 대한 시설 일람표를 게재돼 있어 면역세포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암환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시설 일람표에 따르면 면역세포 전문 배양기관은 5개 정도가 대표적이다. 이 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제휴하고 있는 240여 곳의 의료 기관에 면역세포를 공급하고 있다. <br/> <br/>면역세포 전문 배양기관 중 4곳은 기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센신병원이 유일하게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br/> <br/>센신병원은 병원장이자 배양책임자인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가 40여 년간의 연구와 노력으로 만든 5종복합면역요법, 수지상세포치료 그리고 DC-AIVac/CSC요법(암줄기세포 획득면역 백신요법) 등 암줄기세포 백신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암 면역요법 전문병원이다. <br/> <br/>츠네오 박사는 “<span class='quot0'>암으로 고통 받는 암 환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국내 암환자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새로운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span>”고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77.txt

제목: 삼성병원, '예방부터 재활까지' 암치유센터 개설  
날짜: 2014070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610014692180  
ID: 01100701.2014070610014692180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열린 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개소식 참가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규하 행정부원장, 황지혜 재활의학과 교수, 김미순 간호본부장, 윤순봉 지원총괄사장, 심영목 암병원장, 이정권 암치유센터장, 손태성 암병원 운영지원실장.삼성서울병원 암병원(원장 심영목)은 예방부터 재활까지 포괄적 암 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암치유센터’를 개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br/> <br/>암치유센터는 암병원 1층 ‘첫방문상담실’과 ‘암치유센터’ 두 공간으로 구성된다. 진료 영역과 암교육 영역으로 나눠 환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진료 영역은 정신건강, 재활, 통증, 완화 케어, 평생건강, 감염, 재건성형 등 총 10개의 전문화된 클리닉에서 치료를 실시한다. 암교육 영역은 정보 제공, 상담, 교육, 연구 등 분야를 특화시켰다. <br/> <br/>기존 암병원 내 암센터에서 진료를 받는 암 환자와 가족들도 ‘지능형 협진 자동알림’ 전산 시스템에 의해 암치유센터에서 포괄적인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초대 암치유센터장은 가정의학과 이정권 교수가 맡았다.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단순 암치료를 넘어 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불안·두려움까지 해소해주는 게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암교육 정보 제공과 평생 건강관리를 포함한 ‘한국형 통합 암치유센터’로 자리매김 하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02)3410-0086,88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78.txt

제목: 암세포막 뚫고 항암제 침투시키는 전달체 개발  
날짜: 2014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610014695000  
ID: 01100701.201407061001469500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치료를 막는 장애요인을 꼽자면 항암제 내성이 대표적이다. 이는 암세포막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펌프 단백질’이 항암제를 세포 밖으로 퍼내기 때문이다. 이 펌프 단백질을 조절하는 것도 어려워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런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br/> <br/>가톨릭대 연구진이 빛에 반응하는 나노 입자를 이용해 새로운 나노 약물 전달체를 개발, 내성을 뛰어넘을 계기를 마련했다. <br/> <br/>6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가톨릭대 생명공학과 나건(사진) 교수와 박형·박우람 박사과정 연구원 등이 참여한 연구진은 이 같은 성과를 국제학술지인 ‘생체재료’의 지난달 1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br/> <br/>연구진이 개발한 전달체는 빛에 반응해 세포막을 붕괴시키는 물질을 만들어 약물의 세포 유입을 돕는다. 연구진은 항암제를 담을 수 있는 나노입자 표면에다 빛에 반응하는 광감작제를 결합해 이 전달체를 탄생시켰다. 빛을 받은 광감작제가 활성산소를 만들면 이 활성산소가 암세포의 막을 붕괴시켜 항암제의 전달 효율을 높이는 원리이다. 세포막이 붕괴하면 펌프 단백질은 항암제를 세포 밖으로 퍼내지 못한다. <br/> <br/>나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세포 치료에 이용되는 광감작제를 약물 전달체에 도입해 항암제 내성 극복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생쥐에 투여한 결과 기존보다 훨씬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가 나타났다</span>”고 말했다. 이어 “덕분에 많은 양의 항암제를 투여할 때 나타나는 탈모, 빈혈, 구토, 설사와 같은 부작용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79.txt

제목: “백신시장 지속적 고성장 전망, 국가 주도산업으로 육성해야”  
날짜: 2014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610014694297  
ID: 01100701.201407061001469429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2009년 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의 대유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백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br/> <br/>우리나라는 당시 백신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상태라 신종플루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국민이 불안 속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기업들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국민의 보건안전을 지켜낼 수 있었다. <br/> <br/>백신은 인체를 세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보건 및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따라서 백신은 다양한 바이오 의약 중 국가정책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의약품으로 인식되어 있다. <br/> <br/>현재까지의 백신은 사람이나 동물에서 감염성 병원체 특히,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면역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면역반응을 활성화시켜 암, 당뇨 등과 같은 난치병 치료백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br/> <br/>미래의 백신시장은 지속적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현재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질병 극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br/> <br/>병에 걸렸을때 이뤄지는 치료는 의료비의 과다한 지출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는 사전 예방을 통한 예방 중심으로 백신 산업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br/> <br/>또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한 글로벌화로 인해 질병이 전 세계로 쉽게 확산되고 있으며, 온난화 현상 등 지구환경 변화에 의해 신종 질환 및 새로운 유전적 변이주에 따른 2차 감염성 질환의 확대가 백신산업의 주요한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생물테러 등의 위협 급증에 대비해 백신 개발 및 비축도 백신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br/> <br/>이러한 기회 요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백신을 국가 주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백신개발은 그동안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개별기업이 개발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 백신 시장의 선점을 위해 산업화가 필요한 분야다. <br/> <br/>백신개발은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기업과 연계해 개발 및 상용화 등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r/> <br/>특히 국내는 백신 관련 연구개발 단계 대비 기술 분야 영향 분석 결과, 임상 또는 비임상 단계에 필요한 시제품 생산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br/> <br/>앞으로 국내의 SK케미칼, 녹십자 등과 같이 우리나라 백신기업이 경험한 백신 생산 국산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의 예방 및 치료용 백신 개발을 통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백신 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80.txt

제목: "치매 신약 임상시험 실패율 99%"  
날짜: 20140704  
기자: 한성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410014685831  
ID: 01100701.201407041001468583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 10년 사이에 개발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임상시험에서 거의 전부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뇌건강센터의 제프리 커밍스 박사가 2002-2012년 사이에 개발된 치매 치료 신약의 임상시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한 가지를 제외하곤 모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BBC 뉴스 인터넷판 등이 3일 보도했다. <br/> <br/>치매 신약의 임상시험 실패율은 99.6%로 암 치료 신약의 실패율 8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커밍스 박사는 밝혔다. <br/> <br/>그 한 가지는 2003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나멘다(Namenda)로 그나마 근본 치료제가 못 되고 인지장애, 착란 등 치매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불과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br/> <br/>그 이전에 승인된 약은 아리셉트, 엑셀론, 라자딘, 코그넥스 등 모두 4종으로 이들 역시 치매의 근본원인인 뇌세포 손상을 차단하는 약이 아니고 뇌 신경세포간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특정 신경전달물질에 작용하는 것으로 치매증상을 일정기간 완화 또는 안정시킬 뿐이다. <br/> <br/>특히 그동안 큰 기대를 걸었던 두 가지 치매 신약 솔라네주마브와 바피네우주마브가 임상시험에서 실패로 끝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커밍스 박사는 지적했다. <br/> <br/>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실패율에 제약업계가 위축되어서인지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매 신약은 약80종에 불과하다. <br/> <br/>이는 미국의 경우 치매 환자가 현재의 600만명에서 2050년에는 1천600만명으로 늘어나고 치매환자 치료·간병 비용이 현재의 2천억 달러에서 1조1천억 달러로 급증할 것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너무 초라한 것이다. <br/> <br/>이에 비해 현재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는 새로운 항암제는 300종에 이르고 있다. <br/> <br/>커밍스 박사는 치매 신약이 높은 실패율을 겪고 있는 이유로 연구예산의 부족과 지나치게 치우친 치료표적 설정을 지적했다. <br/> <br/>치매의 생물학적 기초연구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데도 국립보건원(NIH)이 책정한 치매연구 예산은 연간 6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에이즈 연구에는 연간 30억 달러가 지원되고 있다. <br/> <br/>또 하나 문제는 신약 개발의 표적이 치매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뇌 신경세포 표면에 형성되는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노인반)에만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br/> <br/>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가지고 있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커밍스 박사는 강조했다. <br/> <br/>따라서 치매의 또 다른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타우 단백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br/> <br/>타우 단백질은 베타 아밀로이드와는 달리 신경세포 안에서 엉키면서 신경세포 파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r/> <br/>커밍스 박사의 조사결과는 '알츠하이머병 연구와 치료'(Alzheimer's Research & Theraphy) 최신호에 실렸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81.txt

제목: [인터뷰] 방선휘 원장 "암은 치료 가능한 질병"  
날짜: 20140703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310014677757  
ID: 01100701.201407031001467775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br/> <br/> <br/>암은 난치병이고 때로는 불치병이다. 그러나 적절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인체가 드러내는 사람마다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통합 면역 암 치료 전문 방선휘한의원 원장을 만나 암에 대한 시각과 견해, 암환자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들어봤다. <br/> <br/>Q.한의원에서 암을 치료한다는 사실이 처음엔 의아했다. 암을 치료하게 된 계기는. <br/> <br/>인턴시절 담당 과장님의 위암 4기선고와 40대 말기췌장암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서 암에 대한 한방치료를 시작했다. 한방치료를 통해 암 성장이 억제되고 암 관련 증상들이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암 치료에 매진하기 위해 대전대학교 동서암센터에서 3년간 전문의 과정을 하면서 암 치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  <br/> <br/>동서암센터 수련 기간 동안 미국의 통학암학회(SIO)와 캘리포니아주의 시티오프호프 통합암센터에서 연수하고 상해중의학대학 악양병원에서 한 달간 교환교수로 상주해있으면서 전 세계적인 통합 암 치료의 열기와 현황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한방 종양학의 잠재력을 더욱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됐다. <br/> <br/>Q. 암을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에 대해 말해 달라. <br/> <br/>한마디로 말하자면 암은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한다. WHO에서 암 발생의 1/3은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로 완치될 수 있으며, 나머지 1/3도 적절한 치료로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이제는 암을 극복하였거나 암과 함께 살아가는 암 생존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br/> <br/>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암이라는 질환이 불치의 질환이 아니라 완치 및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에게는 암은 고칠 수 없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면역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암은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고 본다. <br/> <br/>Q. 암과 면역치료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br/> <br/>나라에는 군인과 경찰이 있고 축구 경기에는 주심과 부심이 있듯이 사람의 몸에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부적절한 위치와 수량을 점하고 있는 암세포들은 실제 인체의 면역기능에 의해 인지, 억제 되고 제거 되는데요 그러한 면역기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져야 하는데 이는 면역 암 치료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면역 암 치료를 통해 암 관련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다양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br/> <br/>Q. 암과 투쟁중인 환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br/> <br/>암은 치료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암 선고 자체가 삶의 종료가 아닌 암을 치료해나가는 여정의 시작으로 생각해주시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에 임종을 맞이한 여자 간암환자분이 있었는데, 엄마의 암종을 지켜주려고 멀리서 고3인 따님이 병원으로 급하게 오고 있었습니다.  <br/> <br/>그 환자분은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극히 힘든 상황에서도 딸에게 유언을 해주려고 수 시간동안 생명의 끈을 붙잡고 계시다가 따님을 보고서야 임종을 맞이한 상황 본적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견뎌내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조차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위대한 정신력은 우리 모든 의료진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의지와 정신력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암에 걸렸다하여 절망하지마시고 희망의 빛을 따라 암치유의 여정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82.txt

제목: 암세포 억제 유전자 발견…암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  
날짜: 20140702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210014666282  
ID: 01100701.201407021001466628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중앙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이은주 교수.중앙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이은주 교수팀이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는 유전자 중의 하나인 ‘DKK3' 유전자가 암세포 억제유전자인 것을 밝혀내 해당 유전자를 이용한 암 치료제를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2일 중앙대병원에 따르면 이은주 교수팀은 DKK3 단백질이 여러 암세포에서 발현이 감소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유전자를 다시 발현시키자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베타 카테닌(beta-catenin)’의 발현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된다는 것이 세포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입증됐다. <br/> <br/>이 교수팀은 자궁경부암, 난소암, 위암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궁경부암 환자의 65%(88명 중 57명), 난소암 환자의 61%(69명중 42명), 위암 환자의 41%(158명 중 64명)가 DKK3 단백질의 발현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br/> <br/>또한 자궁경부암 및 위암 환자의 병기가 높을수록 DKK3 단백질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DKK3 단백질 발현이 감소된 환자일수록 자궁경부암 및 위암의 재발이 더 빨리 진행됐다. <br/> <br/>이와 같은 결과는 해당 암 뿐 아니라 비교적 다양한 암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DKK3 유전자가 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br/> <br/>중앙대병원 산부인과 이은주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DKK3 유전자가 자궁경부암 환자의 무병 생존율과 난소암 환자의 항암치료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또한 위암 환자의 수술 전 병기를 결정할 때 CT검사와 함께 병용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서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지금까지의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다학제적 연구진에 의해 임상 바이오 마커(bio-marker)로써의 활용 및 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진행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향후 암 치료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14일 중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유전자 치료 심포지엄(Symposium of Ease Asian Gene Therapy Innovative Group)’에서 발표됐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83.txt

제목: 연세암병원, 글로벌 암 치료 컨소시엄 가입  
날짜: 20140625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510014614770  
ID: 01100701.201406251001461477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연세암병원 전경. 지난 4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바로 옆에 새롭게 문을 연 연세암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암 치료 전문병원을 지향한다. 연세암병원(원장 노성훈)은 최근 전 세계 암 환자들을 위한 정밀 치료제 개발 기구인 ‘윈(WIN)’ 컨소시엄의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윈이란 ‘전 세계 혁신 네트워크(Worldwide Innovative Network)’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br/> <br/> 연세암병원에 따르면 윈 컨소시엄은 개별 맞춤형 암 치료제를 만들어 향후 3년 이내에 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MD앤더슨암센터 같은 유수의 병원들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 GE헬스케어 등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br/> <br/> 이번에 윈 컨소시엄 참여가 결정된 연세암병원은 이르면 올 후반기부터 컨소시엄에서 진행 중인 임상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정현철 교수는 “<span class='quot0'>그동안 한국과 아시아에 많은 암은 서구 의료진의 치료제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국내 암 환자들이 윈 컨소시엄에서 진행하는 최신 신약들에 의한 최고의 맞춤형 치료를 받을 길이 열렸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84.txt

제목: 유전자 빅데이터로 의학연구 시스템 개발  
날짜: 2014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410014607325  
ID: 01100701.201406241001460732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과 미국의 연구진이 인간 유전자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암, 당뇨와 같은 질환을 연구할 수 있는 웹 기반 시스템을 개발했다.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들 질환과 관련된 신호 전달경로를 예측·발굴할 수 있게 된 만큼 미래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연세대 생명공학과 이인석(사진) 교수 주도 아래 황소현 박사, 미국 텍사스주립대의 마콧 교수가 참여한 국제 연구팀이 이런 연구 성과를 시스템 생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뉴클레익 액시드 리서치’의 지난달 26일자 온라인판에 실었다고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앞서 2011년 인간 유전자소셜네트워크인 ‘휴먼넷’을 자체 개발했다. 유전자소셜네트워크는 세포 내 모든 유전자 사이의 관계를 소셜네트워크 방식으로 나타낸 모델인데, 휴먼넷은 인간 유전자 2만여개 사이의 기능적 상관관계를 지도화했다. 연구팀은 휴먼넷을 이용해 동물에서 인간 질환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신호전달경로 모델을 발굴하는 웹 기반 예측 시스템 ‘모핀’을 개발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모핀은 동물 모델에서 작동하는 특정 유전자가 암이나 당뇨 등을 유발하는 인간 유전자와 어떤 기능적 유사성을 가지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85.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세계 암 연구 네트워크 '윈 컨소시엄' 합류  
날짜: 2014062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310014590772  
ID: 01100701.2014062310014590772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윈(WIN, Worldwide Innovative Network) 컨소시엄 총회에서 가입을 승인받고 세계 최고의 '맞춤형 암 치료'에 나선다. <br/> <br/>윈 컨소시엄은 5대륙에 걸친 대규모 임상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3년 안에 전 세계 암환자들의 생존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로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와 프랑스 구스타브 로시 암 연구소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센터, 연구소, 제약회사들이 ‘맞춤형 암 치료’의 혁신을 위해 모인 협력체다. <br/> <br/>  <br/> <br/>특히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유창식 소장이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디렉터로 위촉돼 앞으로 2년 동안 전 세계 ‘맞춤형 암 치료’ 관련 최고 정책결정에 나서게 됐다. <br/> <br/>의학계에선 이미 예견된 영입이었다. 미국 하버드의대와 공동으로 맞춤형 암 치료 시스템인 ‘한국형 온코맵’과 차세대 유전체 해독기술을 이용한 ‘온코패널’을 구축하며 아시아 권역에서 맞춤형 암 치료의 발전을 이끌어온 서울아산병원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도모하는 윈 컨소시엄에 최적의 파트너로 꼽혀왔다. <br/> <br/>특히 컨소시엄의 주축인 구스타브 로시 암 연구소는 서울아산병원의 ‘맞춤형 암 치료’ 기술과 독보적인 임상기반에 매료돼 지난 2년에 걸쳐 영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11년 아산-다나파버 암유전체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12년에는 국내 최초로 유전체맞춤암치료센터를 개소하며 대한민국 ‘맞춤형 암 치료’ 개발을 본격화했다. <br/> <br/>종양 유전자를 분석해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하는 온코맵 기술과 유전체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는 온코패널 기술을 바탕으로 1400례의 맞춤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800여건 이상의 표적항암제 관련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br/> <br/>특히 폐암과 담도암의 경우 실제 임상치료에 적용해 환자들이 유전체맞춤 표적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세계 유수의 병원들이 유전체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실제 임상에 적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서울아산병원의 탁월한 역량을 실감할 수 있다. <br/> <br/>서울아산병원 암센터는 ‘맞춤형 암 치료’ 분야의 아시아 대표 병원으로서 싱가포르 국립암센터,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네게브 대학병원과 하닷에셀대학병원, 중국 푸단대 상하이암센터, 요르단 킹 후세인 암센터, 인도 타타기념병원 등 여러 회원병원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br/> <br/>유창식 소장은 “암 치료의 미래는 맞춤형 암 치료에 있다”며 “윈 컨소시엄 가입은 서울아산병원에게도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국내 환자들이 세계적인 암 치료 프로젝트의 성과를 더욱 빠르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86.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글로벌 암 치료 협의체 가입  
날짜: 20140623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310014591216  
ID: 01100701.201406231001459121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아산병원은 현지시간으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윈’ 컨소시엄 총회에서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윈(WIN)이란 세계혁신연대(Worldwide Innovative Network)의 앞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으로, 윈 컨소시엄은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와 프랑스 구스타브 로시 암 연구소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암 관련 병원과 기관들이 모여 만든 협력체다. <br/> <br/> 서울아산병원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연구진을 갖춰 일찌감치 윈 컨소시엄 가입이 예상돼왔다. 특히 컨소시엄 가입과 더불어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유창식(사진) 소장이 협의체의 아시아 지역 디렉터로 위촉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로써 유 소장은 향후 2년간 전 세계의 암 치료 관련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br/> <br/> 유 소장은 “<span class='quot0'>암 치료의 미래는 맞춤형 암 치료에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 가입을 계기로 국내 환자들이 세계적인 암 치료 프로젝트의 성과를 더욱 빠르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서울아산병원은 2011년 아산-다나파버 암유전체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12년에는 유전체맞춤암치료센터를 여는 등 국내 ‘맞춤형 암 치료’ 프로젝트 추진에 앞장서왔다. 종양 유전자를 분석해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하는 온코맵 기술과 유전체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는 온코패널 기술을 바탕으로 1400례의 맞춤형 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800건 이상의 표적항암제 관련 임상실험도 진행하는 중이다. <br/> <br/>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앞으로 싱가포르 국립암센터,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네게브 대학병원과 하닷에셀대학병원, 중국 푸단대 상하이암센터, 요르단 킹 후세인 암센터, 인도 타타기념병원 등 여러 회원 병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87.txt

제목: 日 아베종양내과,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 성과 밝혀  
날짜: 20140623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310014593549  
ID: 01100701.201406231001459354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의 암치료 병원인 아베종양내과가 지난 14일 일본 삿포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마련된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신 수지상세포의 암백신 치료효과’를 발표했다. <br/> <br/>아베종양내과와 공동연구에 참여한 국내기업 선진바이오텍에 따르면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집중 연구해왔다. 그는 앞서 제17회 학회에서는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에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적용한 결과 74.4%의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 <br/>이날 아베종양내과 아베 이사장은 25ml의 소량 혈액만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할 수 있는 최신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이는 우리 인체 내 8%에 불과한 단구를 분리해 유전자검사와 항원검사, 종양마커검사를 한 뒤 개인 맞춤형 암항원을 추가해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br/> <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원발암과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를 강화시키는 WT1을 비롯해 MUC1 펩타이드, 개인별 특이적 암항원, NY\_ES01 펩타이드, 서바이빈 펩타이드, GV1001 펩타이드 등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높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아베종양내과에서는 말초혈순환종양세포 검사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유리RNA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돼 향후 암 진단과 임치료 유효판정에 영상진단과 혈액검사, 암별 유전자분석, CTC검사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span>”고 덧붙였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88.txt

제목: [건강 단신] 난치암 치료 ‘아바타뇌조직은행’ 외  
날짜: 2014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210014586420  
ID: 01100701.2014062210014586420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난치암 치료 ‘아바타뇌조직은행’ <br/> <br/>삼성서울병원(원장 송재훈)은 난치암 연구를 위한 일명 ‘아바타뇌조직은행’을 개설했다. 이 은행은 암 환자에게서 확보한 인체조직을 세포 단위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환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신경외과 남도현 교수는 “<span class='quot0'>난치암 환자를 치료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연구와 신경 줄기세포 관련 연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02)2148-9775 <br/> <br/>위식도역류질환 공개 강좌 개최 <br/> <br/>아주대병원(원장 유희석)은 25일 낮 12시30분 본관 지하 1층 아주홀에서 위식도역류질환을 주제로 공개 강좌를 연다. 위식도역류질환은 위산을 포함한 위액이 식도 안으로 역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증과 속쓰림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화기내과 이광재 교수가 강사로 나서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과 치료, 예방법 등을 설명한다. (02)3469-9037 <br/> <br/>위암 예방·치료 등 건강 강좌 <br/> <br/>연세암병원(원장 노성훈) 위암센터는 25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위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 강좌를 연다. 위암의 예방 및 정기검진의 중요성, 위암의 내시경 치료, 수술적 치료, 항암치료, 위암 환자의 영양 및 식사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환자 및 보호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02)2228-4068, 9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89.txt

제목: 일양약품, 슈펙트 유럽혈액학회서 글리벡 대안으로 '급부상'  
날짜: 2014061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910014560394  
ID: 01100701.201406191001456039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일양약품 ‘슈펙트’가 지난 1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혈액학회에서 2세대 TKI 제제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효과 대비 경제적인 약가를 갖춘 신약’으로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백혈병 시장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이번 학회에서는 ‘닐로티닙’과 ‘다사티닙’의 장기간 FU시 나타나는 심혈관계 이상반응, 말초폐쇄성동맥질환, 흉막삼출 등 ‘2세대 TKI 제제들의 장기간 복용 시 나타나는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한 Management 및 이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연구 결과가 발표했다. <br/> <br/>일양약품은 ‘슈펙트’의 임상 2상의 24개월 Long term Follow up(FU) 결과 및 Early Response에 따른 전체생존율(OS), 무진행생존율(PFS)의 결과를 발표했다. <br/> <br/>또 학회 진행이 본격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2세대 TKI 제제들의 비싼 약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치료제 선택에 있어 글리벡이 1차 치료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슈펙트의 경제적 약가가 학회의 핫이슈로 부각돼 관계자들과 유럽 및 미국 시장진출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br/> <br/>슈펙트 다국적 임상 2상 발표자로 참여한 동아대병원 김성현 교수는 “<span class='quot0'>12개월 이후 24개월까지 FU한 결과, 장기 복용 시 새롭게 발생되는 심각한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3개월과 6개월째 조기 반응(Early response)를 보인 환자들의 경우 전체생존율(OS) 및 무진행생존율(PFS)에서 Early response를 얻지 못한 환자들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임상시험 대상환자가 기존 여러 가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도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결과를 보인 것은 향후 백혈병 치료환자에게 우수한 대안이 될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br/> <br/>일양약품 슈펙트 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과 단일과제로는 최대 규모인 43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은 국산 18호 신약으로 현재 1차 치료제를 위한 임상 3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또 국제적인 SCI급 논문 및 저널을 통해 ‘경쟁력 높은 백혈병 치료제’이자 ‘암 부문 가장 유망한 글로벌 신약’으로 소개 된 바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90.txt

제목: 빛으로 세포 내 단백질 원격조정 기술 개발  
날짜: 2014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1100000039  
ID: 01100701.2014061110000003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빛을 이용해 세포 내 특정 단백질의 기능을 원격 조정함으로써 암 세포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및사회성연구단의 허원도 바이오이미징 그룹리더(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광유도 분자올가미'(LARIAT)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이 기술은 세포에 빛을 쬐어 내부에 순간적으로 단백질 복합체인 올가미를 형성시켜 그 안에 원하는 단백질을 움직이지 못하게 가둠으로써 특정 단백질의 기능을 차단하는 원리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통해 세포의 이동과 분열 등 중요한 생명현상들을 약물처리 없이 빛으로만 불활성화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빛을 켜고 끔에 따라 매우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연구팀은 이 원리를 이용하면 세포 분열을 막을 수 있어 앞으로 암 세포와 신호전달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허원도 교수는 "광유도 분자올가미 기술을 이용해 여러 가지 동물 모델에서의 암 전이와 뇌 과학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기존 기술로는 밝히기 어려웠던 암 치료 방법이나 뇌의 복잡한 신경망 구조에서 신경세포의 기능 등을 규명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이자 생화학 연구방법 분야의 세계적 저널인 '네이처 메소드'(Nature Methods) 6월호에 소개된다.허 교수는 이달 광유전학 분야의 다른 원천기술 2개도 해외 유수의 저널에 발표할 예정이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91.txt

제목: 간암 재발시키는 유전자 돌연변이 규명  
날짜: 2014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110014505170  
ID: 01100701.201406111001450517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간암을 재발시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2위 암인 간암은 수술을 받아도 5년 내 재발률이 70%에 달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간암 재발 예측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br/> <br/>한양대는 11일 공구(50·사진) 의대 교수팀이 유은실·이한주 울산대 의대 교수 공동연구팀과 간암 환자 231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RB1’ 유전자 돌연변이가 수술 후 간암 조기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간암 조직과 정상 간 조직을 각각 떼어내 유전체 모두를 동시에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RB1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 환자군(전체 환자군의 9%)이 RB1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군에 비해 수술 후 2년 내 조기 재발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9일 간질환 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헤파톨로지(Hepatology)’에 게재됐다. <br/> <br/>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92.txt

제목: 한양대 공구 교수, 간암유발 유전자 세계 최초 규명  
날짜: 20140611  
기자: 권이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110014502970  
ID: 01100701.201406111001450297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간암을 재발시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2위 암인 간암은 수술을 받아도 5년 내 재발률이 70%에 달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간암 재발 예측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br/> <br/>한양대는 11일 공구(50·사진) 의대 교수팀이 유은실·이한주 울산대 의대 교수 공동연구팀과 간암 환자 231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RB1’ 유전자 돌연변이가 수술 후 간암 조기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br/> <br/>연구팀은 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간암 조직과 정상 간 조직을 각각 떼어내 유전체 모두를 동시에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RB1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 환자군(전체 환자군의 9%)이 RB1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군에 비해 수술 후 2년 내 조기 재발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r/> <br/>공구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로 구축된 간암의 유전체 돌연변이 지도는 간암의 항암치료제 개발 및 맞춤형 치료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9일 간질환 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헤파톨로지(Hepatology)’에 게재됐다. <br/> <br/>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93.txt

제목: "세포의 운명, 활성산소에 의한 ERK-JNK 분자 스위치가 좌우"  
날짜: 20140608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810014478249  
ID: 01100701.201406081001447824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세포의 생(生)과 사(死)를 결정 짓는 활성산소의 작동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 <br/> <br/>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인산화효소로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MLK3((Mixed Lineage Kinase 3)가 매개하는 양성피드백 회로가 활성산소 농도에 대한 ERK(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s)와 JNK(c-Jun N-terminal kinases) 경로간 신호흐름 균형을 조절, 세포 생사를 가르는 분자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기선 박사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최근 밝혀냈다. <br/> <br/>활성산소는 세포 성장을 돕는 한편 세포 손상까지 일으켜 노화 등을 촉진하는데, 그 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생물학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낮은 농도의 활성산소는 세포 내 필수적인 신호전달물질로서 세포신호전달과 항상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산화환원신호의 매개체가 된다. 하지만 과도한 활성산소 발생은 단백질이나 DNA, 지질 등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해 세포 주기 정지 및 사멸, 괴사를 일으킨다. <br/> <br/>이 같은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 활성산소의 상반된 역할에 대한 실마리가 이번 연구에 의해 밝혀진 것. <br/> <br/>ERK는 세포 생존 및 증식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신호전달 분자이며, JNK는 세포의 스트레스 반응 및 사멸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분자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활성산소 농도가 낮을 때는 세포증식에 관여하는 ERK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반면,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사멸에 관여하는 JNK 단백질이 활성화됐다. <br/> <br/>이는 적절한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ERK 단백질이 활성화돼 세포가 분열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반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선 JNK 단백질이 활성화돼 분열을 멈추고 세포가 죽도록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br/> <br/>연구진은 "활성산소는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 관여하는 만큼 암과 당뇨, 심장병 등 각종 질병 및 노화와 같은 많은 생체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시스템생물학 연구를 통해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활성산소에 대한 상반된 세포반응의 원리를 규명함으로서, 향후 활성산소로 인한 노화나 암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r/> <br/>이번 연구 성과는 사이언스 시그널링(Science Signaling)지 6월3일자에 게재됐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94.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개방의 철학이 탄생시키는 미래 과학  
날짜: 201406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410014459452  
ID: 01100701.201406041001445945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달 22일 ‘서울디지털포럼’이 열렸다. 세계의 유명한 석학들이 전 세계를 바꾼 이야기를 하는 이 행사에서 잭 안드라카라는 17세의 고등학생이 연단에 섰다. 안드라카는 미국 메릴랜드 고교생으로 15세 때 한장에 3센트 하는 종이센서로 췌장암, 난소암, 폐암을 5분 만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인텔 주최 과학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친구다. 최근에는 지멘스에서 주최한 월드챌린지에서 다른 친구와 여섯 가지 중요한 환경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안드라카는 암을 진단하기 위한 저렴한 센서를 만들기 위해 나노튜브와 항체를 물에 부어 섞은 다음 종이에 찍어 말리는 방식으로 초기 연구를 집과 학교에서 수행했다. 그리고, 추가 연구를 위해 관련 연구를 하는 200여곳에 연구방법을 보냈다.  <br/> <br/>정지훈 경희사이버대교수·미래학하지만 대부분 이 방법이 틀렸고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럼에도 다행히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그가 수행한 연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결국 그는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원심분리기를 고장 내는 등 실수도 많이 했지만 미래의학에 중요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br/> <br/>안드라카는 서울디지털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오픈콘텐츠를 요구해 봅시다. 췌장암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나도 관련 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br/> <br/>이처럼 과거에는 가장 전문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과학 분야에서도 참여와 공유, 그리고 개방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대중들이 직접 과학연구에 뛰어드는 대중과학 또는 시민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협업이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해지면서 비밀스럽게 혼자나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과의 협업을 통한 연구성과가 좋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br/> <br/>아마 대중과학보다 개인의 브랜드를 중시하고, 연구기관에서는 스타를 원하는 접근 방법이 현재와 같이 계속 강조된다면 과학이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사회적 가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엘리트 체육이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고, 해당 스포츠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생활체육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체육이 가졌던 본연의 가치인 많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과학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지나치게 일부의 엘리트 과학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과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br/> <br/>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쉽게 과학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반드시 흰 가운을 입고, 커다란 연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취미와 열정을 가지고 과학연구를 할 수 있고, 이들의 연구결과가 공유되고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과학의 발전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br/> <br/>이미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 대한 공유의 인프라는 구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소셜네트워크는 관심 있는 과학자들이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오픈소스 하드웨어 운동은 저렴하게 실험실 장비를 만들고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br/> <br/>바라건대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개방형 과학의 시대를 과학자들이 솔선수범해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안드라카와 같은 청소년과 젊은 학자나 우리 주변의 숨겨진 과학적 재능을 갖춘 주부 과학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미래의 과학은 첨단의 새로운 과학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참여와 공유, 개방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시민과학, 대중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때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br/> <br/>정지훈 경희사이버대교수·미래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95.txt

제목: 양해림 렌즈콩 다이어트 화제, 12kg 감량… 효과 '대박'  
날짜: 2014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3100000380  
ID: 01100701.20140603100000380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양해림의 렌즈콩(렌틸콩) 다이어트 효과가 공개돼 반응이 뜨겁다.지난 3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는 양해림의 렌즈콩 다이어트 성공기가 공개됐다.양해림은 렌즈콩 다이어트를 한 지 50일이 됐다면서 다이어트 시작 전 찍은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인생 최고 몸무게 95kg이다. 비만 때문에 성인병도 있었다"면서 "렌즈콩이 단백질이 풍부해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음식이다"고 설명했다.그가 예찬한 렌즈콩은 가수 이효리의 아침 밥상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다. 렌틸콩으로도 불리는 렌즈콩은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임산부에게 좋은 비타민 B군과 태아의 기형을 막아주는 엽산도 많이 함유돼 있다. 심장병, 암,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제 역할도 한다.렌즈콩 소식에 누리꾼들은 "렌즈콩 완전 화제네" "렌즈콩 나도 사먹을까" "렌즈콩 다이어트 효과 장난아니네" "렌즈콩이 렌틸콩이구나" "렌즈콩 다이어트 나도 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96.txt

제목: KDB생명, 생명보험 업계 최초 전용 신용카드 출시  
날짜: 20140603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3100000382  
ID: 01100701.20140603100000382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KDB생명의 다이렉트보험이 OK캐쉬백, 롯데카드와 제휴해 전용 신용카드인 ‘KDB다이렉트보험 P+410’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보험 전용카드를 출시한 것으로 KDB다이렉트보험 월 보험료를 이 카드로 결제하면 매월 OK캐쉬백 포인트 4000점을 지급하며, 이 4000점과 카드를 사용하며 적립된 OK캐쉬백 포인트를 합쳐 최대 낸 보험료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준다.가령 KDB다이렉트 암보험에 가입한 35세 남자가 주유비 15만원, 마트 30만원 등 40여만원을 이 카드로 결제하면 월 보험료인 1만1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실질적으로는 공짜로 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또한 카드이름인 P+410은 ‘포인트를 4배, 10배까지 추가로 적립해 준다’는 의미로 전국 5만여개의 제휴점에서 카드 이용시 롯데포인트는 최대 4배, OK캐쉬백 포인트는 최대 10배의 특별 추가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업계 1, 2위의 멤버십 서비스 업체인 OK캐쉬백, 롯데카드와 제휴해 런칭하는 만큼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라며 “확고한 고객 만족 경험을 통해 인터넷 보험 누적판매 1위의 위상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황은미 세계파이낸스 기자 hemked@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97.txt

제목: 염증에도 좋은 차가버섯…매일 마시면 항염증 효과까지  
날짜: 20140602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210014434509  
ID: 01100701.201406021001443450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의학계의 화두는 ‘염증’이다. 염증은 붉게 부어서 열이 나는 일반적인 상태를 지칭하기도 하고, 여기에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br/> <br/>염증은 암과도 관련이 깊다. 우리 몸에는 매일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발생하지만 암세포가 암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자연적인 치유력을 갖고 있다. 염증이 생기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암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br/> <br/>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제대로 발휘돼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림프구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 면역력이 약화되곤 한다. 과립구의 지나친 활성화로 몸이 염증체질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br/> <br/>염증체질을 미연에 예방하려면 스트레스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염증에 좋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br/> <br/>염증에 좋은 음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근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식품이 바로 ‘차가버섯’이다. 차가버섯은 러시아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북아메리카· 유럽의 타이가 기후대의 자작나무에서 자생하는 버섯으로 러시아가 그 본고장이다. 중앙아시아나 중국 북부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산간지역에서도 극소량이 발견되지만 러시아 자작나무 차가버섯의 품질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알려졌다. <br/> <br/>차가버섯은 면역력에 가장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는 식품으로 전해졌다. 차가버섯에 함유된 유효성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 면역력에 작용하는 베타글루칸을 빼놓을 수 없다. 차가버섯의 베타글루칸은 자연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줄기와 가지가 (1-3),(1-6)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이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가장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항암 효과는 물론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당조절 및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는 등의 작용을 한다. <br/> <br/>또 베타글루칸 외에도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다양한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으며, 인슐린 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이노시톨· 여러 효소 및 SOD 활성을 촉진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망간과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br/> <br/>이러한 다양한 성분들로 인해 항암대체식품으로 가장 선호되는 식품으로 차가버섯이 지목되고 있다. 차가버섯의 항염증효과는 SCI급(SCOUPS등재 국제저널) Medical Journal인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등재된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차가버섯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수준을 감소시켜 대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논문에서는 대장염에 대한 작용효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염증과 암은 발생 기전이 비슷하다고 알려졌다. <br/> <br/>앞서 언급했듯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환경 인자에 노출되면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고, 암세포가 번식하게 된다. 즉 몸의 면역력을 끌어 올려주는 차가버섯의 작용은 특정 질병과 염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암과 질병의 시발점이 되는 염증에 작용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br/> <br/>차가버섯 전문업체 고려인삼공사는 “차가버섯에는 다양한 종류의 다당류와 폴리페놀, 펩타이드, 트리테르페노이드, 스테로이드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항박테리아· 항알러지· 항염증·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98.txt

제목: 소식(小食) 습관이 암세포 번식 막아준다  
날짜: 20140601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1100000142  
ID: 01100701.2014060110000014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평소 적은 칼로리를 섭취해주는 식습관이 암세포 성장·확산을 줄여주고 타 장기로의 전이를 막아준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 토머스 제퍼슨 대학 방사선종양학과(radiation oncology) 연구진은 소식(小食) 습관이 여성 삼중음성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연구진은 암세포를 보유하고 있는 실험용 쥐의 식단을 칼로리를 엄격하게 제한한 ‘소식 식단’으로 바꾼 뒤 암세포 변화 여부를 살폈다. 놀랍게도 쥐의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몸 속 암세포의 성장도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생물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쥐 몸속 마이크로RNA 수치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 방사선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실제로 쥐 몸 속 마이크로RNA 수치가 가장 떨어졌을 때는 방사선 치료와 소식이 병행됐을 때였다.토머스 제퍼슨 대학 방사선종양학과 니콜 시몬 박사는 “<span class='quot0'>칼로리 제한 섭취가 체내 단백질 생산을 증가시켜 암세포 주위 조직을 단단히 만들어 세포의 성장을 저해하면서 타 장기로의 전이·확산을 억제하는 것 같다</span>”고 추정했다.실제로 과거 의학 연구 결과 중에는 과체중일 경우, 유방암 치료 효과가 감소된다는 것과 치료 기간 중 체중이 증가할 경우 예후 및 경과가 안 좋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연구진은 “<span class='quot0'>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 만큼 아직 일반화시키기에는 이르지만 향후 암 치료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결과</span>”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유방암 연구(Breast Cancer Research)’에 발표됐다.고용석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599.txt

제목: 암세포 공격하는 면역세포 활동촉진 방법 규명  
날짜: 2014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8100000415  
ID: 01100701.2014052810000041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미 공동연구진이 체내 암세포 제거에 도움을 주는 NK세포의 활동을 촉진할 방법을 찾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로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로도 불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면역치료제연구센터 최인표 박사팀과 미국 워싱턴대 그린버그 박사팀이 NK세포의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인자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NK세포가 체내에서 제 구실을 하려면 '퍼포린'(perforin)이라는 단백질의 생산·분비가 필수적이다. NK세포는 암세포 등을 공격할 때 퍼포린을 분비해 암세포막에 구멍을 내고 여기에 그랜자임(granzyme) 효소를 넣어서 암세포를 녹인다. 연구팀은 연구 과정에서 마이크로 RNA 'miR-150'이라는 조절인자를 발견하고 이 인자가 NK세포의 퍼포린 단백질 분비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miR-150이 결여된 쥐의 NK세포가 정상 NK세포보다 월등히 많은 퍼포린 단백질을 분비했으며 세포독성도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miR-150이 발현된 쥐의 NK세포는 퍼포린 분비량과 세포독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최인표 박사는 "암이나 알레르기와 같은 염증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의 활성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NK세포의 조절을 통한 면역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알레르기·면역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알레르기·임상면역학회지'(JACI) 4월 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